

the 2nd IPAP

# SEA OF PEACE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인천아트플랫폼 편저



the 2nd IPAP

SEA  
OF  
PEACE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2012.09.25 - 11.25

인천아트플랫폼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후원	웅진군, 인천도시공사
기획총괄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총괄진행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진행	사승현(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오혜미(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전시장 조성	오병석(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매니저)
행정지원	조은주(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매니저)
교육	안지선(인천아트플랫폼 에듀케이터)
전시운영위원	최원식, 김창수, 공성훈, 이종구, 전철원, 정정엽, 최병국, 손동혁, 박석태
인턴	김보라, 이민영, 주소형, 한은정, 박진희

2012년 11월 22일 초판 1쇄 발행

펴 낸 이	조기수
펴 낸 곳	출판회사 헉사군
등 록	제2012-000044호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3, 304-2004
전 화	070-7628-0888, 010-3245-0008
전자우편	3400k@hanmail.net

©인천아트플랫폼 2012, Printed in Korea

ISBN 978-89-98145-08-8



the 2nd IPAP

SEA  
OF  
PEACE

09.25 TUE  
—  
11.25 SUN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08	인천평화선언 _ 최원식
11	들어가는 글 _ 확장되는 풍경과 힘이 세지는 평화 _ 한재섭
12	인천에 놓인 '전쟁의 길'과 평화 _ 정진오
15	해양 다문화도시와 평화 _ 김창수
20	백령도에서 평화를 사색하다 _ 이상엽
22	연평도 포격 우리의 아픔 _ 서은미
25	행동하는 주체,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최근 10년간 국내 평화관련 주요 전시 현황에 붙여 _ 박석태

40 **백령도** Baengnyeongdo

강현욱	KANG Hyunwook
공성훈	GONG Sunghun
권윤희	KWON Yuni
김 봄	KIM Bom
김주호	KIM Jooho
김창기	KIM Changghi
김현철	KIM Hyunchul
민재영	MIN Jaeyoung
박야일	BARK Yail
박충의	PARK Chungueui
선 무	SUN Mu
송필용	SONG Philyong
윌볼튼	Wil BOLTON
윤석남	YUN Suknam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이지현	LEE Jihyun
정정엽	JUNG Jungyeob
조우치	ZHOU Qi
짜까뽀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최병국	CHOI Byungkuk
최정숙	CHOI Jungsook
홍지윤	HONG Jiyeon

84 **연평도** Yeonpyeongdo

김보섭	KIM Bosub
김선두	KIM Sundoo
김지원	KIM Jiwon
김효숙	KIM Hyosuk

노순택 NOH Suntag  
 류성환 RYU Seonghwan  
 박방영 PAK Bangyoung  
 박인우 PARK Yeenwoo  
 박흥순 PARK Heungsoon  
 백인태 BAIK Intae  
 오석근 OH Sukkuhn  
 읍쓰양 WOOPSYANG  
 이수영 LEE Sooyoung  
 이이남 LEE Leenam  
 이 인 LEE In  
 이종구 LEE Jonggu  
 임장환 LIM Janghwan  
 정용일 CHUNG Yongil  
 한윤기 HAN Younki  
 허용철 HEO Yongcheul  
 홍선웅 HONG Seonwung

**130**    **강화도 · 교동도 · 인천** Ganghwado · Kyodongdo · Incheon

김광성 KIM Kwangsung  
 김수환 KIM Soohwan  
 박상희 PARK Sanghee  
 신태수 SHIN Taesoo  
 차기울 CHA Kiyoul

**142**    **황해 프로젝트** Yellow Sea Project

고진한 KO Jinhan  
 구본아 KOO Bona  
 궁썬루 GONG Xinru  
 김순임 KIM Soonim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쉼 Shun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왕 칭 WANG Qing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장 진 JANG Jin  
 최 영 CHOI Young  
 하연수 HA Yeonsoo

**169**    **전시장 전경**

**177**    **현장 답사**

“현재 한국은 엄밀히 말해 교전상태입니다(technically at war).” 휴전협정 58주년을 앞둔 인터뷰에서 중립국감시위원회 소속 스위스와 스웨덴의 두 장군은 입을 모아 이렇게 강조했다. 1953년 7월 27일 영구적 종전이 아니라 일시적 휴전으로 정전된 이후 한반도의 불안은 잠재적으로 지속되었지만,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작년 겨울 발발한 연평도 포격은 일상의 평화 속에 숨어 있는 전쟁의 악령을 섬뜩하게 폭로하였다. 전쟁과 평화가 쌍둥이라는 새삼스런 실감이 육박했던 작년 이래 한반도는 교전중이다.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비전(非戰)을 깨뜨릴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남북 양 권력의 높은 절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무고한 주민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북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6.15선언(2000)을 고비로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를 대결의 외길로 압박한 현 정부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적대행위의 유보에 기초한 소극적 평화의 건지는 최저강령 가운데 최저강령이다. 이 바탕에서 전쟁을 유발할 원천 자체를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가 모색될 것인데, 그 원천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언제든지 비평화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을 품은 채 대치하고 있는 ‘한쌍의 분단국가’다. 분단체제의 평화적 극복이야말로 오늘의 한반도에 있어서 적극적 평화를 여는 황금의 열쇠다. 적극적 평화를 내다보며 소극적 평화를 실천하고, 역으로 소극적 평화의 건지에서 적극적 평화를 다시 보는 쌍방향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길이 간신히 마련될 것이다.

이에 인천이 나섰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시민이 먼저, 서울이 주저하면 지방이 먼저, 정성스런 마음으로 평화의 노릇들을 놓을 일이다. 분쟁의 섬들을 품은 인천에서 예술가들이 모였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동안 엄격히 분절된 서해가 서서히 그리고 급속히, 촘촘한 교류의 바다로 변신하는 자태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음을 잠깐 잊었다. 연평도 포격은 달콤한 망각을 일거에 흔들었다. 아, 서해에는 아직도 금[線]이 있다. 예술가들이 꾸는 서해의 꿈, 바다에는 금이 없거늘. 금이 없는 무등(無等)의 세상, 그 황홀한 해시(海市)를 다시 몽상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거부가 내장된 ‘한쌍의 분단국가’를 넘어 일체의 적대행위가 종식된 영구평화의 공화국, 그 ‘목적의 나라’로 출범하는 멋진 항해를 시작한다. (최원식 기초, 2011.7.7)

2012년 제 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 위의 경계>전은 지난 5월 19일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인천도심 전적지를 시작으로 6월 21~22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총 4차례의 답사를 기반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전시의 주제와 연관되는 지역의 답사를 진행한 후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은 평화미술프로젝트가 2011년 1회 때부터 꾸준히 내세운 전시의 고유한 특성이었다.

답사는 기획팀과 참여작가간의 전시주제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자칫 산만해 질 수 있는 작품들의 일관성을 보듬어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다소 추상적인 평화담론을 답사라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작가에게 작품제작의 현실감을 높이고 기획팀에게 전시의 주요한 추진동력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매 답사 때마다 기획팀은 현지안내와 간담회를 끌어줄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작가들은 작품의 모티브를 찾아 뛰어다니고(또는 기다리고) 현장의 기운을 붙잡아 두고자 스케치와 사진을 찍는 등의 노동을 하였다. 네 차례의 답사가 끝난 7월 6일엔 별도의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답사에 대한 합평과 더불어 인천에서 평화미술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달여간의 작품제작기간을 지나고 평화미술프로젝트는 9월 25일 순조롭게 개막하였다.

답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술사적 맥락에서 답사는 실재 땅을 밟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묘사하려는 리얼리즘적 기운으로 화가들의 새로운 인식전환에 의해 가능해졌다. 서구의 풍경화(landscape)와 동아시아의 산수화(山水畵)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써 외부환경이 아닌 '풍경'과 '산수'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서구가 작품의 주제에 종속된 단순배경으로써 풍경이라면 동아시아는 성리학적 인간의 이상을 산수와 동일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전도되기 위해선 실재하는 풍경과 산수가 화가들에 의해 발견되어야만 한다. 발견된 풍경은 새로운 풍경이라기 보다 기존에 실재하고 있던 풍경을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위치시킨다. 즉, 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팽창하는 도시의 억압적인 문명에 대한 반항적 제스처어으로써,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환화로 풍경화가 독립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인과 신화들의 배경에서 빛과 광선만이 지배하는 풍경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인상주의에 이르러서이다. 산업화가 늦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중심의 사고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산수화의 변화가 시작된다. 성리학적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저 멀리 중국땅이 아닌 바로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상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보지도 않은 중국의 땅을 관념적으로 그리는 산수화에서 내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산수화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족사대부의 몰락과 청(靑)으로 받은 치욕으로 인해 우리 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출현을 낳게 된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현장사생과 답사를 통해 발전한 진경산수화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화폭에 담은 풍속화(風俗畵)의 출현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대부나 왕, 부처의 권위를 조장하는 계몽적인 인물화에서 저자거리의 평범한 인간의 세속풍정들을 담은 풍속화의 출현은 산수와 인간을 동일시하던 기존의 관념산수화, 그리고 성리학 원리주의의 균열에서 기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서해 5도 답사는 서해 5도를 상징적

분쟁상태가 아닌 영구적 평화상태로 정착시키자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서해 5도 풍경에 대한 또 하나의 예술 소재가 늘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령도에는 해병대만이 아닌 심청이의 설화가, 연평도에는 꽃게만이 아닌 서해문명권의 국제교류 교두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외부 풍경의 확장은 실은 내면으로 향하는 시선인 셈이다. 그래서 서해 5도 답사는 금강산에서 발흥한 진경산수화처럼 확장되어가는 새로운 풍경과 인식에 대해 언젠가 백령도 리얼리즘이라 명명될지도 모를 일이 시작된 것이다.

평화가 힘이 세다는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한자 평화(平和)를 풀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평한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힘이 세다는 말을 붙이면 마치 지난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이미지가 연상되기 십상이다. 좀 더 확장해보자. 평화로운 권력이란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에는 종종 이상국가로 회자되는 고대 요순시절의 태평성대나 플라톤이 말한 철인국가에는 이상적인 지도자와 그에 순순히 복종하며 제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로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오래된 희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초의 시민불복종 행동이라 지칭되기도 하는 『안티고네』의 주인공 안티고네는 평화로운 도시 테바이의 왕 크레온에 대항한다. 안티고네의 대항은 인륜을 저버린 아버지 오이디푸스와 그로 인해 발발한 전쟁에서 적과 내통하여 국가에 반역한 친오라버니의 장례식을 금한 크레온에 맞서 장례식을 치루겠다는 결심이다.

“적은 죽어서도 친구가 안되는 법이다”(크레온),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안티고네)라는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극명한 대립은 공존하기 힘든 국가의 질서와 개인의 질서의 대립으로 표상된다. 분명 힘이 센 국가에 개인이 억압당할 수 밖에 없는 희곡의 결말은 비극으로 종결된다. 친오라버니의 장례식을 치루고 지하감옥에 갇힌 안티고네와 그의 결혼 상대자는 자살하고 이들의 자살을 못견딘 어미도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크레온은 부인과 아들을 잃고 “길 밖으로 데려 나가달라”며 자신이 만든 질서에 울부짖는다. 이제는 국가질서의 담지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써, 안티고네의 애도는 지금까지 역사에 국가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숭한 죽음들을 상기시키며 평화로운 권력이란게 가능한건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적은 죽어서도 친구가 안”된다는 국가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개인의 대립은 서해 5도에 그어진 경계선, 그리고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 곳, 백령도에서 죽어간 또 한 사람이 심청이다. 맹인 아버지의 눈을 뜨우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간 심청이는 물살이 거센 인당수에서 인신공양의 희생물로 바쳐진다.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는 다시 환생하여 황제의 부인이 되고 맹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잔치를 벌인다. 맹인잔치에서 심청이와 상봉한 맹인 아버지는 두 눈을 뜨게 되고 잔치에 온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며 새 세상을 보게 된다.

맹인 아버지를 위해 몸을 바쳐야만 하는 『심청가』에는 개인의 욕망보다는 효(孝)라는 사회질서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내재된 갈등, 즉 사회의 억압은 맹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효녀와 열녀(심청의 어머니 께씨 부인), 그리고 악녀(뽕덕어미)를 만들어내고 좋은 개인과 나쁜 개인을 구별하고 분리시킨다. 분리된 개인들은 한 밥상에 도란도란 앉지 못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구성해내기 보다 사회가 호명하는 대로 낙인찍힌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판소리 『심청가』는 심청이의 효보다는 그녀의 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청이는 오로지 제 아버지의 눈만을 띄우게 한 것은 아니었다. 심청이는 비록 아버지의 눈을 띄우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희생은 맹인 잔치에 참석한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 아니 맹인 잔치에 없는 “석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로에서 눈을 뜨”게 한다.

판소리 『심청가』의 결말을 핵심 모티브로 삼은 윤이상은 오페라 『심청』에서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의 희생과 맹인 아버지의 회개를 낳은 세계에 갇힌 인류보편에 대한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축복하는 것은 구원되는 것. 축복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 보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 축복하노라, 또 보노라”라는 주문을 설파한다. 심청의 희생은 무명(無明)에 빠져 허우적대는 중생들에게 구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살행위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가부장 사회를 지탱시키는 효의 담지자로 인당수에 수장되어 있는 심청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구원받게 된다.

인간운명에 대한 공포와 애련을 느끼게 만드는 『안티고네』와 달리 판소리 『심청가』는 심청의 소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으로 안티고네, 보살행위로 심청이는 평화로운 권력과 인자한 아버지만에 은폐된 개인과의 갈등의 지점을 직면하게 해준다. 거기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인간과의 갈등을 화해시킬 수 있는 해답보다는 우리의 상상력과 실천행위를 자극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는 서해 5도에 그어진 민족간, 국가간의 경계에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며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어떤 방식이라고 해서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해 바다에 그어진 보이지도 않는 경계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남북간 분쟁종식에 기여하자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닌 제발 모두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인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는 서해 5도의 상시적 긴장상태가 아닌 영구적 평화정착을 바라는 인식의 변화가 백령도라는 새로운 풍경으로 확장되었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섬과 바다에 새겨진 비극과 희생의 내러티브들을 깊고 진중하게 듣고자 한다. 예술이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만인에 대한 희생과 찬가로서 목적지워지길 바란다. 작게 희망해 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서로에게서 평화를 마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희망해 본다.

여기, '전쟁의 길'이 있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있지 않은 길, 그 '전쟁의 길'이 인천에 있다. 이 길은 1천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씨줄로, 강화도와 옹진군의 섬에서부터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공간을 날줄로 삼아 뒀다. 13세기의 여몽전쟁, 16세기 말엽의 임진왜란, 17세기의 잇단 호란(胡亂), 그리고 19세기 서구열강의 계속된 한반도 침략 양요(洋擾), 20세기 문턱에서 한반도를 전장(戰場)으로 삼은 열강의 각축전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여기에 한국전쟁과 끊이지 않는 서해교전까지. 이들 전쟁이 모두 인천이란 하나의 지역을 관통해 벌어졌다. 이것도 숨치데, 인천의 국제전(國際戰) 역사는 여몽전쟁 보다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7세기 후반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친 나당연합군의 서해진출도 인천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찌, 이렇게 한 도시에 국제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잇따를 수가 있는가. 인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세계 어떤 도시도 인천처럼 호된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경우가 없다. 그 전례를 아직 찾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폭력이 있는 뒤에라야 '비폭력'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있는 뒤에라야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모두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인천에 놓인 '전쟁의 길'이 연장(延長)되어선 절대 안 된다. 인천의 '전쟁의 길'을 '평화의 길'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는 걸까. 인천에서 새로운 '평화의 길'이 뒹일 때, 그 평화의 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천에 '전쟁의 길'을 만드는 데 참여한 세계 각 나라가 그것을 말해준다. 중국, 몽골, 일본, 프랑스, 미국, 러시아, 남북한 등 무려 8개국 이 인천에서의 전쟁 당사국이지 않은가.

그 인천에 놓인 '전쟁의 길'을 따라가 보자.

인천에 외국 군대가 상륙한 것은 당나라군이 가장 먼저 일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소정방(蘇定方) 군대가 중국을 출발, 인천 덕물도(덕적도)에 도착해 신라군과 합세했다는 기록이 있고, 인천 출신 극작가 함세덕의 작품 『낙화암』에는 당나라 군대와 백제군이 덕물도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그려진다. 백제군이 덕물도에서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섬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 덕적군도에 포함된 섬 소야도(蘇爺島)는 아직도 소정방의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

인천은 1231년 몽고가 고려를 침공하고, 그 이듬해인 1232년 세계 전쟁사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드러냈다. 고려가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긴 것이다. 강화는 이때부터 1270년까지 햇수로 39년을 고려의 '전시 수도'로 기능했다.

조선시대에도 인천은 어김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내몰렸다. 조선 역시 그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 극성을 부린 왜구의 침략이 조선 전기에도 지속되다가 급기야 임진왜란(1592)이란 국제전을 불러왔다. 임진왜란은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제3국인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 벌인 국제전으로 볼 수도 있는 전쟁이다. 그 속에서 인천은 3가지 모양을 띤다. 어떤 지역은 전쟁 내 내 안전을 유지했고, 어떤 곳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지역에선 일본군을 격퇴시키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강화도는 왜군의 상륙을 허용하지 않았고, 의병들의 거점지역이 됐다. 역사적으로 '전란의 땅'인 강화도가 임진왜란만큼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부평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극심한 피해 지역이었다고 한다. 바로 문학산성에서 패배한 왜군들의 분풀이가 부평에서의 피



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크다. 또 문학산성에서는 당시 관군과 주민들이 돌돌 뭉쳐 왜군에 맞서 몇날 며칠을 싸워, 끝내 성을 지켜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육상전투에서 조선군만의 힘으로 왜군을 물리친 싸움이 행주산성과 문학산성 등 몇 곳 안 된다. 그 만큼 문학산성 전투는 의미가 크다. 지금 문학산 정상은 공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출입이 안 된다.

임진왜란의 7년의 침화가 끝난 지 30년도 안 돼, 꼭 29년 만에 이번에는 남쪽 '오랑캐'가 아닌 북쪽 '오랑캐'의 침략을 당했다. 1627년의 정묘호란이다. 또 그 10년도 지나지 않은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함께 우리민족 최대 병화(兵禍)로 꼽힌다.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역시 인천이 전쟁의 한복판이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한양 궁궐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란했던 인조는 강화(연미정)에서 정묘약조를 맺었다. 병자호란은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부터 들이닥쳤다. 강화도에 도망친 왕(인조)의 가족들을 잡기 위해서였다. 강화도에 살던, 강화에 피란가 있던 애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육을 당했는지 그 수효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강화로 가는 길이 끊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되돌아갔지만 강화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포기하고 삼전도의 차욕을 당했다.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까지는 불과 4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열 살 때 임진왜란을 겪었다면 서른 아홉에 정묘호란을, 다시 마흔 여덟에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나. 당시 조선 땅에 살던 사람은 조선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야 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가장 1차적 책임은 침략자들에게 있지만, 조선의 무능한 임금과 자기만 아는 지배계층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전쟁의 역사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외연을 넓힌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벗어나 프랑스, 미국 등 서구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병자호란이 있은 지 229년 되던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를 침략했다. 병인양요였다. 서구 열강의 조선 침략이 노골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때부터는 인천이 집중적인 타깃이 된다. 병인양요 그 5년 뒤인 1871년엔 미군이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를 점령했다. 신미양요였다.

5년이 또 다시 흐른 1876년엔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체결됐다.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를 공격한 일명 '운요호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양요(洋擾)처럼 전란이란 말만 안 붙였지, 명백한 일본의 침략행위였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도 인천이 핵심이었다. 이들 두 차례의 전쟁도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끼리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1910년,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다. 완전히 망한 것이다. 조선을 차지한 일본은 조선 땅에서 중국을 향해, 세계를 향한 전쟁을 일으켰다. 한반도는 그 전진기지였다. 인천의 부평지역이 전쟁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지가 된 것이다. 1945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독립해 제 이름을 찾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다. 둘로 갈려야 했다.

망국 40년 뒤, 해방 5년 뒤, 한반도에선 남북으로 갈린 두 체제가 전쟁을 벌였다. 6·25 전쟁, 한국전쟁이니 이름도 하나가 아니다. 인천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상징도시가 됐다. 이 때 미군상륙은 한반도 역사상 몇 번째일까. 미국해병대의 첫 번째 한반도 상륙작전은 신미양요 때였다. 미군은 1945년 8월, 다시 인천에 상륙해 미군정 체제를 시작한다. 미군의 두 번째 한반도 상륙작전이었다. 그리고 다시 1950년 9월에 상륙작전을 벌이게 된 곳 역시 인

천이었다. 미군 역사로 보면 한반도 3차 상륙작전이었다. 맥아더는 어쩌면 미군의 한반도 상륙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인천상륙작전을 밀어붙였는지도 모른다. 1차 신미양요 때와 2차인 1945년 미군 진주 때의 인천 상륙이 모두 성공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까지 인천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있다. 서해5도 주변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인천은 어처구니없게도 1천 년 이상 계속된 이들 전쟁의 핵심지역이었다. 인천의 전쟁 역사는 우리가 인식했던 그렇지 않았든 이렇게 숨 가쁘게 진행됐다.

인천에 전쟁이 있을 땐, 동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거꾸로 인천이 평화로울 땐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로웠다. 인천의 평화가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인천은 확실한 '세계의 전장(戰場)'이다.

전쟁은 시공을 초월해 닮았다. 살육과 파괴, 약탈이 전쟁이란 이름 아래 버젓이 자행된다. 그 전쟁에 이르게 한 교전 당사국의 지도자들은 태연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쟁이란 도구를 즐겨 사용한다. 이런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국가의 크고 작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위에서 얘기한 인천의 전쟁들은 늘 그것을 말해왔다.

인천에서만 걸을 수 있는 길고도 긴 '전쟁의 길'에서는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외침을 너무나도 크고 또렷하게 들려준다. 인천은 전쟁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또 미래이다. 특히 강화도는 800년 전의 전쟁의 기억과 현재의 남북분단 상황을 동시에 몸으로 보여주는 '전쟁과 평화'의 상징 공간이다. 강화는 어느 곳보다도 남북이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미래의 땅'이기도 하다.

'전쟁'이란 두 글자로 1천 년 도시의 역사가 설명되는 유일한 땅 인천에서, 역설적이게도 '평화의 길'은 닦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창수 \_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인천은 1883년 개항되면서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관문도시에서 국제교역도시로 변모하였으며, 현재는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이다. 해양도시란 해양 환경이나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해상과 해변에 거주시설이나 항만·공항 등을 건설하여 해양의 공간과 자원 이용하여 발전하는 도시로, 해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해양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인천은 경기만에 흠뻑 젖어 있는 다도해를 행정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경기만의 다도해는 강화도, 백령도, 덕적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17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인천의 다도해는 침강 해안 특유의 해양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서지역을 제외하고서도 인천시 내륙 지역의 해안선은 140km에 달해 다양한 수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세계 최대의 갯벌이며 생태 문화적 가치와 높은 경제적 생산력을 지닌 해양 자원인 강화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 인천은 한반도 중부지역 경기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연안 및 국제 항로의 중심항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국제적 항구도시로 근대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월미도와 송도가 일제강점기 수도권 최대의 해양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인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양도시적 특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추홀(彌鄒忽)'이라는 인천의 고대 지명은 '바닷물로 둘러싸인 고을'을 뜻이 담겨 있으니, 바로 해상 도시 라는 의미이다.<sup>1)</sup> 역사 시기 이전 인천은 마한(馬韓)의 소국으로 유지되다가 기원전 18년 경 고구려의 유민(流民)이었던 비류(沸流) 집단이 남하하여 인천지역에 미추홀국을 세운 이후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비류 집단이 이 지역을 도읍의 터전으로 삼은 것은 소금을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해상교통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류 집단이 건설한 미추홀국은 온조 세력에게 패배하면서 인천지역은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는 근초고왕 대에 이르러 중국과 교역을 시작하는데 이때 사신의 출발지점이 현재 인천시 옥련동의 능허대(凌虛臺) 일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능허'란 당(唐)나라 시인 소동파의 시구(詩句)에서 유래한 것으로 "만경창파(萬頃蒼波)를 날아올라 허공을 건넌다"는 의미이니 역시 해양 교역도시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려가 건국되면서 오랫동안 해양세력의 근거지였던 인천의 위상도 격상되었다. 고려태조 왕건은 예성강 유역을 무대로 해상활동을 펼치던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예성강 일대는 물론 그 관문에 해당하는 강화도와 패강진, 미추홀 지역의 해상 세력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였다. 당시 인천지역의 대표적 호족은 인주 이씨였는데, 이들의 해상 지향적 성격은 시조인 이허겸의 묘를 바닷가의 섬이었던 '까치섬'에 해중릉(海中陵)으로 조성한 것은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왕실은 건국이후 해양 관문인 인천지역과 긴밀한 지역연맹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예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동안 고려 왕실은 7차례나 인주 이씨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1) 인천의 옛지명 '彌鄒忽'이 '미소굴(mi-su-kurV)'의 음차표기이며 그 의미는 '물의 도시' 혹은 '바닷가의 성(城)'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구려 계통 고대 한어로 추정하였다. - 최남희(2005),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p.80

특수한 성격 때문에 고려 시대에 인천은 '국가적 경사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경원(慶源), 고려 '인종의 외향'이라는 의미로 인주(仁州)로 불렸으며, 이자겸의 역모 사건 직후 군(郡)으로 격하된 시기를 제외하면 도호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조선왕조는 대외 개방적이었던 고려와 달리 대외교역과 해상활동에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겪고 제국주의 세력이 문호개방을 요구하며 아시아를 침략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해양봉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해양 교역이 봉쇄되면서 인천은 어촌으로 바뀌었고 수도 한양의 방어진지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조선시대에 인천은 조정의 해금정책으로 해양성이 퇴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낙섬[猿島]에 서해의 해신을 위한 사당을 설치하고 왕의 안위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봄가을로 올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서해안 해양 문화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오늘의 인천은 1883년 국제항구도시로 개항되면서 그 기초가 이뤄졌다. 해방 후 냉전시대에 침체했던 인천이 한중수교와 남북교류가 이뤄지면서 동아시아 허브도시를 표방하며 제3의 개항기를 맞고 있는 사정 역시 해양도시의 전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인천의 과거가 바다의 자원, 바다의 소통기능에 의존하여 지속되어 왔듯이 인천의 미래도 해양의 이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인천항은 한국과 인천의 중요한 산업 인프라이며, 연안부두와 월미도, 강화 공진의 도서 역시 어업과 해양관광, 해양 레포츠산업의 중요한 기반이다. 경기만의 해양문화-벚노래, 갯가노래, 배연신굿, 꽃창굿, 풍어제-는 현재 보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창의적 기획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천혜의 문화콘텐츠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주객관적 조건이나 문제의식의 결여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발전 계획이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갯벌은 경기만의 자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획들은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를 끌어안는 방식이 아니라 바다를 밀어내고 훼손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은 반해양적이었다. 철책선 제거와 친수공간 조성 계획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친수공간과 나란히 산업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과 친수공간 본연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해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성과 해양문화가 인천의 정체성 혹은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sup>3)</sup> 불구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문화자원은 인천 문화의 전통이며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며,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문화 창조의 원형질이다. 최근 도시가 가진 고유성과 전통을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재기획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 문화자원은 낙후한 인천의 원도심 지역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자원이 된다. 특히 송도와 청라 영종 지구와 같은 경제 특수의 신도시 개발과 인천항 친수공간 개발 등과 같은 수변공간(water-front)의 개발에 지역 고유의 해양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p. 185

3)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다문화성, 관문성, 해양성이 중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해양성은 지문화적(Geo-cultural) 특성으로 장기 지속적이며 본질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 김창수(2006), 『인천 혹은 해양다문화융합도시(인천공부)』, 다인아트, pp. 235-258

## 2. 다문화도시

인천의 또 다른 도시적 성격은 다문화성이다. 인천이 지닌 다문화적 특성은 기원전에 건국된 미추홀국이 북방계인 고구려의 비류 세력과 토착주민으로 이뤄진 다문화국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인천은 이후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고려가 중국과 아시아국가의 대외 교역과 교류라는 중요 기능을 담당한 지역이었으며,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인천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이 되면서 다문화적 성격은 더욱 뚜렷해졌다. 개항장 제물포는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서양과 동양,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부딪혀 충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공간이기도 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인천항 국제 여객선의 증편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관문 공항으로서 일평균 10만여 명, 연평균 3천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드나드는 다문화 시대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 다롄, 톈진, 칭다오를 연결하는 국제여객선의 기항지로 중국인들의 입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동공단을 비롯한 인천의 산업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여 6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이 지닌 다문화 공존의 특성은 일면 도시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비춰지지만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생태적 건강의 척도이듯이 문화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성의 의의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2005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은 154개국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는데, 문화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 정신은 200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문화다양성 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생태의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초적 근거를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다문화주의의 중심 개념은 이주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발양하고 생성시키는 요인과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주자 혹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문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주문화는 주류문화와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동아시아와 세계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민족적 편견이다. 한국인 특유의 혈통 중심주의나 단일민족 신화와 같은 폐쇄적 국민관. 세계화시대에는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여 다른 인종과 함께 살아가듯이 다른 인종도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 국민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상황논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인천을 외국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도시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인천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인천문화의 새로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사업이 본격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시정부의 창의적 노력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인천에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화제나 자료전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 자체로서 꽤 고무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이 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시민사회와 시정부는 인천을 다문화 도시로 선포하고 긴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 지역 사회는 앞으로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단일 정체성에 대한 강박증을 지양하고 새로운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평화도시 논리와 과제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는 세계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리는 변곡점이었다. 뒤이어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 힘입어 한국은 한소수교(1991)에 뒤이은 한중수교(1992)를 체결함으로써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전쟁이후 단절되었던 인천의 대 중국 교역로가 1990년에 열리면서 탈냉전의 국제정세는 인천의 운명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인천항의 기능 회복, 경제특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활력을 띠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인천의 '미래'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긴박(緊縛)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 평화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양도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바다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하는 도시이며, 바다는 개방되어 있을 때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고려시대나 개항이후 처음 바다가 개방되어 있을 때 인천은 국제항구도시로서 역동적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반대로 바다가 닫혀있었던 조선시대, 쇄국정책기,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의 인천은 침체의 시대였다. 인천의 운명은 경기만과 황해라고 하는 동아시아중해의 평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이 탈냉전, 평화정착의 최대수혜도시가 될 것임은 지금까지의 정세 변화가 인천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 북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약 64.4%)은 인천-남포간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인천은 대북교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이 평화도시로 바뀌게 되면 국제항구도시 특유의 문화적 창조성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특히 개항이후 다문화도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은 동서문화, 세계문화가 공존하고 융합되는 도시이면서 남북문화의 공존지대를 표방하여 이를 새로운 문화창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단체의 대북교류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향후 평화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2005년 방북단을 파견하여 당시 개성공단 배후지역인 개풍군에 경제공동개발구를 조성하고, 인천 강화도와 황해도 개풍군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해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일부 경기 종목 중 일부를 북한 지역에서 치를 수 있다면 아시안게임은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으로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대북 교류사업에 대해 그 정치적 의도를 들어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나 적어도 인천의 경우 남북 화해를 위한 평화교류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주는 '축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파급되겠지만, 인천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대북교류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 중 연평해전이나 포격사태와 같이 분쟁의 현장이 되고 있는 서해를 남북이 공존하고 공동의 이익을 얻는 장소로 전환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평화경제지대 설정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해평화경제지대의 설정 목적은 개성-해주-한강하구-강화-백령도-인천을 연계하여 하나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경제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서해에 남북 공동어로지역을 설정하여 서해의 어자원 보호와 어획활동, 어장 공동관리를 통해 서해평화와 어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해 5도를 비롯한 서해도서지역을 해상 평화 공원으로 지정하여, 낙후한 도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수려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해양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평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해를 거듭하면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데, 참여 작가의 폭을 북한과 동아시아로 확대해 나간다면 뚜렷한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과 남포는 수도의 관문항이라는 지정학적 위상이 유사한 도시여서 물류를 비롯한 경제 교류의 동반자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 강화도는 몽골침입기 고려의 피난수도였던 관계로 고려문화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피난수도였던 강화도가 공유하고 있는 고려 문화를 매개로 도시간 문화교류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도시란 본래부터 '평화로웠던'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가장 절실한 도시일 터이다. 인천은 제국주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평화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 평화도시들은 대부분 분쟁지역이나 전쟁의 피해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시킨 곳이다. 평화도시로 재탄생한 히로시마는 2차 대전 당시 원자탄이 투하된 비극적인 도시였으며,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4.3 사태 당시 수많은 섬주민이 희생당했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독일의 오스나뉼리크도 전쟁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로 바뀐 곳이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분쟁이나 전쟁의 고통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으나 평화도시로 전환하여 고통과 갈등을 극복한 것이다. 인천이 평화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배경과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오래전부터 DMZ라 불리는 비무장지대를 돌아다녔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 비무장지대는 38도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동도에서 고성까지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 휴전선이 바다에서 이상하게 꼬인 곳이 있다. 통칭 서해 5도라 불리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다. 이 섬들은 원래 황해도 장연군 벽성군에 속했는데 해방과 전쟁 중에 남측이 점령하면서 해상 북방한계선인 NLL 안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유엔 측과 북한 측이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에서는 북의 코앞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거점이고, 북에서는 무력화해야 할 남쪽 1순위 공격지점인 것이다. 이러하니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남북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 분쟁의 섬들

나의 서해 5도 첫 방문은 연평도였다. 이제는 올라오지도 않는 조기를 취재하러 간 것이다. 조기의 신으로 모셔지는 임경업 장군의 사당과 그를 모시는 만산이 주관하는 띠벚꽃이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방문도 역시 연평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폭격으로 주민하나 없는 연평도에서 무너진 집들과 집 잃은 개들만 찍었다. 임순례 감독과 함께 떠돌이 개들을 돌보는 것이 사진 찍는 일보다 중요했다. 세 번째 방문은 백령도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들과 함께 했다. 말로는 내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 서해 5도를 설명하라는 것인데, 사실 작가 중에는 인천 출신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애당초 멘토는 어울리지도 않고 나 역시 이곳을 공부하고 기록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서해라는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해보다는 황해가 정식 명칭이다. 우리 쪽 표현 서해보다는 황해(黃海), 영어 'Yellow Sea'가 국제적인 공식적인 명칭이다. 또한 황해는 우리 정부의 공식 표기이기도 하다. 반면 서해(西海)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관용적으로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3국의 공동 명칭으로 황해가 적절하다. 이 황해는 동-서-북 모두 육지로 막혀있고 남쪽으로는 열려있어 지중해에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고대부터 연안 항해술이 발전해 육로에 버금가는 문명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연안 항해는 한중간의 연안을 이용하는 북방 연해로와 한중을 횡단하는 북방 횡단로가 있었다.

### 동북아시아를 이어주는 뱃길

가장 오래된 뱃길은 한중 연해로다. 이 항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시경』과 『논형』에 기록된 속지와 해외에 대한 기록으로, 해외란 산둥 반도, 발해만, 요동반도, 한반도 서해안을 일컫는다. 제나라 공자가 언급한 동이는 바다 건너 고조선의 땅이다. 이 항로가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은 유명한 서복의 동도다. 중국원양항해의 효시인 이 사건은 진시황을 속여 불초를 구하기 위해 수천의 남녀를 이끌고 연안항로를 이용해 일본까지 도주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 항로를 정리하면 산둥 반도 등주에서 동북항해 대사도, 구황도 등을 거쳐 북방 요동반도 마석산, 도화포(현 대련시)를 거쳐 오골강(현 압록강 하구)을 지나 남쪽으로 향해 오목도(평안북도), 패강(현 대동강) 하구, 초도, 장구진(현 황해도) 진왕석교(웅진반도), 백령, 대청, 연평도를 거쳐 덕적도를 지나면 한강하구와 당은포(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 도착한다. 이어 계속 남진해 남해 금산에 마애 석각을 남겼고 제주도 서귀포의 정방폭포에 흔



적을 남겼다. 이후 계속 남진해 일본으로 들어간 것으로 중일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서북이 천황이 되었으니 '신무천황'을 그로 비정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한중 횡단로가 생긴다. 한중 횡단로란 한반도 서해안에서 황해를 횡단해 중국 동해안에 이르는 바다길이다. 북방 횡단로라고도 한다. 이 뱃길의 개척은 연안항로가 고구려의 색로(여러 연유로 이미 있는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새로이 개척된 길이다. 현 북한과의 관계로 바다길이 막힌 것과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길은 백제 개로왕(472년)때 위나라와 통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척 험할 길로 초기 많은 배가 난파했다. 이 길은 변산반도나 한강하구에서 출발해 북진하면서 덕적도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와 장산 근처에서 급 서진해 산동 반도로 향하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 위해가 최단 거리이다. 이 항로는 거꾸로 중국에서도 이용했는데 660년 당 고종이 신라의 요청으로 백제를 정벌할 때 당 장군 소정방이 이 루트를 이용해 한반도에 접근해 덕적도에 군진을 차렸다. 이후 신라와 당의 교통에서 이 루트는 빈번히 사용되어 성덕왕 때 김지량, 일본 승려 엔닌의 이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기록으로 보면 임경업이 중국으로 들어가려 할 때도 연평도를 거쳐 가려한 듯하다. 설화이지만 심청전의 인당수 앞 바다를 백령도를 비정하는 것은 이곳에서 중국 배들이 서진해 산동 반도로 횡단 할 때 거친 바다에서의 무사항해를 비는 제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 백령도 북쪽 황해도 장산곶이 보이는 자리에 심청각을 세워 놓았다. 역사적 인물이 아닌 설화적 인물인데 너무 사실적으로 상을 만들었다.

#### 평화의 바다를 위해

아니나 다를까? 백령도는 우리 앞에 안개의 장막을 치고는 여지간해서 그 실체를 내보이지 않는다. 한 여름인데도 날씨가 선선한 것을 보면 북쪽으로 꽤 올라왔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심청각에 올라 오른쪽 황해도 장산과 왼쪽의 망망대해를 본다. 그 옛날 배들은 이곳에서 왼쪽으로 급선회해 중국 발해만으로 향했다. 이 바닷길을 통해 한중간의 사신과 승려 물품이 교류되었고, 문화가 교류되었다. 중국의 최신 문물은 이 길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또한 일본 역시 이 길을 지나서야 비로소 중국과 통할 수 있었다. 이 바다길이야말로 한중 두 나라 교류의 통로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동단의 중심 루트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지중해와도 같은 황해 바다는 중국 한국 북한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바다의 연안에 한국 측에서는 인천과 서울, 북한은 평양과 신의주, 중국은 천진, 연태, 위해, 대련은 대도시들이 접해있다. 실질적으로 동북아의 핵심인 것이다. 이 뱃길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바로 동북아 화약고라 불릴만한 서해5도이다. 불안정한 NLL로 인해 늘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다. 뱃길을 복원하고 분쟁을 잠재우는 일.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번영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 날 2010년 11월23일은 햇볕이 좋았던 날로 기억이 난다.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늘 평시에도 사격연습이 있는 곳이라 북한과 가깝게 마주하고 있어도 덤덤하게 넘어가던 차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냥 오발탄이겠지 싶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이들 셋이 연평도에 있고 해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폭탄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남편의 대답이 오전에 군부대에서 사격연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을쪽으로 오발탄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난 그저 군부대를 탓했다.

잠시 후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군부대에서 사격연습 중에 오발탄이 마을쪽으로 떨어진 것 같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정아버님이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나오는 배편이 있으면 아이들이 인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 때 남편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순간 전화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폭탄소리 사이로 다급하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실전이라고 북한에서 포탄을 쏘고 있다고 대피를 해야 하니 전화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전화를 끊었으나

그때는 이미 다리가 풀리고 아이들은 무사한가 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그 답답함과 절실함이란 무엇이랴 말할 수가 없었다.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도 연결되지 않고 꺾전에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맴돌고 심장만이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에 가슴만 쓸고 있었다.

그 때 모르는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아이들은 무사하다는 남편의 전화였다. 본인의 전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짧은 메세지도 덧붙여졌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때 또 한번 전화 벨소리가 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어선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반가움과 고마움에 눈물이 흘렀다.

무사히 아무 탈 없이 그 넓은 바다를 헤치고 인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절된 연락 .... 전화기만 붙들고 조바심을 태우고 있었다.

4시간여 만에 인천부두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착시간 30분전부터 인천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리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연안부두 어선들의 불빛 사이로 남편과 아이들을 태운 어선이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마음을 조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반갑고 고마운 전화벨, 세상에 이 보다 더 좋은 소리는 없을 것이다.

남편이 어선 선착장으로 도착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차를 돌려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길

내 아이들, 내 남편이 죽음의 지대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

살아서 오는 아이들과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내 마음은 선착장에 가 있었다.

후레쉬가 터지고 기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아이들을 보며

소리높여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슬리퍼에 안경도 쓰지 못하고 교복차림으로 나온 큰 딸

초등학교 체육복에 아빠의 옷을 걸치고 나온 아들

수업이 끝나고 책가방을 지고 집에 왔다가 폭탄 소리에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와 큰 길 가에서 울었다는

막내 딸

당섬 선착장에서 폭탄이 마을에 떨어지는 것을... 집 주변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남편

아이들을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이 전부였다.

연평도 주민이면 떨어지는 폭탄의 소리에 놀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선에 몸을 싣고 나오면서 불기둥과 연기에 휩싸인 연평도를 바라보며 다시 돌

아올 수 있을까 싶어 눈물만 흘렸다는 피난민들의 말속에서...

축축한 대피소 의지할 곳 없는 콘크리트 벽속에서 또 폭탄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주섬주섬 가방을 꾸려 해경정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그 때의 아픔의 느껴진다.

포탄과 화염에 휩싸인 연평도를 떠나 주민들이 모여 있었던 찹질방은 날마다 기자들과 방송국에서 취

재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설

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차가웠던 대피소의 하루, 집을 잃어버려 세간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자의 한숨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귓전에서 맴도는 사람들

찹질방에서 주민들은 담요 한 장을 뒤 집어 쓰고 서로의 발끝과 머리를 맞대고 폭탄으로 놀란 가슴을

서로 달래주고 있었다.

새벽이다

한 잠을 자고 나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는 한 숨으로 하루를 열어야 하는 연평도 주민들의 새벽이

다.

몇 백 명이 같은 공간에서 한 숟 밥을 먹으며 서로를 보듬고 있는 이 공간이 아픔이면서도 서로가 있

어 따뜻하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를 떠나 찹질방에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하루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으로 아침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다가 부르면 바다의 부름에 순응하며 살았던 연평도 주민들  
한 순간도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들이  
바다를 등지고  
삶의 터전을 등지고  
돌아갈 날들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누가 포탄을 쏘았는가  
누가 포탄을 쏘게 만들었는가  
왜 그들은 포탄을 쏘아야만 했는가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

폭탄이 떨어지는 그 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날아오는 포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어디로든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당섬 선착장 주차장을 정신 줄 놓고 달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여유가 없었던 그 날의 기억에  
또, 폭탄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지금도 잠이 오질 않는다는  
주민들 하나, 둘, 셋 ...  
포격이후 연평도에 다시 돌아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하게 잠들수 있는 밤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북에 부모 형제를 두고 온 실항민들은 통일을 꿈꾸며 연평도를 찾아온다.  
북녘 산야를 바라보며 그리운 얼굴들을 바다에 그려보며  
더 이상 한 민족인 우리들 가슴에 총 뿌리를 겨누어서는 안된다고  
후손에게 피 흘린 민족의 상처를 남겨주어서는 안된다고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눈에 담고 또 담아 가슴 저미는 한을 접으며 하는 말이다.

안개 낀 아침을 여는 포성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소리다 하지만 분단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다. 연평도를 찾는 실항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연  
평도의 아픔이 사라지는 그 날을 꿈꾸어 본다.

이 글은 <2012년 제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이하 <평화미술프로젝트>)를 맞아 국내에서 열렸던 평화와 관련한 전시를 정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평화미술프로젝트>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향후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글을 준비하는 내내 필자를 괴롭혔던 것은 평화에 대한 개념상의 범위와 전시라는 형식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였다. 덧붙여서 평화의 반대 개념인 전쟁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 역시 막연하기만 했다.

박석태 \_ 미술비평  
인천문화재단

그러나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평화미술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남북한의 분쟁과 갈등이 제거된 상태로 평화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개인이 지향하는 종교적 평화 상태 혹은 자연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로서의 평화와는 구별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글에서 말하는 평화란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이며, 그것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전쟁 이외에도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여하한 불평등 상태로 한정하였다. 말하자면 정치적 평화를 의미하는데,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으로는 전쟁 이외에도 사회적 갈등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시의 범위를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white cube)에서 벌어지는 전시는 물론 현장미술의 성격을 지닌 대안적 미술과 일정한 사안을 위한 프로젝트까지도 아우르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 평화의 개념은 점차 좁아지고, 역설적으로 전시의 범위는 넓어지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 최근 10년 평화 관련 전시 혹은 프로젝트의 성격

개념상 최소한의 '현대미술' 시발점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195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미술은 전쟁, 평화, 현실에 대한 담론을 내용적으로 담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쾌대 등의 월북작가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시기가 80년대 후반부터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남한 사회에서 예술의 현실 참여는 삼복기름의 떡잎처럼 고사 직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던 중 80년대라는 거대한 정치·이념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미술운동은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던 미술인들에게 동시대성을 발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미술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었다. 민족미술운동은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기존의 미술계에 대한 강력한 대항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운동의 출발은 미술의 표현과 창작을 제한하려 하는 외부와의 싸움을 의미한다. 이는 이 글이 문제 삼고 있는 내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외부와의 필연적인 싸움의 근원적 의미로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 미술을 지향하였다.

미술운동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은 곧 미술의 사회적 존재 확인과 그 실천성을 담보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80년대 미술은 현실의 사회적 모순구조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대현실의 삶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미술의 서술적 형태는 어떻게 창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자극히 당연한 관점을 갖고 고민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80년대

를 풍미했던 민족미술운동은 1994년 2월 한 달간 민중미술의 15년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아카데미즘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어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진 채 동시대를 증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개념에 대해 반복되는 규정과 부정의 잇달았으며, 이론적 논쟁으로 얼룩진 운동은 그 시효를 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시선에 비친 민중, 한 쪽으로 규정되는 민중의 모습이 아니라 민중 자신의 삶이 드러내는 힘과 지향성, 즉 실천과 직결되는 살아 있는 활동의 발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데 있다. 즉 예술가 자신이 실천하는 민중의 일원이 되어 체화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잠시 숨죽인 듯이 보였던 미술운동은 이후 한층 성숙해진 발언의 형태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평화와 관련한 미술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첫째, 민중의 범위가 개념의 차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의 주체이자 객체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결과로서, 예술가 자신이 곧 민중이자 건강한 상식을 지닌 생활인이라는 자세를 견지해 나간 성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추리 현장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으로 없어진 경기도 평택의 대추리마을은 (미군에 의한)국가안보라는 초법적 미명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국가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서 셀 수 없는 수의 예술가들이 대추리에 모였고, 평화를 이야기하며 부당한 큰 힘에 저항했으며 예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인하였다. 2007년 12월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린 '『대추리 현장예술 백서』출판기념회 및 <대추리 현장예술 도큐먼트: 들 가운데 서서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이 프로젝트가 출판과 전시라는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3년 동안의 다종다양한 주체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서로를 엮은 과정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프로젝트성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특징으로, 전형적인 전시의 틀을 벗어나 한시적인 프로젝트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에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예술을 둘러싼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2008년 1월에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렸던 박영균 개인전 <빨간풍경과 노란풍경을 지나>와 같이 대추리를 대상으로 한 전시도 있었지만, 노순택의 '대추리 사람들'이나 '청년예술캠프'와 같은 집단적 창작물, '황새울 사진관'과 같은 대안적 공간 운영 등은 한시적으로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으로서의 기록뿐 아니라 매체와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탈 장르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예술가들의 발언 역시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2010년 10월에 있었던 <강정주민과 함께 보낸 어느 여름>, 같은 해 11월 탈라미술인협회가 주관한 <엄마야 누나야 강정 살자>, 역시 같은 해 11월 아트포럼 리에서 개최되었던 '컨템포러리 강정 <불법, 횡방전>', 이듬해인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열렸던 '강정해군기지 반대 예술행동 프로젝트 <동행>', 2012년 5월의 <구름비의 노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 이들 전시 혹은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술 영역 안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담론 확산이라는 테제를 확산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특징으로는 거대담론을 넘어 실질적으로 체화된 특정 주제들에 대한 현장예술이 붓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 앞서 든 두 번째의 특징인 다양한 예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 프로젝트성 기획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나의 특징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현장예술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한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서구 미술에서 개념을 중시하는 소위 장소 특정적(site-specific)과는 의미상 다른 좌표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장미술은 80년대 이후 계속되었던 예술가들의 꾸준한 자기성찰과 미술개념의 지평 확산의 결과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추리 현장예술이 그 대표적인 경우며, 용산참사와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예술가들의 발언 형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벽두에 터진 용산참사는 대추리와 강정마을 사태에서 도출된 부조리한 국가권력 남용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도 모순된 사회구조에 대한 예술(가)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고, 예술은 이에 대해 현장예술이라는 대안으로 화답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 현장예술은 미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문학, 음악, 연극, 미술이 섞이고 어울려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탈 장르, 탈 영역의 모범적 사례로 불릴 만하다. 여기에 선배들의 준엄하고 경건한 방식에서 벗어나 재치 섞인 생동감 넘치는 기획으로 호소력을 더했다는 점에서 현장예술은 분명 이전의 거리의 미술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3월 '용산참사 게릴라 기획전 제1부 <망루전亡淚戰>'에는 화가, 사진가, 문인 신 여명이 참여해 시국선언 때 쓴 대형 걸개그림, 희생자를 걸개형식으로 표현한 초상, 현장 목판화, 포스터, 전단, 사진, 다큐멘터리 동영상 등 용산 현장에서 제작되고 쓰였던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개막 당일에는 시민들의 '벽시'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작품'도, '작가'도 아닌 시민들이 떠나 할 것 없이 가져다 놓은 화분에 핀 꽃이었다. 그 붉고 노란 꽃들은 현장의 벽화와 일시적으로 미술관으로 꾸며진 '레아미술관' 등과 어울려 처연하지만 아름다운 예술의 꽃으로 화했다. 시대에 대한 예술의 증언은 평범한 시민과 만나면서 진정한 현장예술로 변모해 가는 법이다. 역시 같은 해 9월의 <85호 크레인-어느 망루의 역사>는 10명의 작가들이 한국 최초로 공공성을 한 여성노동운동가 강주룡과 노동운동의 상징인 골리앗(크레인) 투쟁, 그리고 용산참사를 주제로 새롭게 제작한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사유들을 질문하는 전시였다. 이 전시는 비록 현장예술을 천명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얻은 문제의식을 체화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편 2010년 11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열렸던 '강정해군기지 반대 예술 행동 프로젝트 <동행2>'는 현장미술 프로젝트의 결실로 불릴 만하다. 같은 해 5월 전국민족미술인협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공식화한 것을 시작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강정마을과 구름비 바닷가를 무대로 진행한 현장미술 프로젝트였는데, 강정마을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아마추어 미술가와 다른 지방의 작가들도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폭넓은 연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태도, 전형적인 전시의 틀을 벗어

나 한시적인 프로젝트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향하는 방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화된 특정 주제들에 대한 현장예술과 같은 방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장 중심의 예술활동이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꾸준한 기획으로 정련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제적으로 접근하자면 첫째, 전쟁과 관련하여 평화의 가치를 언급하는 형태,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역사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이끌어내어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는 형태로 일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경우에 속하는 전시가 〈반전·평화-침묵과 발언〉(2003, 부산민주공원 기획전시실), 〈2005 DMZ 평화〉(2005, 의정부 예술의 전당 전시실), 〈전. 쟁. 표. 면.〉: 사진가 4인이 바라본 전쟁의 표면(2007,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PEACE), 〈고양금정굴 인권평화예술제〉(2008, 정발산역 일산문화광장, 고양어울림누리 시청각실), 〈비무장지대〉(2009, 수원 한대우물창작촌), 〈상상공간-DMZ 600리〉(2010, 수원미술전시관), 〈2011 DMZ 평화의 길을 가다〉(2011,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1, 2전시실), 〈DMZ 고성 국제평화·생명축제〉(2012, 고성 DMZ박물관과 화진포 일원), 〈REAL DMZ PROJECT 2012〉(2012, 강원도 철원 일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작가들이 상정하는 전쟁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듯 비무장지대에 대한 언급과 접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속하는 전시로는 〈안녕, 국가보안법〉(2006, 자료전 형식,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PEACE), 〈제주 4·3 60주년 기념 4·3미술제 아카이브전-평화. 동행〉(2008,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PEACE), 한국 베트남 예술교류프로젝트〈평화 위를 걷다-메콩강 여행예술 결과보고전〉(2009,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터), 〈오월의 꽃〉(2010, 광주시립미술관, 쿤스트할레 광주), 제주4·3 64주년 〈제19회 문화예술축전〉(2012, 4·3 평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내 일원) 등을 들 수 있을 테고, 평화 개념에 대한 가치를 발언하는 전시로는 문미희 전〈평화 만들기 프로젝트〉(2007,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PEACE), 〈티베트의 길 위에서 평화를 연다〉(2008,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PEACE), 〈풍경남북-풍경을 넘어 보는 우리 땅〉(2012, 아람미술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인천의 평화,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

인천의 경우 인천민족미술협회의 '황해미술제'를 통하여 꾸준히 평화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전시로는 2003년의 제6회 황해미술제 〈전쟁을 반대한다〉와 2009년의 제12회 황해미술제 〈'억장' 무너지다〉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자본 논리로 인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양상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안의 평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억장' 무너지다〉를 통해서도 용산참사를 초래한 사회·정치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품과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의 확대된 개념을 발언하였다. 여기에



2007년 스페이스 빔에서 열린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학살 영상보고전 <첫 번째 코리아 제노사이드>’는 무법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희생된 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의제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인천민예총과 인천작가회의가 중심이 되어 열고 있는 <월미평화축전> 역시 시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뜻 깊은 이벤트로 보인다.

2011년은 인천과 평화가 본격적으로 의미를 나눈 한 해였다.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천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예술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한 기획이었다. 54명의 시각 분야 작가들과 5명의 문학가가 수차례의 답사를 통해 도출해 낸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는 한 달여 동안 평화도시로서의 인천이라는 지향을 분명히 천명한 전시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천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평화의 당위성을 대중에게 보다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전시들이 가진 한계점은 뚜렷해 보인다. 그 원인 중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전시장과 그 주변에만 머무는 지지부진한 태도에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인천의 예술가들이 모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다른 문제의식으로 타지에서 열린 여러 전시와 프로젝트에 의욕적으로 참여한 자랑스러운 인천의 예술가들은 많다. 다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장예술이 가진 힘과 다양한 표현 활동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한다면 인천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한 기획과 이슈의 현장을 찾아 발언하는 과감한 태도가 수반될 때 인천과 평화는 동등한 의미와 무게를 지닐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예술이 표방하는 주제의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대중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형식은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켜 마침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용과 형식이 순환하는 형태의 미술운동은 결과에 앞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에 무게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과정은 예술의 전부이다.

#### 【최근 10년 국내 평화 관련 주요 전시 현황】

※ 2012년 8월 현재 기준

년도	일자	전시/프로젝트명	장소	주최/기획	내 용
2002	02.10 ~ 02.21	《세계평화 미술제전 2000》	예술의 전당 미술관	세계평화 미술제전 2000 실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아 열리는 최초의 남북 합동전</li> <li>○ 북한 화가 : 정영만, 김성민, 김룡권, 김춘진, 김승희, 정창모, 리창, 선우영, 리경남, 김성호, 김성근, 황병호, 고영근, 최창호, 김동환, 리성근, 리철, 문정웅, 오영성, 전석봉 등 모두 20명</li> <li>○ 남한 화가 : 이대원, 권옥연, 변종하, 서세옥, 김홍수, 이두식, 김창열, 민경갑, 하중현, 황창배, 박광진, 이만익, 이종상, 이숙자, 이월중 등</li> </ul>

2003	04.09 ~ 04.15	〈반전·평화 게릴라엽서전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	관훈 갤러리	문화연대 문화행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29일 거리전시와 참여를 첫 시작으로 6차례의 거리전과 시민들의 참여로 제작수거된 작품들을 전시</li> <li>- 전쟁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준비한 전시</li> <li>-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통하는 기회</li> </ul>
	08.22 ~ 08.28	제6회 항해미술제 - 〈전쟁을 반대한다〉	인천종합 문화예술 회관 대전시실	인천민족 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 '내가 겪은 전쟁, 내가 아는 전쟁', 2부 '내 안의 전쟁, 일상 속의 전쟁', 3부 '평화를 향하여'로 구성되어 진행</li> <li>○ 인천지역 참여작가 : 강광, 김홍희, 앙승수, 이달, 이승, 김재화, 김주호, 장명규, 홍오봉을 비롯 인천민미협 회원 20여명</li> <li>○ 손장섭, 주재환, 신학철, 임옥상, 안성금, 이인철, 최병수, 조습 등 전국에서 20여명의 작가가 초대됨</li> </ul>
	10.07 ~10.20	〈반전·평화- 침묵과 발언〉	부산민주 공원 기획 전시실	부산민족 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종전 50년을 맞이하고 세계가 전쟁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인류의 평화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작품을 통한 미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음</li> <li>○ 참여작가 : 방정아, 이정자, 오현숙, 박경호 등 전국의 초대작가 15명, 부산민미협 소속 작가 15명, 카툰과 영상 부문 초대작가 14명</li> </ul>
2005	09.12 ~ 09.18	〈2005 DMZ 평화〉	의정부 예 술의 전당 전시실	경기북부 작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경기북부 비무장지대 재조망전에 이은 릴레이 DMZ-테마전</li> <li>- 전년도 철원 노동당사 등 연천과 철원지역 민통선 답사에 이어 2005년 6월의 도라산역과 전망대, 땅굴, 전방 1사단 철책선 등을 방문하여 작품 모티브를 얻음</li> </ul>
	11.02 ~ 11.08	〈남북평화통일 미술축전〉	안산 단원 미술관	남북평화통일 미술축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작품 35점, 남측 원로중진 작가 작품 100여점 출품</li> </ul>
2006	09.13 ~ 10.24	〈안녕, 국가보안법〉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평화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책(禁書), 만화, 역사, 피해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한 자료전</li> <li>-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지난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보통 사람들의 삶의 문제임을 발언</li> </ul>

2006	10.17 ~ 10.31	한국+베트남 평화예술 교류 프로젝트 〈평화 위를 걷다, Pace on the Peace -Xin Chao My Darling〉	보충 대리공간 스톤앤 워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행한 과거인 베트남 전쟁의 상흔과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함</li><li>- 전쟁을 지나온 현재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li><li>- 전쟁의 발생과 파급이 국제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영상 설치작품들</li><li>○ 참여작가 : Nguyen Duc Thinh, Ngo Van Luc, Le Quy Anh Hao, Nguyen Dao An Ha, Le Thi Viet Ha, Le Doi, Ly Hoang Ly, Ngo Dinh Truc, Ngo Thi Thuy Duyen, Nguyen The Hoang Nang, Tran Dan, Trong Nghia, Rich Streimatter Tran, Nguyen Pham Trung Hau, Nguyen Thanh Truc, Nguyen Nhu Huy</li></ul>
	05.02 ~ 06.19	〈전. 쟁. 표. 면.〉 : 사진가 4인이 바라본 전쟁의 표면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인의 사진가들이 전쟁과 살육의 아만적 폭력을 환기시켜내기 위해 도처에서 찾아낸 수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진 사진전</li><li>- 4인의 사진가가 폭력의 잔해를 추출해내어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속죄를 향한 발걸음</li><li>○ 참여작가 : 성남훈, 이상엽, 이성은, 노순택</li></ul>
	09.19 ~ 09.22	문미희 전 〈평화 만들기 프로젝트〉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경기문화재단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접경지역 화진 초등학교의 '나의 꿈 이룰 수 있어요!' 라는 교훈을 주제로 설정하여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 메시지를 작업 속에 담아 함께 참여하고, 제작 과정 속에서 평화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작업</li><li>- 단순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전시</li></ul>
2007					
	12.01 ~ 12.0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영상보고전 _ 〈첫 번째 코리안 제노사이드〉	인천 스페이스 빔	책임기획 전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중심으로 민간인학살로 인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채 통탄의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영상기록 프로젝트</li><li>- 이러한 영상기록작업의 결과물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반공체제 속에서 굶기와 강요된 망각의 역사였던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시각영상예술의 공공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li><li>-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촬영된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유해발굴현장 가운데 주요한 영상을 간추려서 전시</li><li>- 전시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와 프로젝트 보고서 발간을 통해 1차 결과물을 정리</li><li>○ 참여작가 : 이대영, 김병희, 김진주</li></ul>

2007	12.12 ~ 12.30	『대추리 현장예술 백서』 출판기념회 및 〈대추리 현장예술 도큐먼트: 들 가운데 서서〉	대안공간 루프	대추리 현장예술 아카이브 추진위원회/ 경가문화재단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추리 현장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행사</li> <li>-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대추리에서 펼쳐졌던 문화예술활동들이 집대성된 자료집 발간</li> <li>-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 계획에 의해 파괴되어버린 예술작품들을 통해 현장 예술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여러 담론들 도출</li> <li>- 935일간의 촛불집회의 장면 하나하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인</li> <li>- 대추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마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예술활동의 결과물들을 모아 대추리 예술활동 도큐먼트 전시를 개최</li> <li>- 대추리 현장예술 아카이브 추진위원회는 수년 동안 함께했던 예술가들의 활동 기록을 모아서 전시를 꾸리고 책을 엮음</li> <li>- 전시장 아카이브관은 대추리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예술활동을 연대기적으로 구성. 더불어 대추리 현장예술 관련하여 출판된 책들과 포스터 및 리플렛, 기념품 자료 등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면면을 소개함</li> </ul>
2008	01.15 ~ 01.23	박영균 전 〈빨강풍경과 노랑풍경을 자나〉	광주 신세계 갤러리	박영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추리에서의 현장예술 경험을 바탕으로 대추리를 풍경과 기억으로 되살림</li> <li>- 빨강 풍경과 노랑 풍경은 시각예술의 창으로 걸려낸 풍경과 기억</li> <li>- 시각언어를 관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li> </ul>
	06.20 ~ 07.15	〈제주 4.3 60주년 기념 4.3미술제 아카이브전- 평화, 동행〉	평화 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탐라미술인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동안의 활동자료들인 전시포스터와 아트포스터를 비롯한 10주년 자료집</li> <li>- 사진 및 영상다큐자료, 영상작품 등 60여 점이 선보임</li> </ul>
	08.01 ~ 08.18	〈티베트의 길 위에서 평화를 연다〉	평화박물관 티베트평화연대, 평화공간 평화박물관, 티 SPACE* 벤티하우스코리아 PEACE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3월 10일 있었던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문화와 전통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기점으로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인권을 촉구하는 전시</li> <li>○ 참여작가 : 강지현, 김태완, 김은애, 김기호, 김영아, 김형태, 김용재, 김씨이야기 기획팀, 김종도, 고미정, 공영석, 나규환, 박진희, 박경호, 방정아, 배인석, 성낙중, 성효숙, 신나무, 유미선, 유양욱, 윤석남, 이이화, 이윤엽, 이재익, 이석금, 이만수, 안상규, 안만욱, 안병남, 오현숙, 정윤희, 전진경, 전미영, 전기학, 진성숙, 천호석, 티베트의 친구들, 윤후명, 하성봉, 허영숙, 이인, 함성호, 임종기, 김두안, 김완수</li> </ul>
	09.25 ~ 09.27	〈제58주기 고양금정굴 인권평화예술제〉	정발산역 일산문화 광장, 고양 어울림 누리 시청각실	제58주기 고양금정굴 학살 희생자 및 고양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제전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평화영화제 야외/실내 상영, 고양금정굴 평화공원 기원 사진전, 인권평화전, 합동위령제, 제58주기 고양금정굴 인권평화영화제</li> </ul>

2008	12.18 ~ 2009.01.21	〈굿바이, 부시-이명복 초대전〉	평화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으로 시작해서 공황으로 끝난 부시의 사대를 화폭에 담아 통렬하게 고집음. 이명복의 부시 그림은 부시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뒤늦게 그린 것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온 작업</li> <li>- "이명복의 부시 그림만큼 위대한 오만의 제국 미국을 이끄는 함라미달의 대통령 부시를 통렬하게 아우하면서도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는 작품을 찾아보는 쉽지 않다."</li> </ul>
	01.14 ~ 01.21	한국 베트남 예술교류프로젝트 〈평화 위를 걷다-메콩강 여행예술 결과보고전〉	보충 대리공간 스톤 엔워드	책임기획 박찬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한국작가 6명과 베트남작가 6명이 4박5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부터 메콩강을 따라 캄보디아 국경까지 이동하는 '메콩강 프로젝트'를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선보임</li> <li>- 우리에게 친숙한 베트남 쌀국수를 비롯해 베트남 차(茶), 베트남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비디오, 회화, 설치미술로 표현</li> <li>○ 참여작가 : 이정숙, 이호석, 임흥순, 정정엽, 백기영, 박찬응, 협동조합(유승덕, 이민) 등 한국작가들과 판광, 누회이 등 베트남작가</li> </ul>
2009	03.11 ~ 03.31	용산참사 계일라 기획전 제1부 〈망루전亡淚戰〉	평화 박물관 평화공간 SPACE* PEACE	평화공간 space* peace. 용산참사와 함께하는 예술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는 용산참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 전시</li> <li>○ 참여 예술인 : 전미영, 김천일, 김기호, 노순택, 손세실리아, 백무산 등 화가, 사진가, 문인 신여명. 문화예술인 사국선언 때 쓴 대형 걸개그림, 희생자를 걸개형식으로 표현한 초상, 현장 목판화, 포스터, 전단, 사진, 다큐멘터리 동영상 등. 개막일은 사인들의 '백서퍼포먼스'가 펼쳐짐</li> <li>- 유족을 위한 '기금미련 작품전'도 함께 개막</li> <li>○ 출품작가 : 주재환, 윤석남, 임옥상, 김기호, 생낙중, 정정엽, 정세학, 전진경, 이윤엽, 류종렬, 박흥순, 박진화, 이민, 김성래, 강성봉, 김동철, 김윤기, 두시영, 박건, 박아일, 박영균, 박은태, 방정아, 이명복, 구본주, 박충의, 류연복, 김종도, 이종구, 임국</li> </ul>
	07.24 ~ 07.30	제12회 황해미술제 〈'억장'무너지다〉	인천종합 문화예술 회관 전시실	인천민족 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진행형으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을 통해 자본의 폭력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사회문화적 사선으로 질문함으로써 예술의 심층적인 의미를 모색함</li> <li>- 우리 삶의 구조가 '자본폭력'에 의해 어떻게 계급화, 주변화, 빈곤의 재생산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li> <li>○ 참여작가 : 박아일, 김영경, 김태진, 정정엽, 박은태, 김천일, 김미혜, 아트레이더, 조진형 외 10여명</li> </ul>
	09.10 ~ 10.17	〈85호 크레인 - 어느 망루의 역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평화공간 space* peace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평화공간 space* pe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명의 작가들은 한국 최초의 공공농성을 한 여성노동운동가 강주홍과 노동운동의 상징인 골리앗(크레인) 투쟁, 그리고 용산참사를 다룬 그날의 남일당을 주제로 새롭게 제작한 조각, 회화, 영상, 사진, 설치 작품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사유들을 질문함</li> <li>○ 참여작가 : 강동형, 곽은숙, 권기진, 고승욱, 노순택, 배인석, 윤석남, 임흥순, 최병수, 최원준</li> </ul>

11.07 ~ 11.30	〈비무장지대〉	수원 한대우물 창작촌 (수원 화성 행궁터 인근)	(사)민족미술인협 회성남지부· (사)생태지평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명의 기적을 보여준 비무장지대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들의 상상력을 끌어내기 위해 약 20여명의 미술인들과 비무장지대를 직접 탐방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생태계 보전과 개발에 대한 고민들,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작품활동으로 이어감</li> <li>○ 참여작가 : 권혜진, 김선희, 김성수, 김태현, 나종희, 남동호, 박진영, 박해빈, 송창, 송호은, 위종만, 이영, 이상홍, 이병철, 이은상, 이현주, 전지인, 홍황기</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위령제, 애니메이션 상영회,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품 특별전, 어린이 평화 책 순회 전시회</li> <li>- 시각매체 예술인 공동프로젝트 〈Imaging for peace〉 : 한국전쟁 시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해원상생 평화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을 다양한 이미지와 오브제 설치작업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워크숍 형식의 공동 프로젝트</li> <li>○ 참여작가 : 김미선, 김병희, 문동호, 박건웅, 박영균, 박은태, 배성민, 서진화, 윤희숙, 이대영, 이석연, 이재환, 전미화, 전승일, 최선영 외</li> </ul>
09.16 ~ 09.30	〈2009 눈빛 평화예술제-평화를 품다〉	고양 어울림 미술관	제59주기 고양지역 민간인하살 희생자 합동위령 제전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작가 50명</li> <li>- 서해에서 동해까지 600여리 답사, 다양한 내용의 워크숍</li> <li>-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25사단 GOP와 석장리 DMZ 미술관 민통선(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일대에서 연천군, 육군7296부대, 국내외 작가회의 이름으로 '제13회 DMZ 민통선 예술제(DMZ Art Festival)'의 일환</li> <li>- 민통선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활동(조각, 깃발전, 설치 미술 등의 프로그램과 주제공연</li> <li>- 10개국 이상의 작가들이 참가해 국제교류전도 개최</li> </ul>
09.14 ~ 09.20	〈상상공간-DMZ 600리〉	수원 미술 전시관	(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은유적인 기법으로 재해석된 색다른 5·18 관련 전시</li> <li>○ 참여작가 :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이탈리아), 주세페 스타포네( ), 토니 아우슬러(미국), 알프레도 자(칠레), 강성욱, 김주연, 백남준, 변종근, 이경호, 이불, 이아남, 허달웅</li> </ul>
2010				
05.12 ~ 06.13	〈오월의 꽃〉	광주시립 미술관, 쿤스트 할레 광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재단 공동주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작가 : 김기호, 김서경, 김중도, 김재석, 김천일, 나규환, 박건웅, 박영균, 박은태, 박홍식, 서수경, 성호숙, 송효섭, 안만욱, 이두표, 이안수, 이윤영, 이원식, 이인철, 이재환, 이철재, 전미경, 전승일, 전진경, 천호석, 최선영 외</li> </ul>
10.01 ~ 10.10	〈2010 눈빛평화예술제-평화를 상상해요〉	고양아람 누리 이벤트홀	제60주기 고양지역 민간인하살 희생자 합동위령제전 추진위원회	

2010	10.13	알파 뉴베리 (Alpha Newberry), 〈강정주민과 함께 보낸 어느 여름〉	제주 아트 스페이스C	알파 뉴베리 (Alpha Newbe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미국)의 눈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기록</li> <li>- 제주 강정마을 관련 보도사진 슬라이드쇼</li> </ul>
	11.10 ~ 11.27	컨템포러리 강정 〈불법, 횡방전〉	부천시 대안공간 아트 포럼 리	아트포럼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1월로 제주해군기지반대 투쟁이 만 4년 6개월을 맞이함</li> <li>- 이 기간 동안 절대보전지역 해제, 사전모의된 마을 총회, 주민을 무시한 행정적 폭력은 생태계파괴와 공동체 파괴로 이어짐</li> <li>- 근대적인 개발논리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해안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구름비 바위를 비롯해 해안 전체가 콘크리트로 매립됨</li> <li>- 제주에 거주하거나 육지에서 활동 중인 작가 12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마을을 서로 다른 표현방식으로 들여다보고 드러내고 치유하고자 한 기획</li> <li>- 전시오픈 당일 작가와의 대화시간, 제주강정마을과 이원생방송 진행</li> <li>o 참여작가 : 노순택, 오인덕, 전진경, 부천무한도전학교, 고경화, 홍진숙, 최선경, 이승민, 김혜진, 최성희, 홍보람, 동글이, Jam Docu 강정 프로젝트 팀</li> </ul>
	11.21 ~ 11.30	〈엄마야 누나야 강정 실자〉	강정마을 중덕해안, 올레길	탐라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과 올레꾼이 지나는 강정마을의 중덕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진 '현장미술전'</li> <li>- 제주올레 7코스 올레길에 설치, 회화, 조각, 낙서화(그래피티) 등 11점의 작품 설치</li> <li>- 비닐하우스 창고의 벽을 캔버스로 활용, 바닷가 암석을 무대로 사용해 현장미술의 특징을 살림</li> <li>-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해 주민은 물론 올레꾼들에게도 평화의 염원을 보여줌</li> <li>o 참여작가 : 고경화, 고길천, 고민석, 고원중, 김영훈, 송맹석, 양미경, 오석훈, 정용성, 탐라미술인협회회원</li> </ul>
2011	06.01 ~ 11.30	강정해군기지 반대 예술행동 프로젝트 〈동행〉	제주도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중덕해안	강정마을회, 탐라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정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 소개 및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답사할 기회 제공</li> <li>- 올레 제7코스(4·3유적지인 영남마을-백조일순지묘-선알오름) 직접 답사 안내 및 해설 제공</li> <li>- 작품을 위한 출판 및 전시 : 2011년 11월, 6개월간 제작된 모든 작품들을 보고서 형식의 타블로이드 출판. 평면작품은 의례회관과 중덕해안에서 한 달 동안 전시</li> <li>o 참여작가 : 전국 민예총 및 그 외 모든 예술인</li> </ul>
	06.16 ~ 06.22	〈붉은발발동계와 그 친구들의 평화를 위해!〉	제주 아트 스페이스C	제주 아트 스페이스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정마을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전</li> <li>- 박재동, 허영선 시인 등 총 36명의 작가 시, 그림, 사진, 도자기 등 80여 편의 작품</li> <li>- "강제이주의 위협에 내몰린 붉은발발동계 자신과, 몰살의 위협에 처한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풀 한 포기까지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는 의도"</li> </ul>

	07.22 ~ 08.28	제1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 플랫폼 및 한국근대 문학관 예정지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3월~6월까지 강화도, 연평도, 백령도, 교동도 등에 대한 답사를 바탕으로 인천의 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li> <li>○ 참여작가(시각) : 강혁, 고찬규, 공성훈, 김광성, 김성호, 김영옥, 김재화, 김종오, 김주호, 김지원, 김태은, 김태준, 김현철, 김형기, 도로서 디온, 도지성, 류성환, 박인우, 박진화, 박종익, 박홍순, 배진호, 서용선, 성효숙, 성필용, 쏜광화, 여운, 오석근, 유지환, 윤석남, 이명복, 이부록&amp;이지미, 이세현, 이윤백, 이윤엽, 이이남, 이인, 이종구, 이탈, 정정엽, 정평한, 조습, 조우치, 차기울, 최병국, 최정숙, 타케시 모로, 하성흠, 하원석, 허용철, 허원주에, 홍선웅, 홍지윤</li> <li>○ 참여작가(문학) : 강재윤, 김창수, 이세기, 최원식, 오시은</li> </ul>
	09.23 ~ 09.24	〈2011 월미평화축제〉	부평아트 하우스, 부평공원,	인천민예총 인천작가회의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와 관련된 포럼과 콘서트, 행진, 전시 등으로 이뤄짐</li> <li>-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으로 제기된 서해 긴장과 부평 미군기지 유독성 폐기물 처리 의혹 등으로 인한 반 평화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 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li> </ul>
2011	10.02	〈2011 눈빛평화예술제- 평화의 울림을 전하리라〉	일산문화 광장	2011 눈빛평화 예술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인권전시회(〈코리안 제노사이드〉) 사진전, 평화시화전, 평화인권통일 청소년 사생대회, 평화인권통일 도전 골든벨, 시와 영상의 평화음악회 등으로 구성</li> </ul>
	09.28 ~ 10.09	〈2011 DMZ 평화의 길을 가다〉	고양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 1, 2전시실	경기민족 미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통제구역 답사를 통해 평화가 절실한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li> </ul>
	11.20 ~ 11.30	강정해군기지반대 예술행동 프로젝트 〈동행2〉	제주도 강정마을 화관	강정마을회, 탐라미술인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전국민족미술인협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를 공식화한 것을 시작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강정마을과 구름비 바닷가를 무대로 진행한 현장미술 프로젝트의 결실</li> <li>- 강정마을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아마추어 미술가와 다른 지방의 작가들도 참여</li> <li>-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폭넓은 연대를 보여주는 전시</li> <li>○ 참여작가 : 강재욱, 고권일, 고경화, 노순택, 송동효, 양동규, 일파 뉴베리(미국), 에밀리 왕(대만), 임윤수, 사진집단 〈현장〉, 최성희, 홍보람, 홍원석, 홍진숙</li> </ul>
	2011. 12.25 ~ 2012. 03.24	〈DMZ 시범 레지던시 프 로그램〉	백학면 석장리 미술관 내	경희대학교 현대 미술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 민통선 내에 '인류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li> <li>- 지역주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계프로그램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철책선 걷기, 연천역, 호로고루 등의 현장을 탐방하는 안보체험도 함께 진행</li> </ul>



12.21 ~ 12.22	〈제2회 평화군축 박람회-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국회 의원화관 중앙로비	시민단체 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22일~23일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시되었던 평화 이슈 패넬들을 전시한 자료전</li> <li>- 다른 사람들의 분쟁과 고통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 즉 무기판매를 통해 세계 7위를 달성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윤리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에서</li> <li>- 다양한 생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즐기면서 정부가 말하는, 전문가가 말하는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안전'에 대해 '지금' 이야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제주섬 미어지뽕뒤, 나비로 바람으로'</li> <li>- '미어지뽕뒤'는 제주큰굿에 등장하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위치한 연옥을 의미</li> <li>- 여전히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4.3에 대한 이념공세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경 해군기지 문제가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미어지뽕뒤'라는 것. 올해는 4.3평화공원과 강정마을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4.3의 정신을 이야기함</li> <li>- 4.3미술제=식구(食口)라는 주제로 강요배, 강문석, 강태봉, 박경훈, 박소연, 고원중, 고깃런, 고민석, 고혁진, 송맹석, 오윤선, 양미경, 정용성, 현경화 등이 참여, 4.3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 고민한 흔적이 녹아든 작업물을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제주섬 미어지뽕뒤, 나비로 바람으로'</li> <li>- '미어지뽕뒤'는 제주큰굿에 등장하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위치한 연옥을 의미</li> <li>- 여전히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4.3에 대한 이념공세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경 해군기지 문제가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미어지뽕뒤'라는 것. 올해는 4.3평화공원과 강정마을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4.3의 정신을 이야기함</li> <li>- 4.3미술제=식구(食口)라는 주제로 강요배, 강문석, 강태봉, 박경훈, 박소연, 고원중, 고깃런, 고민석, 고혁진, 송맹석, 오윤선, 양미경, 정용성, 현경화 등이 참여, 4.3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 고민한 흔적이 녹아든 작업물을 전시</li> </ul>
03.30 ~ 04.30	제주 4.3 64주년 〈제19회문화예술축전〉	4.3평화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내 일원	제주도 주최, (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제주섬 미어지뽕뒤, 나비로 바람으로'</li> <li>- '미어지뽕뒤'는 제주큰굿에 등장하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위치한 연옥을 의미</li> <li>- 여전히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4.3에 대한 이념공세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경 해군기지 문제가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미어지뽕뒤'라는 것. 올해는 4.3평화공원과 강정마을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4.3의 정신을 이야기함</li> <li>- 4.3미술제=식구(食口)라는 주제로 강요배, 강문석, 강태봉, 박경훈, 박소연, 고원중, 고깃런, 고민석, 고혁진, 송맹석, 오윤선, 양미경, 정용성, 현경화 등이 참여, 4.3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 고민한 흔적이 녹아든 작업물을 전시</li> </ul>
2012				
04.15 ~ 04.30	수연 트로츠키 김의 사진전 〈구럼비-나는 궁극의 공상 주의자〉	서울 명륜동 갤러리 카페 포토텔링	수연 트로츠키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의 후손으로 알려진 러시아 동포 수연 트로츠키 김</li> <li>- 작가가 엄마의 고향 제주에 왔다가 구럼비와 주변 마을 풍경 등을 본 뒤 찍은 사진 11점 전시</li> </ul>
04.27 ~ 05.25	홍보람 개인전, 〈불고 푸른 당신과 나 사이-제주 강정〉	서울 건지동 평화박물관 스페이스 99	홍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구럼비 바위를 두드려 얻어낸 4m 크기의 대형 탁본 〈자연과 함께 그림〉 3점과 석고작품 등을 전시한다. 강정마을 주민 80명이 그린 마을지도와 기록을 담은 설치작품 〈마음의 지도〉 등</li> </ul>
05.20	〈DMZ 고성 국제평화· 생명축제〉	고성 DMZ 박물관과 화진포 일원	강원도, 고성군, (재)한국방문의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외국인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li> <li>- 전쟁 중에 사용했던 총, 탄피 등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정크아트전에는 '평화, 환경 그리고 설치미술'이라는 주제로 국내 8명과 해외 5명 등 모두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0점의 작품을 선보임</li> <li>- 소망 말풍선 달기, 추억을 담아주는 사진판, 핸드프린팅, 조개껍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DMZ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li> </ul>
05.09 ~ 05.20	〈간디·킹·이케다- 평화건설의 유산〉	부경대 동원장 보고관 특별 전시실	미국 모어하우스대 킹 국제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과 역사 자료를 통해 '깊은 인류애, 비폭력, 운명 개척, 원칙을 행동으로, 역경과 저항' 등 5가지 주제로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비폭력을 통해 평화 건설에 헌신해 온 세 인물의 삶을 소개한 자료전</li> </ul>

2012	05.12 ~ 05.20	〈구럼비의 노래〉	서울 통의동 전시공간 류가현	류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작가 : 노순택, 박홍순, 한금선, 류우중</li> <li>〈한겨레〉 사진기자, 시사만화가 손문상, 이명익 〈노동과 세계〉 기자, 영화감독 정우철</li> </ul>
	05.12 ~ 05.20	〈구럼비의 노래〉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민홍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과 북한, 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관념 속에서는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분단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li> <li>- "이번 전시는 결국 이런 이중적인 현실인식이 미술작품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볼게 될 것"</li> <li>- 〈그곳에 집이 있었을까〉(휴고 크뤼젤프) : 비무장지대(DMZ)를 형상화한 작품</li> </ul>
	06.13 ~ 07.22	〈풍경남북 - 풍경을 넘어 보는 우리땅〉	이람 미술관	고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박정렬, 서용선, 손장섭, 황재형 북한의 정참모, 선우영 등 남북 조선화의 대가 6인</li> <li>- 지난 2009년과 2010년 작고한 북한 정창모와 선우영의 모든 작품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li> </ul>
	07.28 ~ 09.16	〈REAL DMZ PROJECT 2012〉	강원도 철원 일대 (철의삼각 전적지, 제2땅굴, 평화 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	철원군청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작품: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15여점</li> <li>- '철원 안보관광'의 코스를 따라 진행</li> <li>- 2012년 작가들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3년 이후 DMZ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비무장지대로서 DMZ를 새롭게 제안하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들로 장기간 이어갈 계획</li> <li>○ 참여작가 : 총 10명 - 이망딘 페노 Amandine FAYNOT, 디록 플라이쉬만 Dirk FLEISCHMANN, 황세준 HWANG Sejun, 김량 Lyang KIM, 김실비 Sylbee KIM, 이주영 Jooyoung LEE, 프랑소와 마자브로 François MAZABRAUD, 사이몬 몰리 Simon MORLEY, 노순택 Sunitag NOH, 니콜라스 펠처 Nicolas PELZER</li> </ul>



백령도는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4km떨어진 서해 최북단의 섬이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넓이는 46.28km<sup>2</sup>로 국내에서 14번째로 큰 'ㄷ'자 형의 섬이었으나 1960년대 화동과 사곶 사이를 막는 간척지 매립으로 약 100만평이 불어나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 되었다. 진촌지구 말등패총, 용기포지구 용기패총 등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 등이 발견되어 3,000여 년 전 신석기시대부터 백령도에서는 어업과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이후 한반도와 중국대륙 사이의 항로 중간 기착지이자 물과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물자가 풍부한 섬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현재에는 인구 5,000여명이 거주하며 어업과 농업과 함께 아름다운 천연자원으로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다.

백령도가 서해상의 '먼 섬'에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서이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승조원들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점차 국제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결국 이 사건은 국제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2010년 5월 20일 5개국의 합동조사에 의해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게 되었다.

본 답사에는 예술가와 관계자 외에도 시민참여단 6인을 포함하여 총 52명이 참여 하였으며 6월 21, 22일 양일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백령도와 대청도 두 개의 섬을 답사하는 일정이었으나 출발 당일 인천 앞바다의 기상악화로 6시간 동안 출항이 연기 되어 백령도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연평도 포격현장에서 수 개월간 취재하였던 이상엽 작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야간으로 계획되었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상엽 작가는 연평도 외에도 세계의 오지와 민통선에 관한 취재를 오랫동안 해온 터라 연평도 포격현장의 증언과 서해에 얽혀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령도는 지리적 여건상 북한과 남한,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엮여 있지만 모두 군사적 요충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훨씬 더 많은 민간인이 왕래하고 거주하면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사지역에서 민간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긴장상황에서 평화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천안함사건과 같은 군사적인 사건들 말고 백령도의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물론 평화미술프로젝트와 같은 예술프로그램도 그러한 방식의 일환이며 심청이의 애절한 이야기와 평화로운 물범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일도 다 같이 소중한 일이다.

진지한 워크숍과 점심식사를 마치고서야 겨우 안개가 걷히는 듯하여 백령도로 출발 할 수 있게 되었다. 무려 5시간 동안 회고 차가운 안개 속을 향해 하고 난 뒤에 안개 가운데에서 대청도와 백령도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의 감동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랜 세월 접근이 쉽지 않았던 덕에 백령도의 풍광은 천연의 모습 그대로이다.

온갖 새들과 물범들의 평화로운 섬 백령도는 오직 인간들에게만 위협적인 듯하여 몹시 씁쓸하다. 기암괴석이 신비롭게 펼쳐진 명승 제 8호인 두무진 포구를 시작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콩알같은 돌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신기한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콩돌해안,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인 중화동교회, 단단하고 광활한 모래해변이 천연비행장을 이루고 있는 사곶 해안까지 차례로 걷고 바람을 느끼고 새들과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이미 예술가들은 가슴으로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 참여작가 Artists

강현욱	KANG Hyunwook
공성훈	KONG Sunghun
권윤희	KWON Yuni
김 불	KIM Bom
김주호	KIM Joocho
김창기	KIM Changghi
김현철	KIM Hyunchul
민재영	MIN Jaeyoung
박야일	BARK Yail
박충의	PARK Chungueui
선 무	SUN Mu
송필용	SONG Philyong
윌 볼튼	Wil BOLTON
윤석남	YUN Suknam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이지현	LEE Jihyun
정정엽	JUNG Jungyeob
조우치	ZHOU Qi
짜까뽀 탄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최병국	CHOI Byungkuk
최정숙	CHOI Jungsook
홍지윤	HONG Jiyoon

## 강현욱 KANG Hyunwook

---

### 학력

국립 현대 예술 스튜디오 프레누아 졸업  
리모주 국립 고등 미술 학교 학사 석사  
목원대 서양화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이응노 미술관, 대전  
2011 릴 에스파스 까레, 릴, 프랑스  
2011 생티띠엔느 대전교류, 프랑스  
HE MUSEUM 미술관, 심양, 중국  
2010 약한 것들과 언어의 불안한 혼합,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2010 앙글레뱅미술관 봄의 향기, 파리  
2009 국립스튜디오 프레누아 파노라마 11, 투르팡, 프랑스  
외 다수





제국의 미사일 \_ 100X200X200\_혼합재료\_2012

## 공성훈 GONG Sunghun

---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산업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0 겨울여행, 신세계 갤러리, 서울  
2009 공성훈 초대전, 아리랑 갤러리, 부산  
2009 겨울풍경,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1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미지의 수사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젊은 모색 1981-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Made in Popland,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남도문화의 보고 : 지리산, 신세계갤러리, 광주&부산  
My Way, My Works, 빛 갤러리, 서울  
Blue Dot Asia 2009, 예술의 전당,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OC!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미술은행, 박수근미술관





흰머리\_150X120\_캔버스에 유화\_2012



그 시에 대한 연금술\_15분\_장소 특정적 인터랙티브 설치\_2012

## 권윤희 KWON Yuni

### 학력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교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 USA  
디지털 미디어 (Digital + Media Dept.) 대학원, 졸업 (M.F.A)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입체미술과 졸업(B.F.A), 서울, 한국

### 수상

2011 부산비엔날레 바다 미술제 입선, 부산, 한국  
2009 ISEA2009,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Art  
15회 국제 일렉트로닉 아트 심포지엄, 최종 후보작(Short-list), 영국  
외 다수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1 Streaming Festival 6thEdition, Het Nutshuis,  
헤이그, 네덜란드  
2011 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조선, 코엑스, 서울, 한국  
2011 버퍼링,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2011 2011/2012 F/W 서울패션위크 the studio K, Kring,  
서울, 한국  
2010 백색소음: White Noise: Video Night  
Strange Air in the Night, 낭시, 프랑스  
2010 빛, 굴절된 자연, 갤러리 조선, 서울, 한국  
2009 깊은 표면, 갤러리 조선 서울, 한국  
외 다수

### 기타(작품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모스부호\_컨셉 스케치\_싱글채널 비디오\_2012



평화에 대한 환영\_싱글채널 비디오\_2012





섬\_80.3×100\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김 봄 KIM Bom

### 학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졸업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Walking to the l'll, CEAAC, France  
 2010 Landscape Map, 기양갤러리, 부산  
 2009 원도우 갤러리, 갤러리 현대,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Knocking, 카이스갤러리, 홍콩  
 Montage, 기양갤러리, 서울  
 산수너머, 경기도미술관, 경기  
 Be-Sides, 비원갤러리, 서울  
 2011 Translated,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화의 재발견, 성남아트센터, 경기  
 Open studio, 고양창작스튜디오, 경기  
 The Languages of Landscapes, ING은행, 서울  
 제1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0 궁, 그림으로 걷다, 마음갤러리,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10 제10회 송은미술대상전 선정작가, 송은문화재단  
 2009 제3차 퍼블릭아트 선정 작가 12인, 월간 퍼블릭아트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1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  
 CEAAC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 교환 레지던시 참여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하나은행,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백령도1\_53X41\_캔버스에아크릴릭\_2012



백령도2\_53×41\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김주호 KIM Jooho

---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사람사이, 관훈갤러리, 나무화랑  
2010 생생풍경, 갤러리 가회동 60  
2009 삶의 돋보기, 나무화랑  
2007 흐릿한 풍경, 갤러리 우덕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서촌, 명숙에서 만나다, 아트사이드, 서울  
인천, 조각을 말하다, 가온갤러리, 인천  
2011 생활의 발견, 부평아트센터, 인천  
가만히 들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Happy together, 롯데갤러리, 영등포  
나무 조각전, 경북대학교 미술관  
Korean Art Today, 한국문화원, 시드니, 호주  
빌라다르와 예술가들, 토포하우스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우리들 사는 이야기, 롯데갤러리, 대전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화동인전, 청아갤러리  
서울조각회 30주년 기념전, 서울아트센터  
2009 牛步萬理, 신세계갤러리  
Love is rainbow, 롯데갤러리  
해치 퍼레이드, 서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9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모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  
김포국제조각공원, 직지문화공원(김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궁합이 맞는\_164×45×173\_혼합재료\_2012





세발자전거\_가변설치\_혼합재료\_2012

## 김창기 KIM Changghi

### 학력

인천 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 아카데미 졸업

2010 사람과 사람전, 동인천학생문화회관, 인천  
2009 환경미협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9 인천조형작가협회전, 부평민속박물관, 인천  
외 다수

### 주요 개인전

2011 한평갤러리, 인천  
2011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10 부평아트센터, 인천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설치  
까라라시 소장(이탈리아), 이탈리아 대사관(이탈리아),  
몽브리송시 소장(프랑스), 홈플러스(인천), 한일아파트(구리시),  
문화건설(인천), 삼성아파트(화성), 대주아파트(부천),  
대우아파트(서울), 흥성신동아파밀리에(홍성),  
인천여고100주년기념탑(인천), 서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천),  
남양주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경기도, 남양주),  
홍성 고암리 신동아 파밀리에(충남, 홍성),  
인천비즈니스센터(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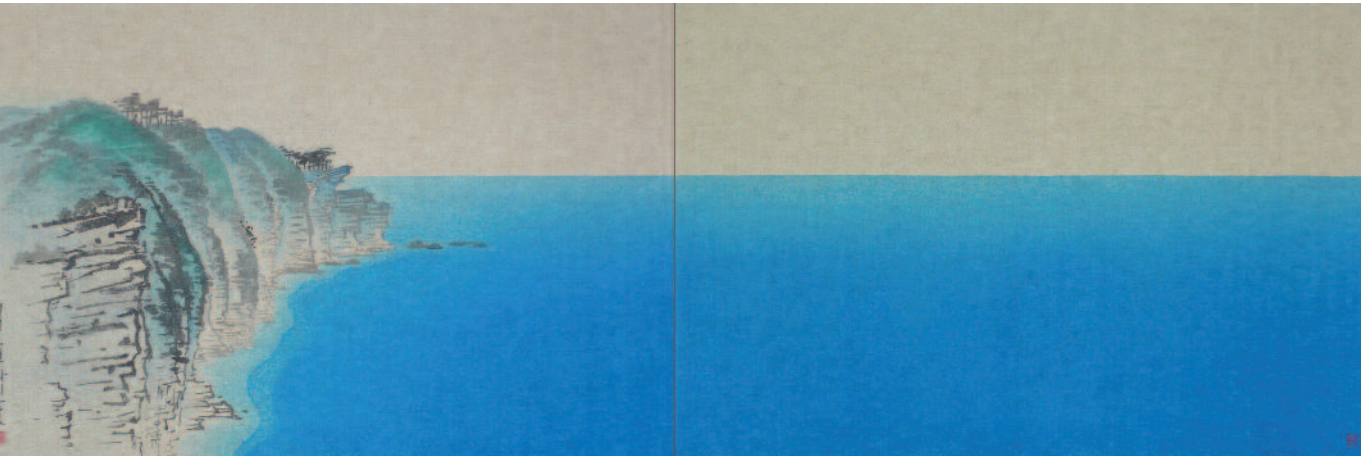
### 주요 단체전

2012 인천 조각을 말하다, 인천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대한민국 현대미술 백인 백색전, 서울시립미술관경희궁별관, 서울  
2011 인천한마당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11 전업작가 협회전, 인천학생문화회관, 인천  
2011 환경미술협회 반딧불이 마을전, 인천미추홀도서관, 인천  
2011 회화재 환경미술협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10 마르테로조각회 창립전 까라라 조각의 즐거운 여행,  
서울 에퀴드나인 갤러리, 서울





호르다\_75×95×140\_혼합재료\_2012



## 김현철 KIM Hyunchul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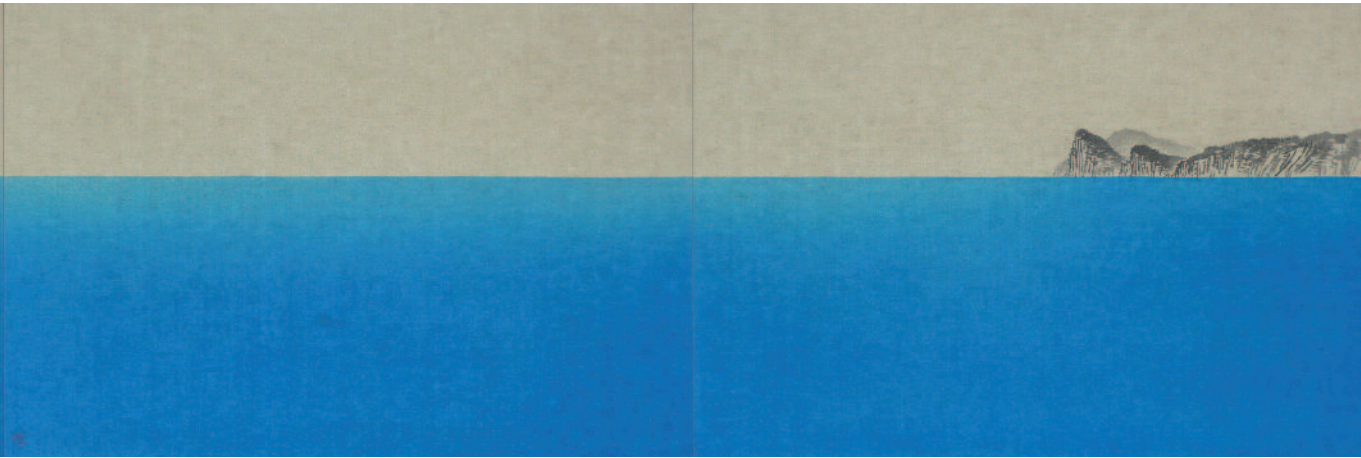
2012 섬 - 제주, 갤러리라운, 제주  
제주에서의 120일, 한벽원갤러리, 서울  
2011 섬김, 갤러리노리, 제주  
2010 초상-그 전신의 세계(2),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09 산,수,풍,경-그리지 않은 그림, 공갤러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한라산과 일출봉,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1 한. 중 작가교류전, 서안미술관, 중국  
시대의 거울 '초상', 북촌미술관, 서울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차경借景borrowed scenery-김현철, 이철진 2인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경재화혼전, 경재정선기념관, 서울  
화산도, JeJu Island, 신주큐 한국문화원, 일본  
2009 화산도, JeJu Island,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09동양화 새 천년, 예술의 전당,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일중기념사업회, 제주현대미술관, 인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남북출입국사무소



백령도 연화리\_60.5×365\_아사천에 수묵채색\_2012

## 민재영 MIN Jaeyoung

---

###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수료

### 주요 개인전

2011 The Road Home (갤러리 가회동 60,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기금지원)  
2010 적응適應 (노암갤러리, SeMa2010 전시지원프로그램)  
2009 PARADE (갤러리 썬지,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표현활동기금지원)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나, 화가, 아트포럼뉴게이트 신축재개관 초대전, 서울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제4회 ART ROAD 77아트페어 With Art, With Artist!, 갤러리 터치아트, 파주시 헤이리  
2012 존재의 흔적 The Trace of Being, 갤러리 그림손 기획, 서울  
2011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2010 한국화 판타지 - 한국화의 감각적 재해석,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2010 Image In Dialog - 드로잉, 순간을 가져오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실/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전시실 갤러리 미, 東京, 日本  
2009 한·중 수목화교류전 - 文·人·化, 의재미술관, 광주  
2009 대한민국예술대장정-박수근마을에서 이중섭거리까지, 박수근미술관, 양구  
2009 동양화새천년기획 X-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전당, 서울  
2009 민재영·변웅필·이강원 3인전, 난지창작스튜디오 3기 릴레이전시-난지갤러리, 서울  
외 다수

### 기타 (작품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선정 및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0 서울시립미술관 SeMa 작가전시지원프로그램 선정  
2010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기금지원 선정  
2009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표현활동 지원기금 선정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아트뱅크, 2005/2010), 포스코 미술관(2006), 경기도 미술관(2006), 서울시립미술관(2010)





백령도20120622\_105×180\_한지에 수묵\_2012



컴백홀2\_89.4×145.5\_캔버스에 유화\_2012

## 박야일 BARK Yail

### 주요 개인전

2008 너머, 갤러리 눈  
외 개인전 4회

### 주요 단체전

201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1000일 기념전, 갤러리 아트가  
아시아의 쌀, 전주  
한국 몽골 국제미술교류전, 몽골  
이 시대 리얼리즘전-지워지는 미래, 서울미술관 경희궁분관  
소녀의 꿈, 갤러리 풀  
2010 조국의 산하전, 헤이리 마음등불  
통일미술전, 국회의원 회관  
2009 원더풀 픽처스, 일민미술관  
블루닷아시아, 예술의전당  
황해미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외 다수





컴백홈1\_80.3×116.3\_캔버스에 유화\_2012



요람\_53×136.5\_캔버스에 드로잉\_2012

## 박충의 PARK Chungueui

### 학력

인하대 미술교육과 졸업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와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꽃으로 피어나다, 갤러리바이올렛 기획 초대,  
서울 / 해시, 인천  
2007 소-사라진길,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돌에 새긴 사람들과 나무, 갤러리더스페이스 초대,  
서울 / 해시, 인천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1 황해미술제\_친애하는 동식물에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바다 화해의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우리시대 리얼리즘\_지워지는 미래, 서울시립미술관  
물길 바람길, 강화도 광성보, 오두리돈대 주변  
2010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물길 바람길, 강화 국화리저수지  
인천의 몸, 부평아트센터, 인천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레지던시  
2012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초대 입주작가





불멸의 장벽\_162×244\_한지에 드로잉\_2012



어리골\_82×244\_한지에 드로잉\_2012

## 선무 SUN Mu

---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선무

### 주요 개인전

2011 선을 넘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실, 서울  
2011 mind the gap, 맨하탄 sbd갤러리, 뉴욕  
2010 이듬 갤러리, 부산  
2010 불러오다, 정갤러리, 서울  
2009 korea now 상상마당 갤러리전시, 서울  
2009 제9회 북한인권국제회의 전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 호주 멜버른  
2008 행복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대안공간 충정각, 서울  
2008 세상에 부럼없어라, 인사동 쌈지갤러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07 선무 노순택 2인전 우리는 행복합니다,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서울



코리아\_가변설치\_철조망, 망치, 남북국기\_2012

## 송필용 SONG Philyong

---

### 학력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7 이화익갤러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09-2011 서울오픈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08-2011 서울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12 고백- 광고와미술, 대중, 일민미술관, 서울  
진(進), 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2011 이화익갤러리 개관10주년 기념전, 이화익갤러리, 서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중국 송장문화예술제, 상상국제미술관, 북경  
물보다 깊은물,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경재 화흔전, 경재정선기념관, 서울  
선화랑 개관33주년 기념전, 선화랑, 서울  
2009 원더풀 픽처스, 일민미술관, 서울  
화양춘신-한국현대회화100인전, 우림화랑 35주년기념, 서울  
탐매전,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Bloom in Color, 신세계갤러리,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금호미술관, 청와대, 남북출입사무소, 미술은행





생명의 바다-백령도\_130x210\_캔버스에 유화\_2012

## 윌 볼튼 Wil BOLTON

---

### 학력

영국 시티대학교 예술비평 석사 졸업  
코톨드 인스티튜트, 런던대학교 미술사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1 Seeing Sound2, Bath Sap University, 영국  
Wonderpia, 난지스튜디오전시장, 서울, 한국  
Re/Flux, ICA, 런던, 영국  
Light Works, Grimsby Minster, 영국
- 2010 Odd Place, ARTSIDE, 서울, 한국  
KRiK Festival, Spirit, 리예카, 크로아티아  
Soundgate, Kunsten / Utzon Centre, Platform4, 올보르, 덴마크  
BBC Norfolk Film Festival, Fusion at The Forum, 노리치, 영국  
(D)FEFV, Decumansu Gallery, 크르크섬, 크로아티아  
Sonic Vigil V, Sit Fin Barre's Cathedral, 코르크, 아일랜드  
Location Location, Stramash Space, 영국  
SoundImageSound VII, Conservatory of Music, University of the Pacific, 스톡턴, 미국
- 2009 Sculpture Remixed, Tate Liverpool, 영국  
A Thing About Machines, Herbert Gallery, 코번트리, 영국  
Trading As...: Hanse Art Project, King's Lynn Arts Centre, 영국  
Transfixed Motion / Transitory Still, Sheffield Institute of Art and Design Gallery, 영국
- 2008 Sound:Space 2008, South Hill Park, 블랙넬, 영국
- 2007 Black Powder + White Party, 경희대미술관, 서울, 한국  
Fresh Interventions, Oxburgh Hall(National Trust), 노퍽, 영국

### 기타(작품소장 및 레지던시)

#### - 퍼포먼스

- 2012 Wil Bolton with special guests, St John the Baptist in the Wilderness, Gragg Vale, 영국
- 2011 Hibernata & Home Normal Christmas Show, The Victoria, Dalston, 런던, 영국
- 2009 Late at Tate: Colour Remixed, Tate Liverpool, 영국
- 2008 Leap 08, Liverpool Lighthouse, 영국
- 2007 Black Powder + White Party Opening Performance, 경희대미술관, 서울, 한국  
Detune, King's Lynn Arts Centre, 영국  
Julian Opie in the 90s and Kira Kim: A Palace of Mirages Opening Performance, King's Lynn Arts Centre, 영국

#### - 주요음반

- 2012 Under A Name That Hides Her, Hibernata Recordings  
Silver, Hibernata Recordings
- 2011 Quarry Bank, Time Released Sound  
Chimes for a Wall Drawing, Cathedral Transmissions  
Melt, Rural Colours
- 2010 Time Lapse, Hibernata Recordings

#### -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 2011 에스토니아 예술가 협회, 탈린, 에스토니아



백령도\_5분\_비디오사운드\_2012

## 윤석남 YUN Suknam

### 학력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미국  
아트 스튜던트 리그, 미국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1 윤석남 개인전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윤석남 \_사람과 사람없이 - 282, 송파구립 갤러리 水, 서울  
2009 윤석남 108, 부산 아트센터, 김재선 갤러리, 부산  
윤석남 108, 갤러리 학교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속하거나 혹은 길망하거나\_10Curators&10Futures,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근현대미술기획전-여기사람이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모성\_한국 미술속의 어머니, 아시아 미술속의 어머니,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거대서사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간전 1 "1980년대 人間展, 그 以後, 오늘의 動向" 전, 정문규 미술관, 안산  
레지던시 프로그램 2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삶·자연·예술-한국미술 100년展, 암웨이 갤러리, 분당  
창창인생, 경기도미술관, 안산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조각가의 드로잉展, 소마미술관, 서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가인(佳人) - 동양미술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비형식(非形式)의 논증(論證), 자하미술관, 서울  
코리안 랩소디-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07 제4회 고정화상(사)또 하나의 문화)  
1997 국무총리상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조선일보 주최)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즈번(호주), 후쿠오카미술관(일본),  
벨란 미술협회(이탈리아), 미에 현립미술관(일본), 타이페이 미술관(타이완), 88올림픽공원(서울) 외 다수

### -레지던시

-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도라지꽃이 피었습니다\_가변설치\_혼합재료\_2010

##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

###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졸업

미야자키 공립대학교 인문학부 국제문화학과 졸업 일본

### 주요 단체전

2012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뉴미디어아트 전시제,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2012 플랫폼페스티벌&오픈스튜디오\_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오후 네시, 갤러리 에쁘꼬, 서울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Spakling Silence

Kunsthalle Erfurt, Erfurt, Germany- Gallery Nottbeck, Tampere, Finland- Gallery

AMU, Prague, 프라하, 체코

2010 Hidden sense\_국제 젊은 사진작가전, 대구, 한국

2010 아시아프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서울, 한국

2010 Korean Wave, Gallery Lamping street Bielefeld, 독일

2009 Korean Wave, Gallery PF01 Bratislava, 슬로바키아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저쪽\_41x120\_잉크젯프린트\_2012



내고향 백령도\_9분20초\_HD영상\_2012

## 이지현 LEE Jihyun

### 학력

프랑스 Caen Basse-Normandie  
대학교 영화학 석사  
한양대학교 영화학 학사

### 주요 단체전

2012 7th Vibgy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atya Griham Cinema, Thrissur, 인도  
2010 Regards sur la Coree du Sud, Cinematheque Lux, Caen, 프랑스  
2010 한-EU 단편영화교류전, 시네마루 극장, 서울  
2010 G20 영화대축제, 시네마루 극장, 서울  
2009 15th Dram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lympia Cinema, Drama, 그리스  
2009 Filmini 3.0, Cinema Odeon, Sophia, 불가리아  
2009 The Third Annual FRESH 2009, SF World Cinema, Bangkok, 태국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 정정엽 JUNG Jungyeob

---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off bean, 갤러리 스케이프  
2009 얼굴 풍경,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  
2009 red bean, 스케이프 갤러리  
2006 지워지다, 아르코 미술관  
    멸종, 바나리 미술관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hard times high times, 인터알리아  
    모성 전, 이화여대박물관  
2011 암스텔담 아트페어, 암스텔담  
    에니멀리어, 코리아나 미술관  
2011~2009 OFF THE BEATEN PATH: VIOLENCE, WOMEN AND ART:  
    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산티아고/오슬로/멕시코/시카고  
2010 남녀의 미래, 아람미술관  
    강진 청자 아트 프로젝트, 강진청자박물관, 백련사  
2009 황해미술제, 인천종합예술회관  
2008 Latin America Action Tour Project, 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  
    제2회 칠레 국제 퍼포먼스 비엔날레, 산티아고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10 우현예술상, 인천문화재단  
1994 가나미술상, 가나아트

#### -작품 소장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경기지방공사, 달링 문화재단, 아해! 청소년 성 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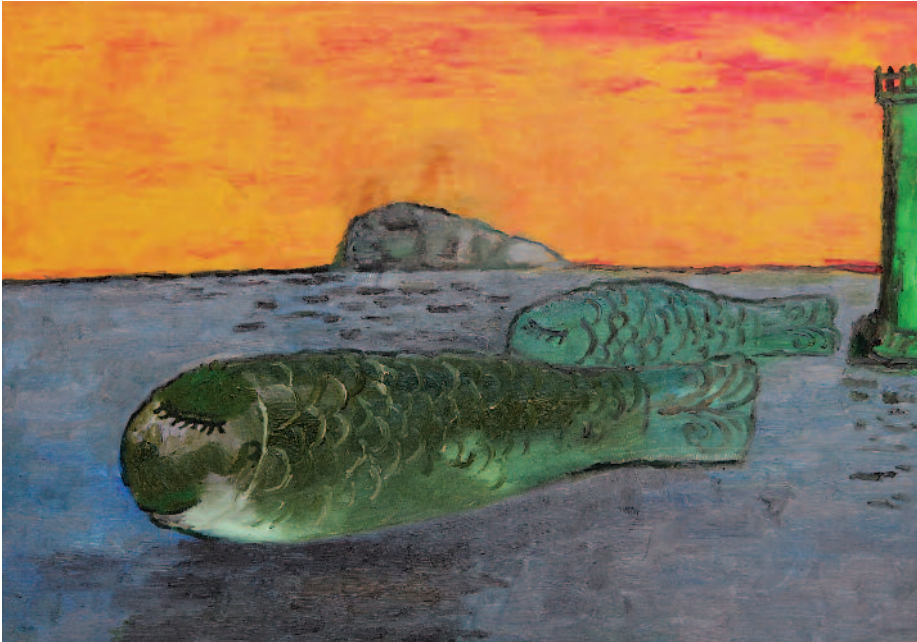


초대1\_130×162\_캔버스에 유화\_2012



초대2\_130×162\_캔버스에 유화\_2012





1\_74x105\_캔버스에 유화\_2012

## 조우치 ZHOU Qi

학력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와 졸업	2012 MOMENT, 갤러리노리, 제주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2011 (사)동물보호협회 KARA 기금마련전, 갤러리자작나무
	2008 송장(宋莊) 2008당대 예술전, 송장원창예술박물관(宋莊原創藝術博展中心), 베이징 중국 당대 예술가 15인전, 송장원창예술박물관(宋莊原創藝術博展中心), 베이징 중국식 붉은색, 대몽(大夢)스페이스갤러리, 베이징 비상 08.cn 당대예술전, 88예술문헌창고(88藝術文獻倉庫), 베이징 해묘적묘 -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 거제예술회관, 거제 당대예술문헌 2008 - 주제전, 가화(歌華)미술관, 베이징 사중교착(四重交錯), Soul Gallery, 베이징 척란, 67도 예술공간, 베이징
	2007 중국현대미술, 거제예술회관, 거제 동방의 부두 - 당대예술전, 송장(宋莊), 베이징 고도-3인전, 67도 예술공간, 베이징 예술관/개막전, 북경예공관(藝公館), 베이징
	2006 송장제조(宋莊製造), 상상미술관(上上美術館), 베이징
	2003 조우치 작품전, 관경(觀景)갤러리, 베이징 당대 예술가의 작품전, 관경(觀景)갤러리, 베이징
	2001 덕승문(德勝門)과의 조우, 예삼(藝森)갤러리, 베이징 형상과 부호의 재조명, 환우예술센터(環宇經典藝術中心), 베이징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_74x105\_캔버스에 유화\_2012



3\_74x105\_캔버스에 유화\_2012

## 짜까뽀반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

### 학력

태국 출라롱곤대학교 순수&응용미술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 2011 Mr. Siam, 2011 광주비엔날레 오프닝 퍼포먼스, 광주, 한국  
Portrait of Graz, Kultur Steiermark Art Hall, Graz, 오스트리아
- 2010 Consciousness at 33, Art Space Mite, 광주, 한국
- 2009 111 days self transformation,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한국  
외 다수

### 기타(작품소장 및 레지던시)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 2011 Community space Ugro, 광주, 한국  
Rondo Studio, Graz, 오스트리아
- 2010 Art space Mite, 광주, 한국  
Mudeung Art Museum, 광주, 한국
- 2009 Litmus Community Art Space, 안산, 서울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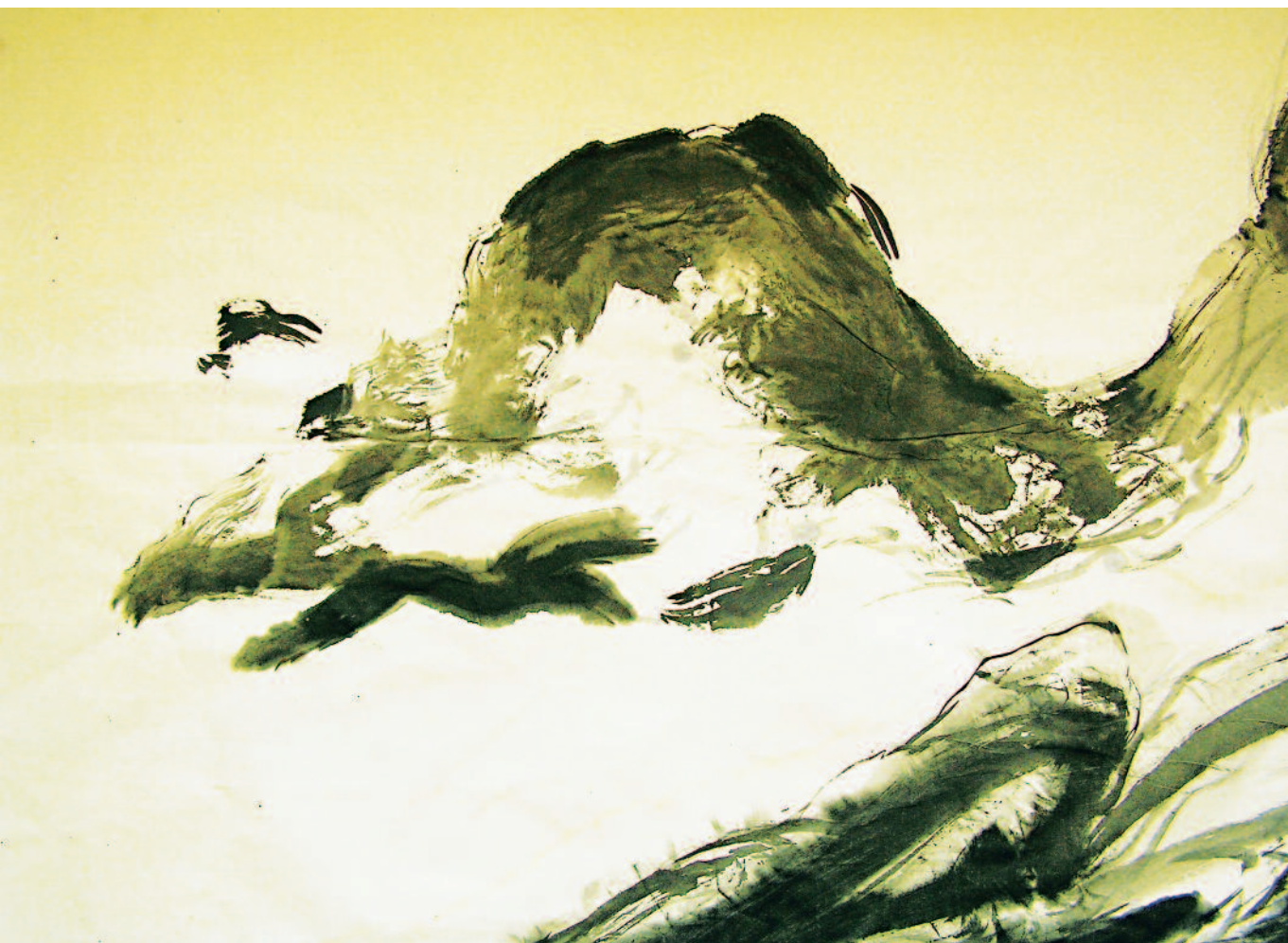
Art for Peace\_가변설치\_사진 슬라이드쇼\_2012

## 최병국 CHOI Byungkuk

---

학력	주요 개인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2011 제7회 인천-산동 국제미술교류전, 산동 박물관 제7회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호놀룰루시청 갤러리 백인백색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44회 한국화회, 조선일보미술관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한-러 수교20주년 국제미술교류전, 모스크바 중앙화가회관 G-20 월드 아티스트페스티벌, 프레스센터 파이낸셜뉴스 아트 페스티벌, 세종문화화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초대전, 세종문화화관 인천-산동 대표작가 국제미술교류전, 산동미술관 외 다수





저 멀리\_85x130\_화선지에 수묵\_2012



평화섬-곡도국\_40x70x5\_혼합재료\_2012

## 최정숙 CHOI Jungsook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수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0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2007 개인전, 해원갤러리 초대  
2006 중국칭다오시박물관 초대전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홍익루트, 조선일보 미술관  
2011 홍익여성화가협회 3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평화의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아시아 탐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서울2010, 신라호텔  
아트 에디션2010, 벅스코, 부산  
2009 빛과 바다의 만남전, 인천-광주판화교류전  
외 다수





평화의 나라 곡도국을 꿈꾸다\_162x264\_캔버스에 유화\_2012



어진바다-화려한 경계\_6분\_싱글채널비디오\_2012

## 홍지윤 HONG Jiyoון

###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홍지윤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1 홍지윤전, 셀로아트, 서울  
2010 Life is colorful, 표갤러리, 서울  
2009 활보 with big stride, gallery TN, 798 art area, 북경 파산즈, 중국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문자유람, 지하미술관, 서울  
해안동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개관1주년 기념전 테크놀로지의 명상 - Media의 정원,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 미술, 예술의 전당, 서울  
2009 몸의 언어, touch art gallery, 헤이리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01, 2003 Florence Biennale, Historic fortezza da Basso, Florence, Italy  
The 'Lorenzo il Magnifico' award, Drawing and mixed media  
1992 1993 1995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외 다수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06 Villa Waldberta residence, 뮌헨, 독일  
200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 스튜디오 1기





Gorgeous Border\_160×132\_캔버스에 아크릴\_2012



Gorgeous Border2\_160×132\_캔버스에 아크릴\_2012



어진바다-화려한 경계\_가변설치\_혼합재료\_2012

평평하게 뻗친 섬이란 뜻의 연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속하며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에서는 서북방 122km에 위치하며, 북한과는 불과 2.8km의 거리로 물위의 경계선에 마주하고 있다. 연평도에는 약 2천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해적 등의 무리가 출몰하기도 하여 여러 차례 무인도가 된 적도 있었다. 연평도의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은 조선조 16대 인조 때 임경업장군이 조기잡이 방법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다. 이후로 외래 문물과 종교들도 이 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는 북쪽에서 온 수 만명의 피난민이 이 섬을 거쳐 남하하기도 하였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연평도는 물 반 조기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기잡이 배와 사람들이 북적대는 유명한 섬이었다. 지금은 조기 대신 꽃게가 많이 찾아오는 바다로 바다의 경계는 중국 어선들의 조업선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999년 6월 15일,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 선을 월선하는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 23일 다시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포격이 일어났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6.25 전쟁 이후 최초의 민간지대를 대상으로 한 포격이었으며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두 해를 지나면서 연평도의 마을은 본래대로 복구되어가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당시의 기억과 포격이후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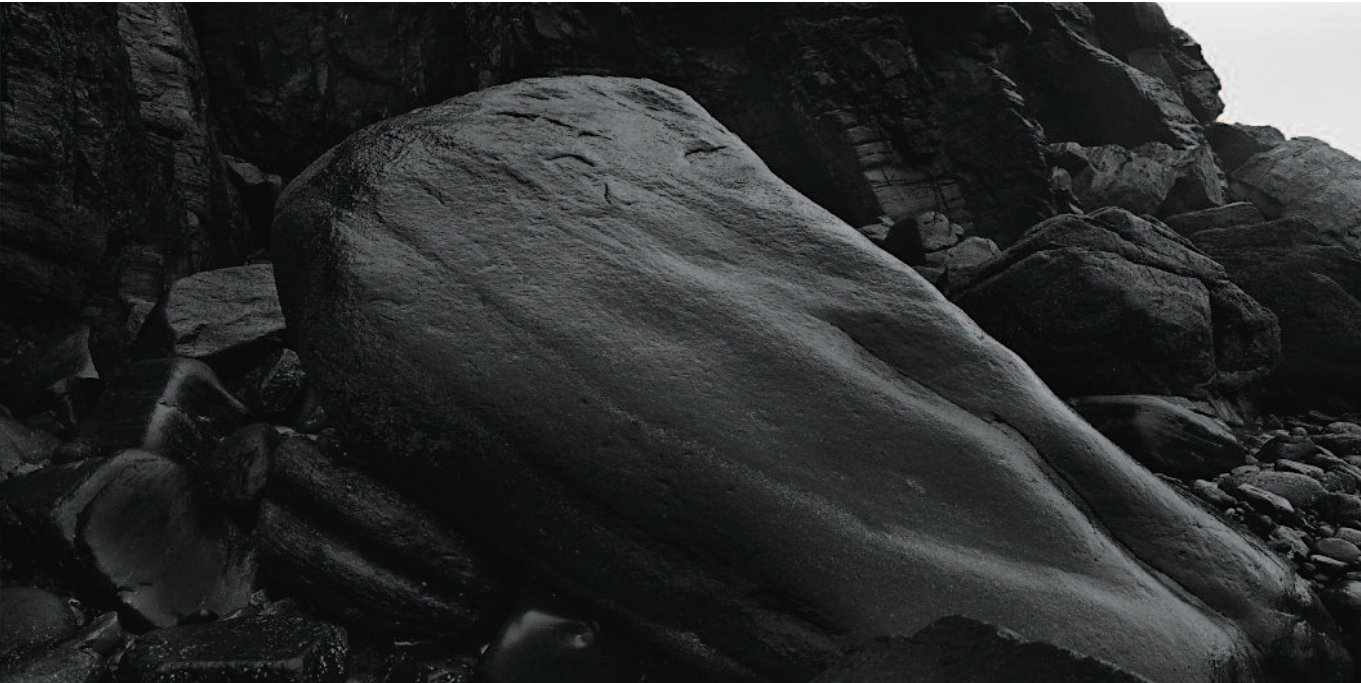
연평도 답사는 25명의 참여 작가와 관계자들이 6월 14일, 15일 양일간 연평면사무소 서은미 팀장님의 상세한 안내로 이루어졌다. 연평도는 아담한 크기의 섬으로 도보가 가능한 곳이다.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었던 임경업 장군을 기리는 충민사를 시작으로 평화공원, 등대공원, 조기역사관, 땅굴터널의 안보코스과 구리동 해변, 고래진골 등의 천연의 자연을 보았다. 평화공원에서는 멀리 우리 바다에 들어와 꽃게를 마음껏 잡아가는 중국어선들이 까맣게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날 저녁 8시 연평초등학교 희망대피소에서 연평초등학교 한상준 선생님과 서은미 팀장님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포격의 시작부터 현재 복구되고 있는 과정까지 연평도의 아픔을 들을 수 있었다. 연평초등학교 교사인 한상준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과 어린이들을 비롯해 그 날 그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주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잠재된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포격당시 연평도에 세 자녀와 남편을 두고 육지에 있었던 서은미 팀장님의 이야기로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결과였을 뿐 분명한 원인은 분단이며, 이번 포격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연평초등학교 희망대피소에서의 워크숍은 심각한 질문과 응답이 오가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튿날에는 연평마을 내에 총알구멍이 숭숭한 가운데 그려진 벽화거리, 복구되지 않은 집, 포탄 맞은 나무, 새 대피소 등 포격의 잔상이 남아있는 곳을 둘러보며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연평도 당섬 선착장 앞 유리에 포탄을 맞은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연평도는 다시 안정을 찾는 듯이 보이지만 아직도 지속중인 분단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생생한 설치물 같았다. 부디 꽃게들이 살기 좋은 바다라고 믿고 찾아오는 연평도 앞바다에 남북사이의 어떤 분쟁도 중국과의 꽃게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물위의 경계 NLL, 인간들이 그어놓은 그 물위의 경계가 하루 빨리 없어지고 조기잡이 꽃게잡이 배들과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태운 배들이 새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 참여작가 Artists

김보섭	KIM Bosub
김선두	KIM Sundoo
김지원	KIM Jiwon
김효숙	KIM Hyosuk
노순택	NOH Suntag
류성환	RYU Seonghwan
박방영	PAK Bangyoung
박인우	PARK Yeenwoo
박흥순	PARK Heungsoon
백인태	BAIK Intae
오석근	OH Sukkuhn
웁쓰양	WOOPSYANG
이수영	LEE Sooyoung
이이남	LEE Leenam
이 인	LEE In
이종구	LEE Jonggu
임장환	LIM Janghwan
정용일	CHUNG Yongil
한윤기	HAN Younki
허용철	HEO Yongcheul
홍선웅	HONG Seonwung





서해안\_1\_100x200\_디지털피그먼트프린트\_2012

## 김보섭 KIM Bosub

---

### 학력

성균관대학교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2 다복집, 인천 신포동 다복집 현장에서
- 2010 시간의 흔적,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 토포하우스, 서울
- 2009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사진이야기\_예술인과의 만남 초대전, 해변갤러리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얼굴, 부평아트센터, 인천
- 2011 생활의 발견\_인천미술은행 기획전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인천
- 2010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0 나의 살던 동네, 부평아트센터, 인천
- 2009 다시개항,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09 여성 비엔날레,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 1983 동아미술제 사진부문 대상





서해안\_2\_100x200\_디지털피그먼트프린트\_2012



마른 번개\_장지에 먹.분채\_64x92cm\_2012

## 김선두 KIM Sundoo

###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 2006 시카고 아트페어, 시카고, 미국
- 2005 쾰른 아트페어, 독일, 쾰른
- 2003 취화선 - 그림으로 만나다전, 금호 미술관,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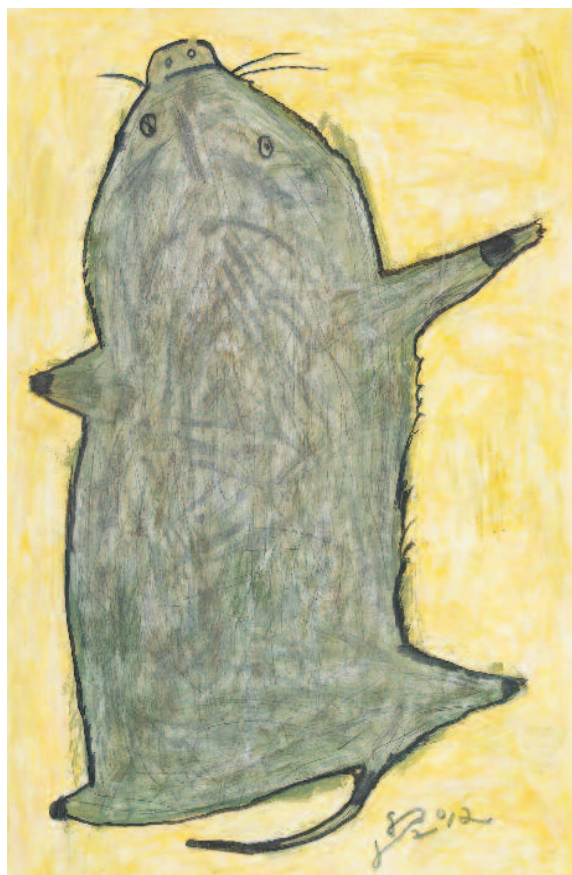
- 2000 역사와 의식 - 독도 진경전,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 외 다수

### 기타 (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 2004 제3회 부일미술대상 수상, 부산일보



밧혀주는 사람1\_장지에 먹, 분채\_66x96cm\_2012



밧혀주는 사람2\_장지에 먹, 분채\_66x96cm\_2012





풍경\_162×97\_캔버스에 유화\_2012

## 김지원 KIM Jiwon

### 학력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졸업, 독일

### 주요 개인전

2011 바람처럼,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1 이룩하다, 금호미술관, 서울  
2010 김지원, PKM TRINITY GALLERY, 서울  
2009 맨드라미, 분도갤러리, 대구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SeMA 중간허리 2012:하든트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의 그림-매너에 대하여, 하이트 컬렉션, 서울  
한국, 대만교류전-한국 당대회화, 타이중 국립대만미술관  
2011 제1회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추상하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2010 한국드로잉30년, 소마미술관, 서울  
2009 2인전 붉은 낮잠, 그 문화,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하이트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미술관, 금호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매일유업, 고려대학교박물관, 소마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하나은행 등



풍경\_91×60.6\_캔버스에 유화\_2012

## 김효숙 KIM Hyosuk

---

### 학력

웅인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웅인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부유하는 나의 도시II, OCI미술관, 서울

2008 부유하는 나의 도시, 영아트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2012 OCI 미술관 입주작가, OCI미술관, 서울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tipping point 2012, 관훈갤러리, 서울

별별동행, 군산시민문화회관, 군산

평화가 웃는다, 스페이스99, 서울

아트로드77, 북하우스아트스페이스, 파주

2011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I will survive,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Irony of Individual, 유엔씨갤러리, 서울

Upload- 都市,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여행자들,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호흡: 들숨과 날숨, Gallery Being 개관 기념전, Gallery Being, 서울

Eye scream maker 스페이스 K 오픈전, 스페이스 K, 대구, 과천

아트로드77,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2010 미리보기, OCI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9 2009 아시아프, 옛 기무사 건물,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10 1회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선정작가

2010 10회 송은미술대전 선정작가

2010 32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1 OCI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선정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송암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서해5도\_130×130\_캔버스에 아크릴\_2012



최루탄\_130×130\_캔버스에 아크릴\_2012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_02\_45x60 아카이벌프그먼트프린트\_2010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_03\_45x60\_아카이벌프그먼트프린트\_2012

## 노순택 NOH Suntag

### 학력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2 망각기계 Forgetting Machines,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10 좋은, 살인 reallyGood murder, 상상마당, 서울  
성실한 실성 Lunatic Fidelity,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 2009 Estat d'excepció, La Virreina, 바르셀로나, 스페인  
거울정치 Political Mirror, 트렁크 갤러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Oh my complex,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스투트가르트, 독일  
PUBLIC : Occupied Spaces, Museum of Contemporary Canadian Art, 토론토, 캐나다  
Demonstrations-Making Normative Orders, 프랑크푸르트 미술협회, 독일
- 2011 추상하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 서울  
움직이는 표면들,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 2010 분단미술 - 눈 위에 핀 꽃,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여론의 공론장 - 신자유주의 그 이후, 대안공간 루프, 서울  
Re-Designing the East,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스투트가르트, 독일  
미디어시티서울 "Trust", 서울시립미술관  
MISSING, Robert Goff Gallery, 뉴욕, 미국
- 2009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미술 : 악동들 지금 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Bienal de Lanzarote, 스페인  
Shared. Divided. United, NGBK, 베를린, 독일  
인터 시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외 다수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일기\_21×13×0.5\_30여쪽의 일기\_2011

## 류성환 RYU Seonghwan

---

###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과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서양화

### 주요 개인전

2010 숙골로 사람들, studio R.A., 인천  
2010 기울어진 삶, JHGAIIERY 기획초대전, 서울  
2008 삶의 터,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JALLA, 아시아 민중 東京都미술관, 도쿄.  
Down Hill Art Asian Exhibition, Top Gallery, 호주  
블루 닷 아시아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feel, 현대갤러리, 서울  
2011 황해미술제 친애하는 동식물에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전국환경미술제, 강 - 생명의 노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청년작가초대전, 서울역사전시장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10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선정  
2009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매입공모 선정  
외 다수

### -작품 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LS엠트론



2012 노래방 최신판\_324x131\_캔버스에아크릴\_2012





역사를 품은 바다 언덕에서\_161×68\_한지위에 혼합\_2012

## 박방영 PAK Bangyoung

###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수로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홍익대 미대졸업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졸

### 주요 개인전

2011 갤러리이노초대전, 서울  
2010 브라운 갤러리 개관 초대전, 브라운 갤러리, 서울  
박방영의 함께놀자, 갤러리서뽀, 전주  
2009 박방영 초대전, 빛갤러리,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볼자노 아트페어, 이태리 볼자노  
2012 흐:름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한국의빛, 공평갤러리  
'옹그림전, 메이존갤러리기획, 아산병원갤러리  
2011 그리다-재경전복작가전, JMA스페이스, 전북도립미술관서울관  
Share Love, 갤러리세인, 서울  
한국의 빛, 공평갤러리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회화전, 아이즈, 일본  
2010 자연의 신화 제주, 세계자연문화유산특별기획전, 제주현대미술관  
G20 정상회의 갈라쇼 퍼포먼스, 하얏트호텔  
미술의 신세계전, 오사카, 일본  
330인전, 선화랑  
2009 꽃밭에서, 63스카이아트 갤러리  
BIAF, 부산국제아트페어, 부산문화회관  
서울오픈아트페어, 코엑스  
외 다수



할말이 많은 바다 언덕길을 걸으며\_177x68\_한지위혼합\_2012





검다\_72.7x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박인우 PARK Yeenwoo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

### 주요 개인전

1991-2011 개인전 20회  
2010 독일 뵘너갤러리 초대 10회  
KUNSTMESSE ROTTERDAM2010, AHOYWEG  
2009 한중문화관 특별 초대전, 인천  
2008 말레이시아 아트엑스포,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ORIGN 회화협회전, 워커힐미술관, 미술회관, 덕원미술관, 서울  
현대미술의 Vision 2009,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openauction 갤러리초대, 오픈옥션갤러리, 서울  
골든아이 아트페어전, 코엑스, 서울  
100인100색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외 다수



평화의 섬\_72.7x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비극의 섬\_72.7x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생명의 수\_72.7x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연평도1(연평도에서 바라본 NLL선)\_80x11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박흥순 PARK Heungsoon

###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2007 등대에서의 15일 전, 여오등대 갤러리  
2006 박흥순 초대전, 갤러리 각  
2004 박흥순 초대전, 청도 조각예술관, 중국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0 현대미술특별초대전, 청주문화관  
전국환경미술제, 울산문화회관  
제17회 JAALA전, 가와사키 시민뮤지엄 일본  
제2회 평화미술제, 금호갤러리, 광주  
2009 평화미술제, 제주현대미술관  
2008 한국현대미술전, 주영한국문화원, 영국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10 몽골국립 아카데미 훈장 수상





연평도2(북에서 바라본 연평도)\_80x11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피스\_가변설치\_혼합매체\_2012

## 백인태 BAIK Intae

<b>학력</b>	<b>주요 단체전</b>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과 판화, 서울	2011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어제가 봄이여, 그문화, 서울
<b>주요 개인전</b>	2010 The end of the world, 서교실험예술센터, 서울
2009 반짝반짝, 그 문화, 서울 외 다수	2009 흥대앞다시보다-수집가 홍씨의 아카이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낮빛 씌지, 서울 작가와와 대화, 그 문화, 서울 트러블 메이커2009, CHA갤러리, 서울 미술이 과학을 만나다, 한국과학기술원 KIST, 서울 인물:징후, 갤러리 킹, 서울 아트인생 프로젝트2탄-의정부 부대찌개 49인분展,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
	2008 Ouip Meets Christmas, lab and Gallery Delitoys, 서울 다시...“예술”을 묻다, 스페이스빔, 인천 외 다수
	<b>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b>
	-작품 소장 한국과학기술원 KIST, 서울, 대한민국





## 오석근 OH Sukkuhn

### 학력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 사진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서해프로젝트 니나나나,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교과서 (철수와 영화), 베이스 갤러리, 동경2010 교과서 (철수와 영화),  
레콜레따 문화센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0 교과서 (철수와 영화), 오레곤 사진센터, 포틀랜드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Twisted, 성곡미술관, 서울  
Emerging : New Photography Acquisitions,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SKOPF) 소장품 전, 상상마당, 서울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뽕뽕뽕뽕도큐멘트,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9-1번지, 인천 사진프로젝트 : ) 얼굴, 부평아트하우스, 인천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Lab DotlineTV Preview, Lab DotlineTV, 서울  
국경 없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2010 서울문화재단 해외교류사업 지원 선정  
2010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SKOPF)

#### -작품 소장

Portland Museum of Art(포틀랜드),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휴스턴), Santa Barbara Museum of Arts(산타 바바라),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키요사토), 일민미술관(서울), 상상마당(서울),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인천)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별이 빛나는 밤에\_43.5×100\_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_2012



연평의 거울\_69x39x2\_혼합매체\_2011



## 웁쓰양 WOOPSYANG

---

### 주요 개인전

- 2012 한 시대가 무심코 지나간다, 대안공간 프로젝트갤러리 <정다방>  
2009 EVOLUTION, 비주얼 아트센터 보다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우주다방,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해안동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검소의 미학, 가일미술관  
게임의 역사, EXCO, 대구  
2009 서교난장, KT&G상상마당  
영아티스트 발굴전, 갤러리각  
서교육십, KT&G상상마당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퍼포먼스

- 2012 Oops! 예술의 생얼-웁쓰양 대놓고 몰카,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룸  
2011 한 작품을 위한 뮤직비디오, 서울, 인천  
2010 “웁쓰양 거리노점 영화관 습격사건” ATU 닷라인 주최, KT&G상상마당 시네마  
“고등어를 시려다 그림을 사다”, 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인천 부평 재래시장 내  
“환장” 그림노점, 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인천 부평 재래시장 내

####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진실은 저 너머에\_91×117\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이수영 LEE Sooyoung

---

### 학력

뉴욕 퀸즈대학원 설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조소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죽음 항해자, 고양시 벽제 화장터, 구제역 매몰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시

2010 사주(四柱), Casa Asia,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8 습진濕疹의 기억, 미술공간 現,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노마딕 리포트 2012,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1 지도는 말을 한다,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Liquid Moon 3 \_ Korean German Project 2011,  
Ausstellungshalle Hawerkamp, 뮌스터, 독일  
Time and Space, 자나두 갤러리, 올란바토르, 몽골  
인터뷰, 아르코 미술관, 서울  
Liquid Moon 2,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0 사거리, french institute, 바르셀로나, 스페인  
레인보우 아시아, 예술의 전당, 서울  
가리봉동 진달래 반점, 공간 해밀톤, 서울  
가리봉 동네 한 바퀴, 가리봉동, 서울  
Liquid Moon 1, Plan-d galerie, 뒤셀도르프, 독일

2009 수유마을시장, 수유시장, 서울  
예술을 파는 가게, 리트머스 갤러리, 안산  
짜장면渡海歌, 인천차이나타운 빈 점포, 인천  
City\_Ray, 스페이스빔 갤러리, 인천  
서울 무지개,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_51x87\_사진, 수술훈실, 거즈\_2012



백령도 해병대와 죽음의 사제\_51x87\_사진, 수술훈실, 거즈\_2012





매혹적인 파괴\_가변설치 영상\_2012

## 이이남 LEE Leenam

### 학력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콰이퐁한 갤러리, 홍콩  
2012 칼라마주 미술관  
2011 아트센터 나비  
2011 미시간 대학 미술관  
웨이즈 스테이트 미술관  
2011 디트로이트 대학미술관  
2011 홍콩아트센터  
2010 G20서울정상회의 설치작품  
미디어아트 특별전, 광주광역시청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한.중수교 20주년, 솔리드 일루전, 북경  
2012 미디어아트, 여수엑스포 SK 관, 여수  
2012 코리안아이, 뉴욕 / 아부다비  
2012 핵 안보정상회의, 국가브랜드관, 서울  
2012 꿈.하안밤,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인스부르크  
2011 고베 비엔날레, 고베  
2011 청두 비엔날레, 청두  
2011 육감 맛사지미디어 아트전, 아트센터 나비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10 선 미술상 수상  
2010 대한민국 올해의 청년작가상 수상  
2005 올해의 미술가 대상 수상/ 2005 올해의 청년 작가상 수상  
2005 신세계 미술상 대상 수상/ 2002 제8회 광주 미술상 수상

### -작품 소장

청와대, 리움미술관, 삼성그룹창조관, 주미대사관, 주독대사관, 예일대학교,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 이 인 LEE In

### 학력

동국대학교 졸업

### 주요 개인전

개인전 14회, 가람화랑, 미술화관, 금호미술관 등

### 주요 단체전

2012 한국현대미술-대서사시전, 국립현대미술관

2011 시화일률, 가나아트센터, 서울

부드러운 힘, 성세천공미술관, 베이징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Diversity, Gallery Eric Anders, Vienna

The Game, 예술공간 39, 베이징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OCI미술관, 금호미술관, 외교통상부,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거제문화회관, 미술은행, 통영시, 국토개발연구원,  
태평양법무법인, 포항공대학술문화관





서해-부유하는 섬\_244×460\_캔버스에 혼합매체\_2012



## 이종구 LEE Jonggu

---

###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2010 국토: 세계의 풍경, 학교재, 서울 외 20여회

2005 올해의 작가200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한국현대미술-거대서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2011 올해의 작가 1995-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리움, 서울

상생과 공존, 제주도립미술관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2010 아시아 리얼리즘, 싱가포르국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마산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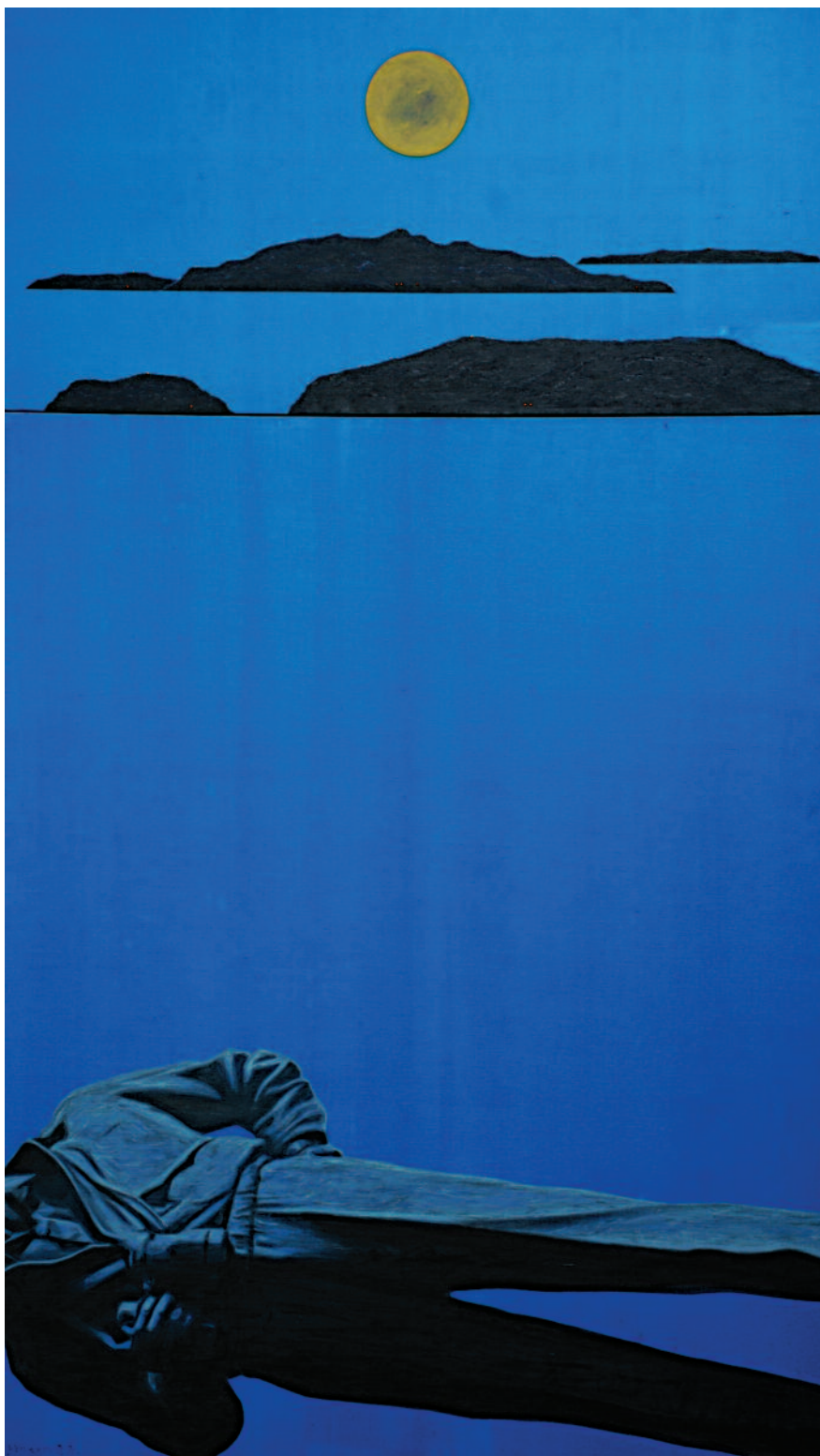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성곡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OCI미술관,

문화부미술은행 외



황해2\_225×130  
캔버스에 아크릴\_2012



봄의 침묵\_162.2×130.3\_캔버스에 유화\_2011

## 임장환 LIM Janghwan

### 학력

동국대학교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졸업  
계원조형예술학교 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Silent Spring, 갤러리고도, 서울, 한국  
Plastic WORLD, 갤러리진선, 서울, 한국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Hong Kong Contemporary, 홍콩  
Korean Art Show 2012, 맨해튼 소호, 뉴욕, 미국  
ZAHARTIST-1,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국  
2011 Bazaar Art Jakarta 201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伸인상전, 금산갤러리, 서울, 한국 AHAF HK11, 호텔만다린,  
홍콩2010 KIAF, 코엑스, 서울, 한국  
화랑미술제, 벅스코, 부산, 한국  
The INTERSECTION, DNA갤러리, 서울, 한국  
아아최작 모르세요?, 맥화랑, 부산, 한국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09 아시아프, 아시아프 프라이즈 수상2009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상처\_130.2×162.2\_캔버스에 유화\_2012



## 정용일 CHUNG Yongil

---

### 학력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원 박사과정 D.E.A 졸업  
중앙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2011 갤러리 DY, 수지, 경기  
2009 타임스퀘어 갤러리, 서울  
갤러리 더케이, 서울  
갤러리 웨스턴, L.A 미국  
스페이스 썬그 에두알, Paris, 프랑스  
2007 한전아트센터,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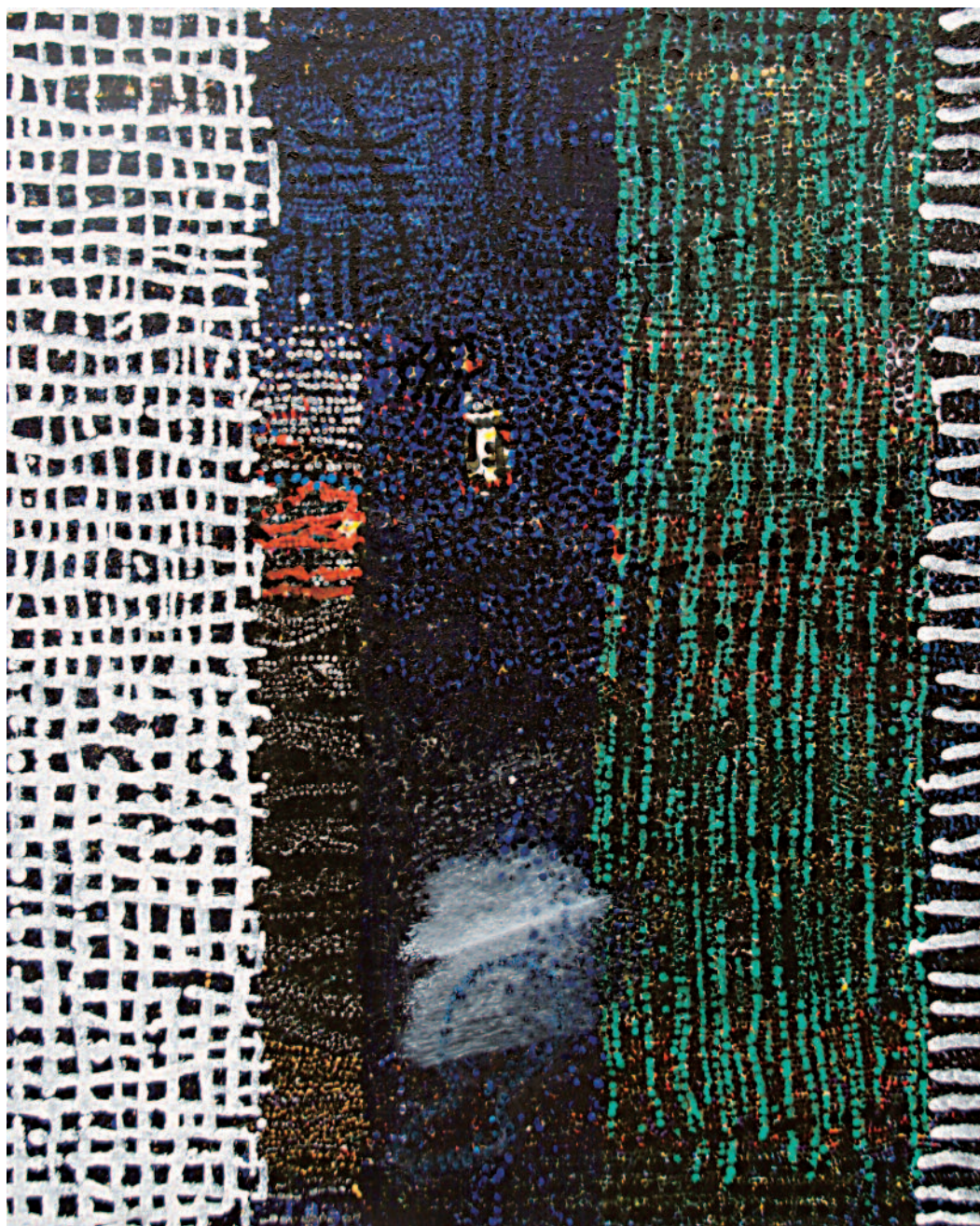
2011 로테르담 아트페어, 네덜란드  
2010 KIAF, 코엑스, 서울  
2009 팔츠부르크 아트페어, 오스트리아  
상하이 국제 아트엑스포, 상하이  
뉴욕 국제 아트 엑스포, 뉴욕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HACETTEPE 대학교, 양카라, 터키 등.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NLL다섯길 바다물속\_227×181\_캔버스에 유화, 아크릴\_2012

## 한윤기 HAN Younki

### 학력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와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동아. 서경. 갤러리상. 스페이스빔. 갤러리진. 가네트갤러리.  
신세계갤러리. 기운갤러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범패 박물관. 진산 갤러리. 오동나무 갤러리.  
인천평생학습관(나무)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말레이시아 국제 미술 엑스포,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  
c21 현대미술의 공간 전, c21  
서풍에 묵향을 싣고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산둥. 인천 국제 교류전, 산둥미술관  
아트코러스 "21c 현대미술의 조명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백인백색 전, 서울시립미술관  
인천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 전, 신세계 갤러리  
인천-터키 국제 교류 전, 터키 앙카라  
제주 신화 미술제, 제주아트 갤러리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8회 입선  
동아 미술제 특선. 인천 미술대전 대상. 및 특선 연 3회  
경인미술대전 연3회 최우수상.







조기의 노래\_가변설치\_혼합매체\_2012





## 허용철 HEO Yongcheul

### 학력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09 생명-상생, 관훈미술관, 복합문화공간 해시  
2001 진경산수-강화도, 대안공간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998 학교-절망과 희망, 관훈미술관, 다다갤러리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대성리전, 이후전, 사이전, 현대미술상황전, 그림때 갯꽃, 지평전, 황해미술제,  
교육현장전, 민중미술 15년전, 해방 50년 역사미술전, 광주 통일 미술제,  
2002광주비엔날레, 화랑미술제, 강화 물길 바람길전 외 다수



직진금지\_244×122\_잉크젯 프린트\_2012

## 홍선웅 HONG Seonwung

---

### 학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08 차와 매화,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1 홍선웅의 판각기행, 서울 인사아트센터 / 인천 신세계갤러리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1 2011亞洲振興圖展, 대만 국립대북예술대학 관도미술관, 대만  
세계 판각. 판화전-천년의 바람, 해인사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2009 2009 부산국제 멀아트 쇼, 부산문화회관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일민미술관, 가나아트센터, 서울시교육청,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쾰른 안파리나화랑



연평도 포격\_75×120\_목판화\_2012



## 강화도 · 교동도 Ganghwado · Kyodongdo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으로도 불릴 만큼 선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보고된 바 있으며, 청동기 시대 고인돌 150여기 중 70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강화도는 삼국시대 이래 개경과 한양에 이르는 수도로 통하는 길목으로 전국각지에서 올라오는 생산물과 외국 문물이 유입되는 한반도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 전시에는 외세침입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였다. 지리적 특성상 쉽게 배를 탈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그로 인해 고려시대에는 수 십년동안 지속된 몽고와의 전쟁 중에 임시수도가 되었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한강, 임진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 할 때마다 오히려 전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견디어 내야만 하는 인고의 요새이기도 하다.

6월 4일, 참여작가 및 스텝 34명과 강화역사문화연구소 김형우 소장이 강화교동도 멘토로서 답사에 합류하였다. 먼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와 같이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적군을 방어하는 진을 둘러보았다. 이 곳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견고한 요새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신미양요와 윤요호사건처럼 외세 열강들과 조선과 가장 치열한 전투지이기도 하다. 조선군 방어진지에서 350명 조선군과 어재연 장군의 신미양요 전장이기도 한 진과 보 주변에는 포탄 맞은 소나무, 해문방수비, 쌍총 비각 등 아직도 전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1232년에 강화로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고려궁을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고려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고려궁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허물어졌다가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관서와 궁궐자리로 복원하였으나 병인양요가 발발 하면서 프랑스 군에 의해 불타 없어져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왕실의 주요 자료를 보관하던 도서관인 외교장각에는 조선왕실의궤 등을 비롯한 중요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 군에 의해 대부분 불태워지고 약탈되었으며 그 중의 일부만이 2011년 5월 영구임대방식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헌부 뜰에 앉아 무능한 왕과 관료들 덕에 난리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참혹한 마을을 상상하였다. 또한 손에 닿을 듯 북녘 땅이 가깝게 보이는 평화전망대에 올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울음소리 아래 펼쳐진 북한 땅을 보았다. 강화도를 지나 배를 타고 교동도에 들어갔다. 조선후기에 쌓은 교동읍성을 가보기 위해서다. 읍성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 남 북쪽에 3곳의 성문을 두었으나 현재는 반원형태의 홍예문만이 남아있다. 문을 지나 망들 안으로 들어가면 옛 마을의 흔적과 이곳에서 죽어간 연산군의 유배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밭을 가로질러 야트막한 산으로 오르는 종턱에 당집 하나가 있는데 이곳이 부근당이라 하며 그 안에는 연산군부부를 모시는 사당이 마련되어 연산군부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세월의 유구함과 쓸쓸함이 절로 느껴지는 몇 안되는 유적을 보고 마을로 내려와 대룡시장에 들렀다. 한적하지만 옛 정취가 풍기는 골목 안 작은 구멍가게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오래된 물건들이 남아 있다. 교동도는 고깃배를 모는 사람보다는 땅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농사가 많은 섬이었다.

## 인천 Incheon

‘2012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발발한 인천의 해전사에 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5월 19일 오전 경인일보 정진오 기자의 “인천을 왜 세계의 전장이라 하나?”와 인천발전연구원 김창수 박사의 “인천의 전쟁과 기억의 불균형” 강의를 듣고 역시 두 분의 진지한 안내로 자유공원에서 시작하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인천역 레드비치 월미공원 월미부두 일대를 돌아본 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대한 보충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답사를 통해 비로소 2012평화미술프로젝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번 전시는 전시장에서만나는 결과물만이 아닌 답사의 전 과정이 본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 되었다.

답사일시 2012. 06. 04(강화도 · 교동도)

2012. 05. 19(인천)

## 참여작가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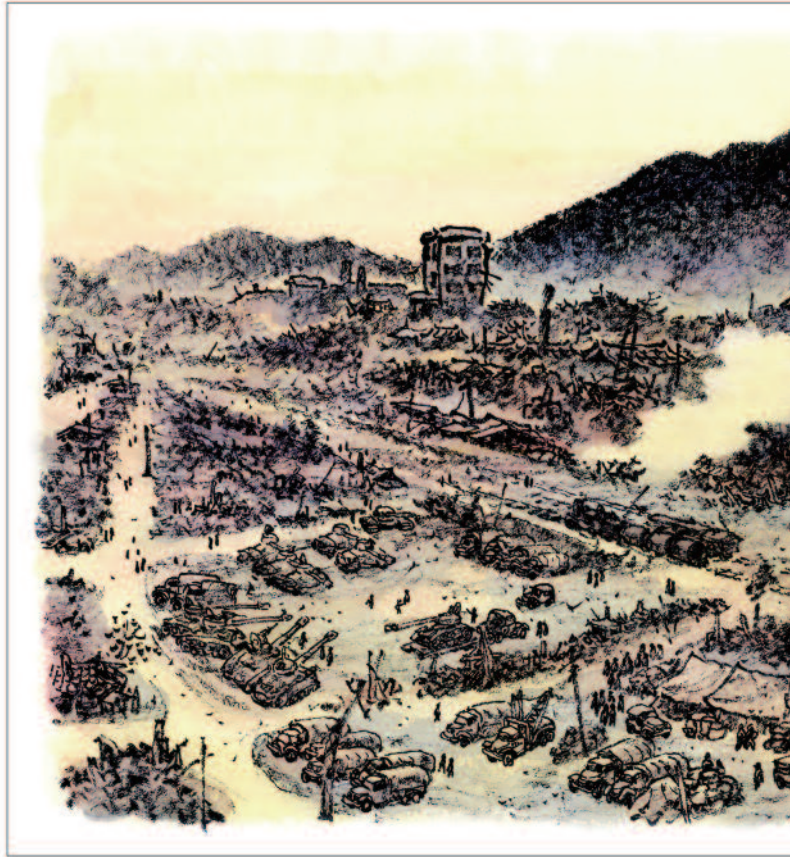
김광성 KIM Kwangsung

김수환 KIM Soohwan

박상희 PARK Sanghee

신태수 SHIN Taesoo

차기울 CHA Kiyoul



## 김광성 KIM Kwangsung

###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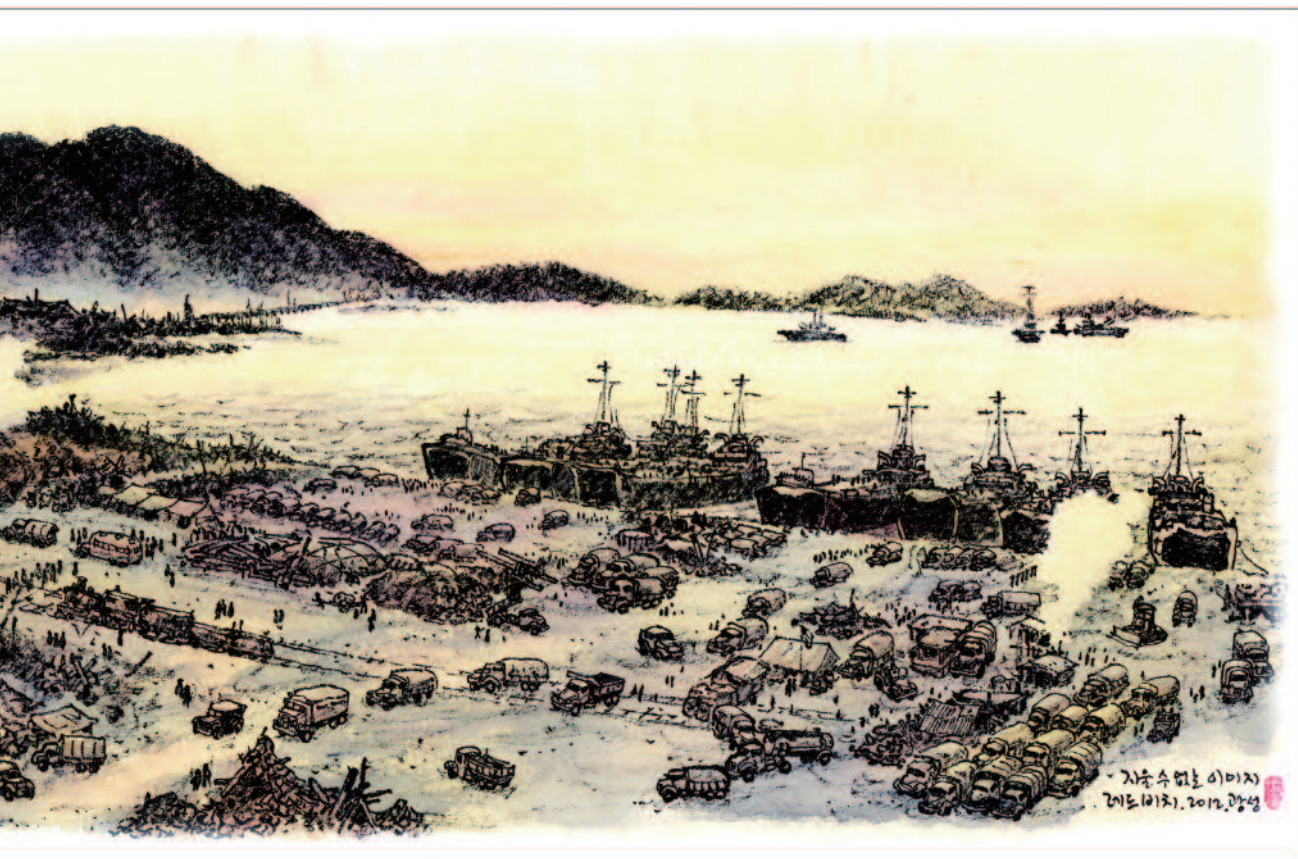
2010 흑백영화속의 서울 풍경전, 자인제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1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8 달 토끼 만화 회원전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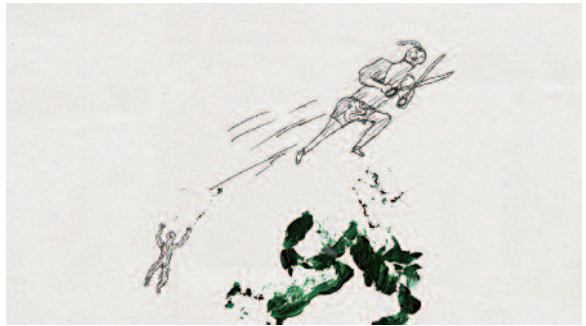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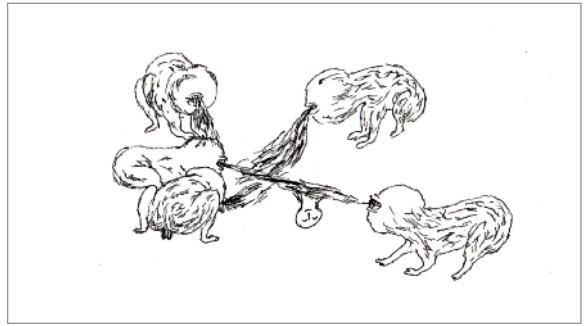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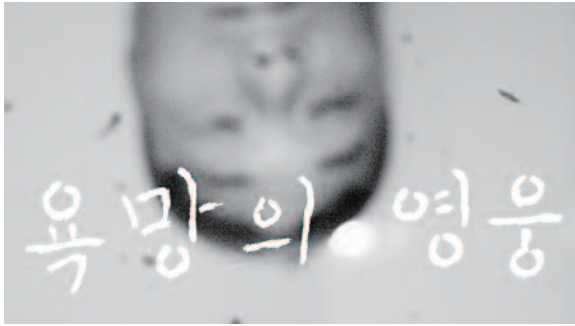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05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1983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1982 한국예술전람회 특선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1981 목우회 입선  
부산미전 서양화 입선



지을 수 없는 이미지-레드비치\_50×120\_한지에 수묵채색\_2012





욕망의 영웅-드로잉\_60초\_싱글채널 비디오\_2012

## 김수환 KIM Soohwan

###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동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 2009 어느 날 어떤 것, 송은갤러리, 서울
- 2008 노가다주식회사, 뽕벳갤러리, 서울  
Room of SINO, N-Space, 서울
- 2007 TOY NOGADA, 성남아트센터, 성남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Again, 갤러리 골목, 서울  
Draw-in, 크링갤러리, 서울
- 2010 세상을 드로잉하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09 간판투성이, KT&G 상상마당, 서울  
City-Ray, 스페이스 빔, 인천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프로젝트

- 2012 우주다방 宇宙多房,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뽕빔뽕빔 도큐먼트, 인천중구 빈집, 인천
- 2009 601비상 아트북 프로젝트 2009, KT&G 상상마당, 서울
- 2007 집들이 642-7, 제물포인근 폐공장, 인천  
홍예문 공공예술 프로젝트, 자유공원 일대, 인천

#### -수상

- 2008 소마드로잉센터 3기 아카이브 등록작가
- 2007 인천문화재단 NCE 특별지원사업 선정
- 2006 제31회 창작미술협회공모전 대상  
601비상 아트북 프로젝트 2006 은상

####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욕망의 영웅\_가변설치\_스티로폼에 아크릴 채색\_2012

## 박상희 PARK Sanghee

---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2 11회 개인전 'A Night Walk', 신세계 갤러리, 인천  
2009 10회 개인전 '야경산책-인천, 홍콩, 요코하마', 가온갤러리, 인천  
2009 9회 개인전 SeMA 신진작가지원전, 카이스 갤러리, 서울  
2009 8회 개인전 카이스 갤러리 기획초대전, 카이스 갤러리, 홍콩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플라스틱 데이즈 plastic days, 포항시립미술관, 경상북도  
재료의 연금술사,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poster poster, 인터알리아, 서울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부산국제아트페어, 부산문화회관, 부산  
2011 생활의 발견 전, 부평아트센터, 인천  
화랑 미술제, 코엑스, 서울  
KIAF Korean Art Show, 82 MERCER, 뉴욕  
KIAF Korean Art Show Special, 뉴욕 한인 문화원, 뉴욕  
홍콩 아트페어, 홍콩 컨벤션 전시장, 홍콩  
이음과 흐름전,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인천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 2012 퍼블릭아트 작가 선정, 아트인 포스트  
2009 버몬트 스튜디오 레지던시 작가선정, Vermont studio center, USA  
2009 SeMA 신진작가지원 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 -레지던스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0 버몬트 스튜디오 레지던시, Vermont studio center, 미국  
2009 인천아트플랫폼 파일럿 프로그램 입주작가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보성 LNG, 아르고 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이랜드 문화재단



평화의 섬, 강화\_190×152\_캔버스에 아크릴과 시트지 커팅\_2012



## 신태수 SHIN Taesoo

---

### 학력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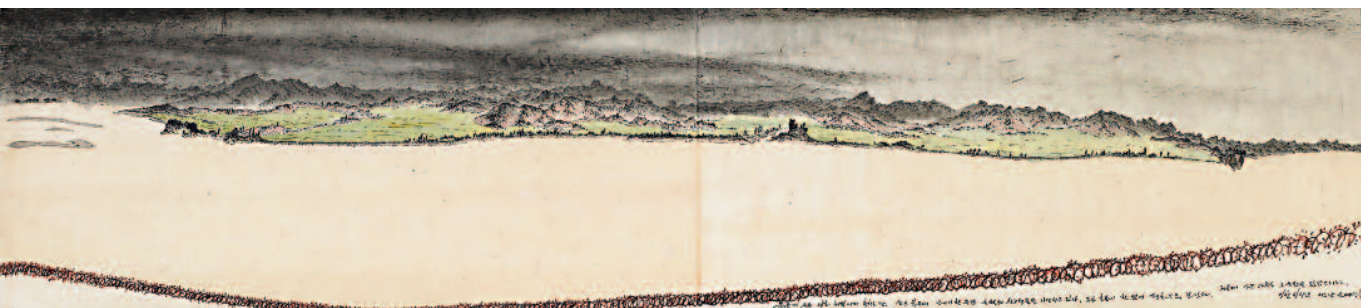
- 2012 꽃을기다리는 나무, 마린갤러리, 부산  
정림리에서의 산책, 박수근 미술관, 양구
- 2011 가슴은 눈을 그리워 하고, 사카야마치갤러리, 교토
- 2010 眞景散墨, 사카야마치갤러리, 교토  
眞景散墨, 북촌미술관, 서울
- 2009 바람의 색깔, 안동시민회관 전시실, 안동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2 세계유산 in 안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고려청자와 한국의 수목화, 국제교류센터, 교토
- 2010 산을 내려가는 물의 마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09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 전당, 서울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레지던시
-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 2011 2기 박수근미술관,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평화로운 땅\_192x42\_한지에 수묵담채\_2012



장산꽃\_192x42\_한지에 수묵담채\_2012



## 차기울 CHA Kiyoul

###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졸 동 교육대학원 졸

### 주요 개인전

- 2011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 LA ART CORE, 로스앤젤레스, 미국
- 2010 순환의 여행/방주와 강목사이, 갤러리 쿤스트 독, 서울
- 2009 세개의 장소, 공간 화랑, 서울
- 2008 순환의 여행/방주와 강목사이, 벨벳 인큐베이터, 서울
- 2007 도시 시굴/삶의 고고학,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1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_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What do you think about Nature?, Gallerie 89, 파리  
부드러운 힘, Sky Moca Museum, 북경  
메이크업 아트 스페이스 개관기념 아나미투스, 파주 출판도시
- 2010 부산비엔날레\_진화속의 삶,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 2009 노마드 프로젝트\_Time & Space, 남고비시막,  
달란자드가드 씨티뮤지움, 몽골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 2010 부산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 4인의 세계대표작가 선정
- 2001-2002 Vermont Studio Center Freeman Fellowship  
(Prix of Winer)
- 2000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중앙일보사 주최, 호암갤러리, 서울)

#### -작품 소장

광주 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  
서울 문화재단 남산 창작센터(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소마 드로잉센터(서울), 인천 문화재단(인천), 쿠베르탱 재단(파리),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경기도 광주), 경기문화재단(수원),  
중앙일보사(서울)

#### -레지던시

- 2010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제주도
- 2009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비, 몽골
- 2006-2007 쿤스트독 국제 창작 스튜디오 예술현장 통의동 입주작가,  
서울





고고학적 풍경-강화\_100x300x20\_나무 숯 동물뼈\_2012



‘황해프로젝트’는 한·중·일 3개국의 작가 12명이 함께하는 전시로써 상해와 인천, 일본의 해안도시의 바다 환경 재생과 순환에 관한 작업을 ‘Yellow sea’라는 주제하에 리서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이 자리한 황해의 조차는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긴 만(灣)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조차가 매우 크다. 총 갯벌 면적의 83%가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며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 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의 5대 갯벌로 꼽힌다.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바다의 바닥이다. 생태계의 순환은 곧 한 중 일 그리고 북한이 맞대고 있는 황해안의 평화로운 인적 물적 교류가 다시금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참여작가 Artists

고진한 KO Jinhan

구본아 KOO Bona

궁썬루 GONG Xinru

김순임 KIM Soonim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썬 Shun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왕 칭 WANG Qing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장 진 JANG Jin

최 영 CHOI Young

하연수 HA Yeonsoo

## 고진한 KO Jinhan

---

###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흐린-그림, 통인갤러리

2011 풍경을 더듬다, 빛뜰갤러리

2010 곡선풍경, 빛뜰갤러리

2009 곡선풍경, 빛뜰갤러리

고진한전, TJH갤러리

2008 사이풍경, SP갤러리

깊은-그림, 렉서스갤러리

2007 생각의 풍경, 공산갤러리

목전풍경, 빛뜰갤러리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미술은행



공공의 풍경\_112×145.5\_캔버스에 유화\_2012



## 구본아 KOO Bona

### 학력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2 구본아 개인전, 인천신세계 원도우갤러리  
2011 시간과 존재의 흔적, 대우증권 역삼역 갤러리  
시간의 이빨, 그림손 갤러리  
2009 폐허산수, 인사아트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기억의 빛깔'-주불한국문화원 올해의 주목할 작가전, 주불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해안동 10-1, 인천아트플랫폼  
八色居詞, OCI 미술관  
HEXAGRAM, 아트포럼 뉴게이트  
지구의 반란전, 우라니아미술관, 독일한국문화원, 베를린  
2011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open studio,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유어인천: 遊於仁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Inner Strength, Able Fine Art NY Gallery, 뉴욕, 미국  
Comparaison 2010,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꽃보다 그림, 봄갤러리  
'공감'고양문화재단 수상작가전, 고양어울림미술관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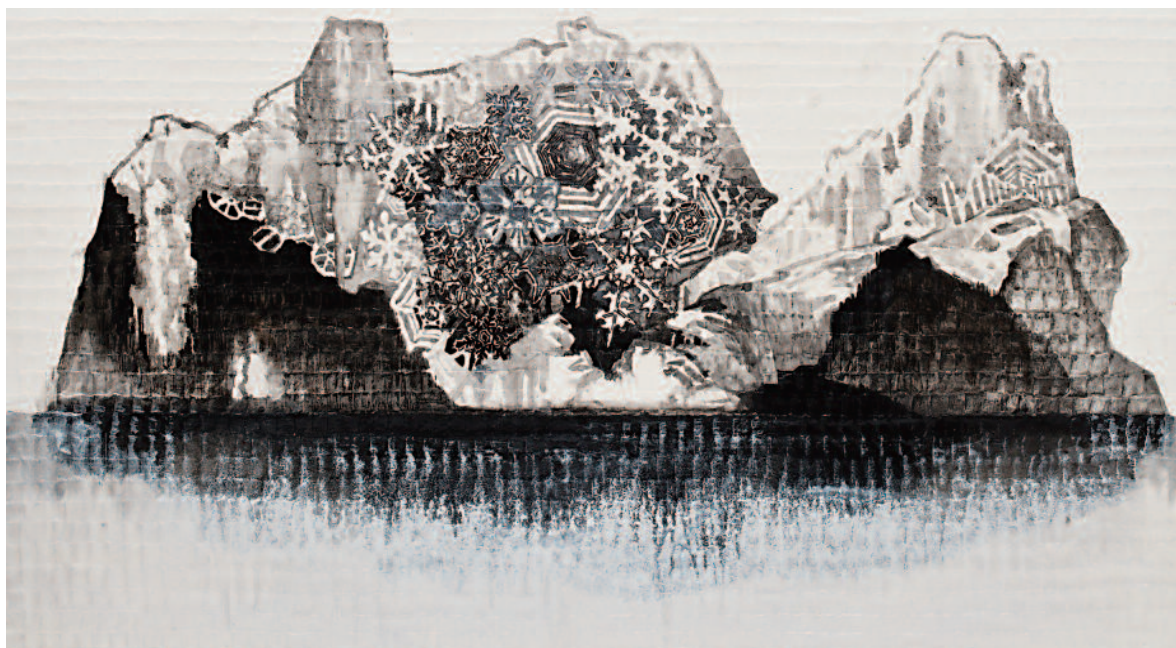
2012 인천미술활성화기획사업 선정, 인천문화재단  
2011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여성문화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2010 고양문화재단 수상작가 선정-'공감', 고양어울림미술관  
2009 일현트래블그랜트상 수상, 일현미술관

#### -작품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OCI 미술관 인천문화재단

#### -레지던시

2012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2011 송암문화재단 OCI 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 OCI미술관창작스튜디오



잃어버린 섬 02\_61x111\_한지 폴라주 위에 먹 채색\_2012



잃어버린 섬 01\_61x111\_한지 폴라주 위에 먹 채색\_2012



Emoticons on Journey\_33×37\_혼합매체\_2010

## 궁싸루 GONG Xinru

---

### 학력

상해 연극대학 무대미술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0 잘못된 길 시리즈, 상해1918예술공간

2012 도대체 어디로, Shun Art Gallery,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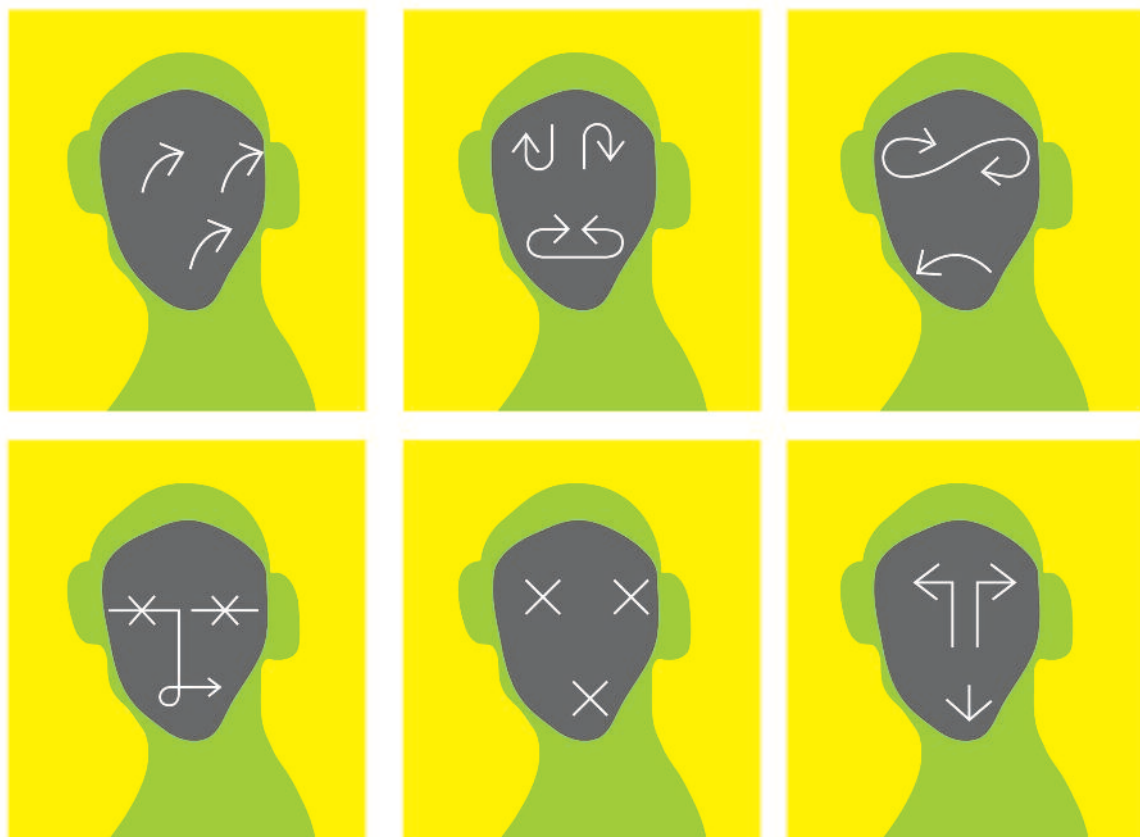
### 주요 단체전

2012 바르셀로나국제예술박람회, 스페인

2012 5\* 5단체전, 상해예술공간

2011 호르몬과 약, 남경약미술관

2011 상해당대국제예술박람회, 상해



Emoticons on Journey\_33×37\_혼합매체\_2010





I meet with stone. (액자)3

## 김순임 KIM Soonim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졸업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12 인천문화재단 역량강화프로그램 선정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전시지원작가 선정  
2011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해외레지던시)  
2010 '7TH ANNUAL ARTEBA-PETROBRAS VISUAL ARTS PRIZE', ArteBA'10,  
작품상3등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 -작품 소장

제주도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아트뱅크, 제주현대미술관,  
AAAC 뉴욕 아시안아메리칸 아트센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김윤신미술관, 외.

#### -레지던시

2012 Eshu Art House, 베이징, 중국  
2011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송암문화재단, 인천  
옥스 웨어하우스, 마카오  
2009 오픈스페이스 배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부산, 한국

### 주요 개인전

2012 나는 돌-I meet with stone, KAIST Research&Art, 서울  
생 날 씨앗들, 대안공간 눈, 수원  
2011 Mind Space, Ox Warehouse, 마카오, 중국  
2010 4/3-5/9 'The Forest of Strayer',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팔색거사-OCI 2011입주자가전, OCI미술관, 서울  
'동토에 핀 꽃'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전, 가평, 한국  
2011 Seoul-Paris, Galleria89, 파리, 프랑스  
Local to Local, TCAC-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타이베이, 대만  
세계를 엮다-국제레지던시 귀국보고전,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집을 생각하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한국조각가협회 한중교류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장춘조각페스타-중한여성작가초대전, 장춘, 중국  
외 다수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2012인천\_가변설치\_혼합매체\_2012

##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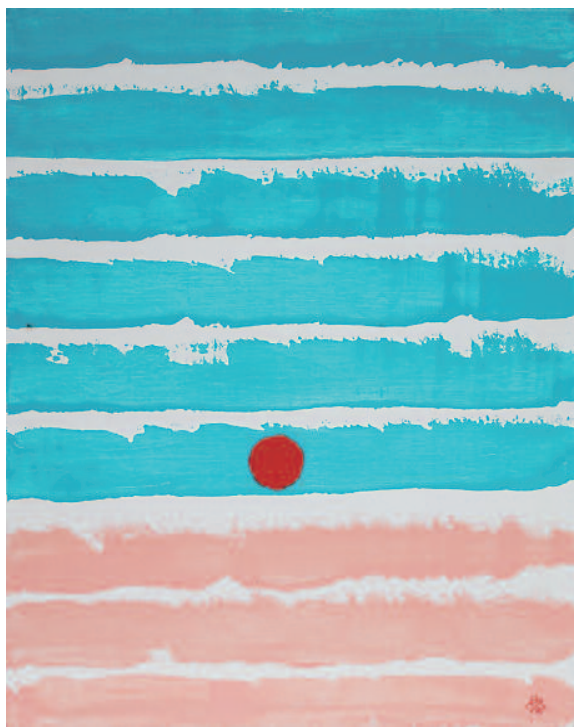
도쿄대학교 미술음악대학 일본미술 전공  
상하이에서 인도 안료 드로잉  
에콜 드 보자르  
Academie de la Grande Chaumiere and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 주요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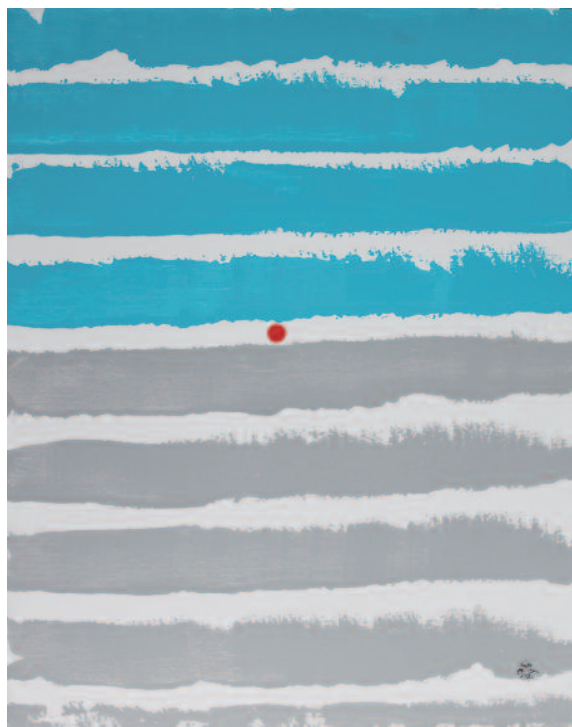
2005-2011 갤러리 사쿠로노키, 도쿄, 일본  
2005-2011 갤러리 13다이에 조베이, 니가타, 일본  
2008 쿨 갤러리, 베이징, 중국  
톱 레드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07 상하이 아트 뮤지엄, 중국  
2003 상하이대학교 미술대학 갤러리, 중국  
1997-2003 반초 갤러리, 도쿄, 일본  
2002 카시와자키 에너지홀, 니가타, 일본  
상하이 중국미술학교, 중국  
2001 더 닛폰 갤러리, 뉴욕, 미국  
갤러리 우에다, 도쿄, 일본  
2000 판화전, 묘코 신사, 카시와자키, 니가타, 일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0 남송국제아트쇼, 서울, 대한민국  
2004-2010 아트 상하이, 중국  
2008 dialogue between Chen Hui and Ryusei Mizuno,  
중국 현대미술관, 중국  
2000 NICAF, 도쿄, 일본  
1999-2002 JADA 전, 도쿄  
The 4th쇼와셀 현대 미술제전, 도쿄, 일본  
1992-2002 Les Artistes Francais Salon, 파리, 프랑스  
외 다수



Beautiful Sunrise 115\_72.7×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Beautiful Sunrise 116\_72.7×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Beautiful Sunrise 111\_72.7×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Beautiful Sunrise 112\_72.7×60.6\_캔버스에 아크릴\_2012



## 순 Shun

---

### 학력

동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경대학 경제 학부 경제 이론 전공 석사 과정 입학  
북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입학  
북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문학학사  
에스모드 파리(ESMOD PARIS) 본교 수학  
에스모드 동경 (ESMOD JAPON In Tokyo) 입학  
동경문화패션대학 패션연구학과 석사

### 주요 개인전

- 2008 제35회 세이수전 08, 동경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The Merged Love, 주기철 미술관, 상하이  
마쯔야마 정원 미술관, 치바
- 2007 Green Men and Red Woman, 상하이  
Wild rose color sunglasses, 파리  
The gnosis about three city, 상하이
- 2006 Life worry, 긴자, 동경  
Travelers, 상하이  
A chance meeting, 상하이
- 2005 탄생의 아픔, 롯본기, 동경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11 자연, 명원아트센터, 상하이
- 2010 에너지 중-일-한 3인전, 상하이  
온고자신, 상하이
- 2009 New Year, 상하이
- 2008 Goodbye! My love-테레사 기념전 에피소드 2, 상하이  
Day dreaming, 상하이  
359°중국-일본 교류 3인전, 심양루쉰미술대학미술관, 심양  
Lotus and Rain, 상하이  
New Art Contest Japan, 동경 미술관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 수상  
2008 세이슈카이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수상



Rely on the wrong one\_200×200\_캔버스에 유화\_2008



Heart\_170×170×10혼합매체\_2006



##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 학력

도쿄예술대학 석사 졸업  
오카야마 간사히 고등학교 졸업

### 주요 개인전

2010 오모테산도 화랑, 도쿄  
2009 Toms. Sandwich, 도쿄  
2008 요조한화랑, 도쿄  
2006 Toki·Art Space, 도쿄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03 위로전, HOT화랑, 오사카  
2001 CHEER YOU UP, HOT화랑, 오사카  
2000 BOX ART미술관, 도쿄  
외 다수



Like a bird, Like a fish\_가변설치\_천, 철사, 색종이, 인광물질\_2012



## 왕칭 WANG Qing

---

### 학력

일본국립동경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 박사  
일본국립동경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 석사  
일본타미미술대학 미술학 석사  
중국국립미술학원 중국미술학사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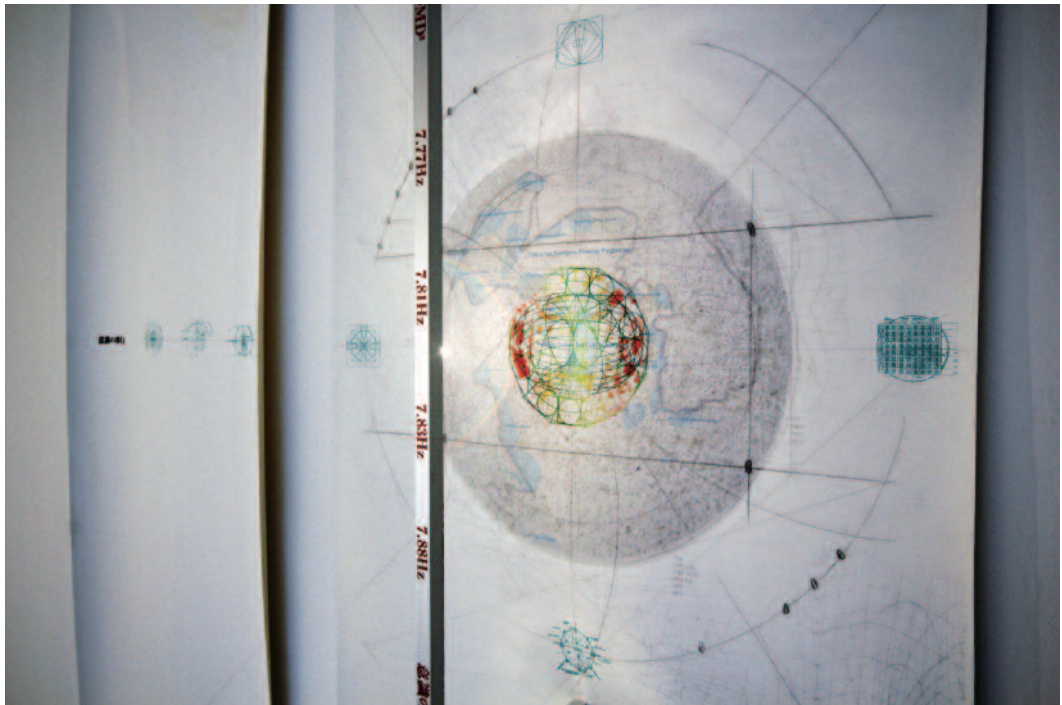
2012 순아트갤러리, 상해, 중국  
2011 도어즈아트페어 2011, 순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생명 - 한중일 단체전, 순아트갤러리 상해, 중국  
2009 일본현대미술전 기획  
2008 북경예술살롱전  
2007 상해춘계살롱전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수상  
2003 동경 에도가와 문화상  
2002 일본미술원 추계 전시 입선  
1999 일본 미술원 춘계 전시 입선  
1997 제 1회 카니카 이슨 기념전 대상  
외 다수



Dark Eden\_100x100\_캔버스에 유화\_2012



##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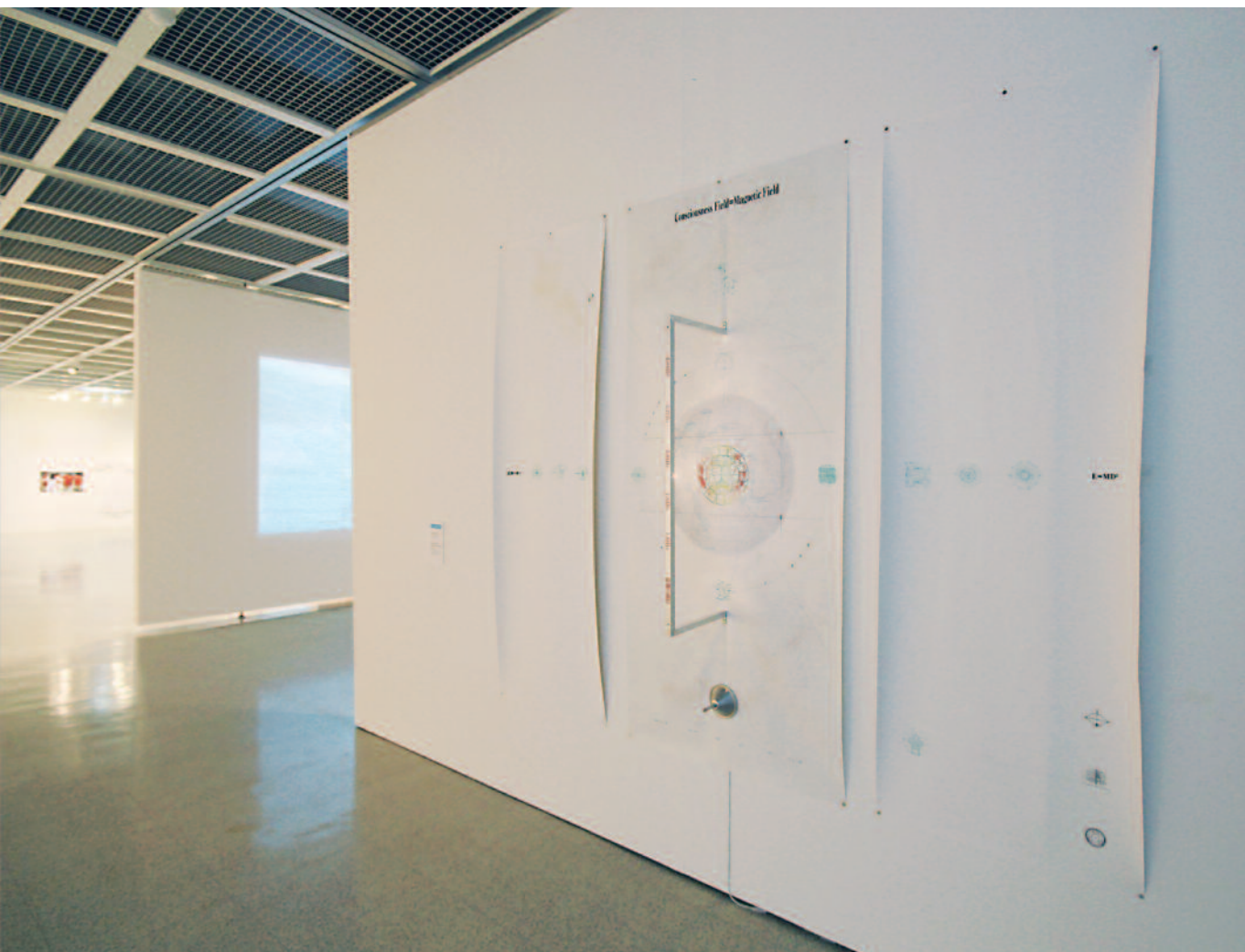
파이널아트 수학  
오카베 문하에서 실크스크린 습득

### 주요 개인전

2006 건축 7.83Hz 심포니빌딩, 펀트화랑, 오카야마  
2005 7.83Hz 심포니페인팅, 하네우사기화랑, 교토  
2003 무지개프로젝트, 오모테산도화랑, 도쿄  
2002 실용미술, 파라글로브, 도쿄  
1999 그 후, 파라글로브, 도쿄  
1998 히로시이타미전, 코조메화랑, 도쿄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0 2010년 보고서, 히구레 화랑, 도쿄  
2009 Parcours-Way-Michi, 도쿄현대미술관  
도쿄로컬2, 코조메 화랑/파라글로브, 도쿄  
2008 일광의 공간, 도쿄, 쥬네바  
원소.Vol3, 파라글로브, 도쿄  
2007 비디오아트축제, 도쿄국립예술대학 바사미치 캠퍼스  
수기나미 미술학교, 도쿄  
외 다수



Shift of consciousness=The rainbow of consciousness\_가변설치\_캔버스에 혼합매체, 실크스크린\_2012



## 장진 JANG Jin

---

###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수료, 서울, 한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졸업, 서울, 한국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11 달빛 프리즘, 갤러리 스페이스 R, 서울

달빛 프리즘, 신세계 갤러리, 인천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2 별별동행, 오씨아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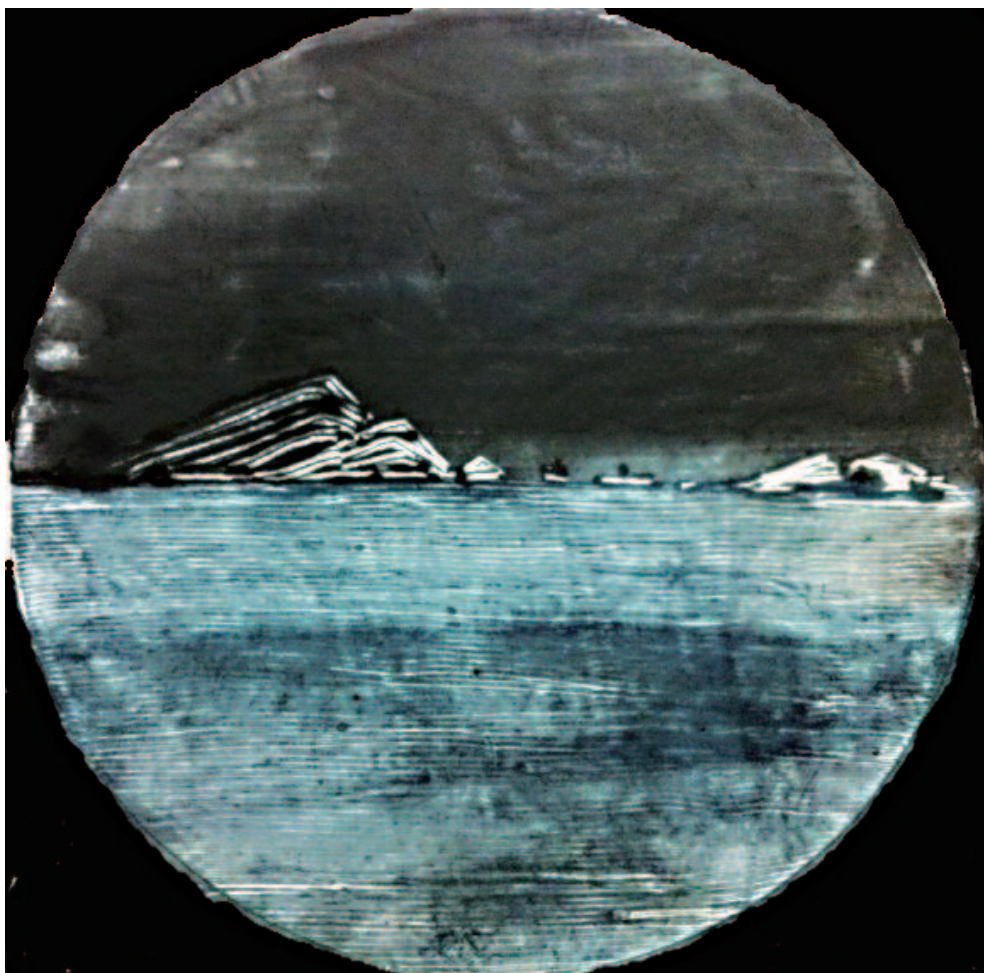
외 다수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레지던시

2011 OC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2010 인천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면 섬\_지름 100\_한지에 수묵채색\_2012



## 최영 CHOI Young

###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대구대학교 졸업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레지던시  
2009 대구 정대 창작스튜디오 입주  
국경없는 미술공간  
(l'espace des arts sans frontieres)  
레지던시 입주, 파리, 프랑스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1 245 & 386,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Fn art Vision Award, 세종문화회관  
2010 3회 개인전\_망막에 비친 그림, 사이아트 미술연구소  
2009 2회 개인전\_불러다 준 그림, 구울담 갤러리  
1회 개인전\_mind contents, 소헌 갤러리  
Exposition d'Art Contemporain\_dpi, 파리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외 다수



망막에 비친 그림(46척)\_161x90\_캔버스에 유화\_2010





## 하연수 HA Yeonsoo

### 학력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박사 졸업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 기타(작품 소장 및 레지던시 등)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일산병원, 신도리코 등

### 주요 단체전

2006 한국, 베트남, 러시아 문화교류전, Vietnam Hochmin Univ. Contemporary Gallery

Alive and Kicking in KOREA, Gallery HM, Australia

지금, 서울의 오늘, 경향갤러리

고구려다시보기 전, 숙명여대 청파 갤러리

새로운 동양의 이미지 전, Joongang art Univ, Contemporary Gallery, China

지구의 기억 전, Art Museum of Jebiwool 기획

한국-인도 현대미술 전, 갤러리 정,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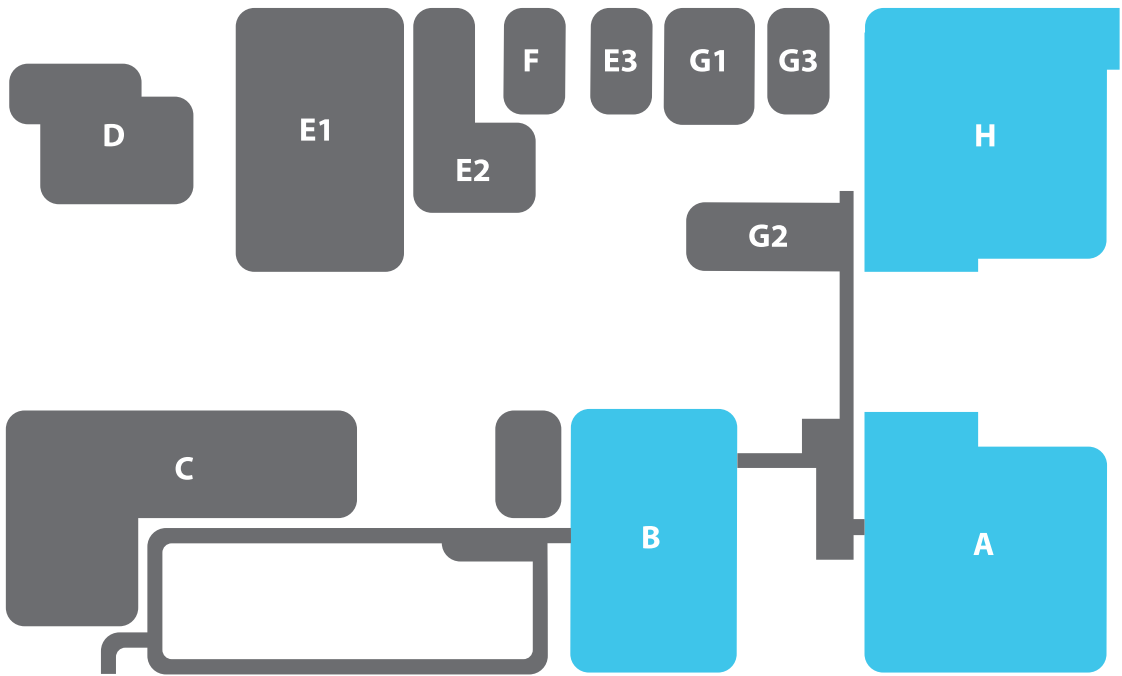


마음속의 바다 : YELLOW SEA\_120×170\_혼합매체\_2012









## 작품 배치도

### A

김광성 KIM Kwangsung  
 김보섭 KIM Bosub  
 김선두 KIM Sundoo  
 김수환 KIM Soohwan  
 김지원 KIM Jiwon  
 박상희 PARK Sanghee  
 백인태 BAIK Intae  
 신태수 SHIN taesoo  
 윤석남 YUN Suknam  
 차기울 CHA Kiyoul  
 최병국 CHOI Byungkuk  
 홍선웅 HONG Seonwung

### B F-1

강현욱 KANG Hyunwook  
 공성훈 GONG Sunghun  
 김 봄 KIM Bom  
 김주호 KIM Jooho  
 김현철 KIM Hyunchul  
 김효숙 MIN Jaeyoung  
 류성환 RYU Seonghwan  
 박인우 PARK Yeenwoo  
 박충의 PARK Chunguei  
 박흥순 PARK Heungsoon  
 송필용 SONG Philyong  
 이수영 LEE Sooyoung  
 이시하라 노리코 ISHIIHARA Noriko  
 이종구 LEE Jonggu  
 임장환 LIM Janghwan  
 정정엽 JUNG Jungyeob  
 조우치 ZHOU Qi  
 짜까판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한윤기 HAN Younki  
 홍지윤 HONG Jiyeon

### B F-2

권윤희 KWON Yuni  
 노순택 NOH Suntag  
 박야일 BARK Yail  
 선 무 SUN Mu  
 오석근 OH Sukkuhn  
 읍쓰양 WOOPSYANG  
 월볼튼 Wil BOLTON  
 이이남 LEE Leenam  
 정용일 CHUNG Youngil  
 최정숙 CHOI Jungsook  
 허용철 HEO Yongcheul  
 홍지윤 HONG Jiyeon

### H

이 인 LEE In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고진한 KO Jinhan  
 구본아 KOO Bona  
 공썬루 GONG Xinru  
 권윤희 KWON Yuni  
 김수환 KIM Soohwan  
 김순임 KIM Soonim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박충의 PARK Chungueui  
 쉰 Shun  
 신태수 SHIN Taesoo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오석근 OH Suk Kuhn  
 왕칭 WANG Qing  
 월볼튼 Wil BOLTON  
 이수영 LEE Sooyoung  
 이이남 LEE Lee Nam  
 이지현 LEE Jihyun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장진 JANG Jin  
 짜까판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최 영 CHOI Young  
 하연수 HA Yeonsoo  
 홍지윤 HONG Jiyeon











INCHEON PEACE ART PROJEC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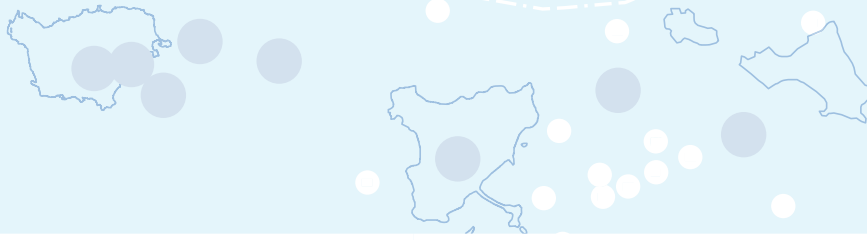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백령도 Baengnyeongdo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 백령도 Baengnyeo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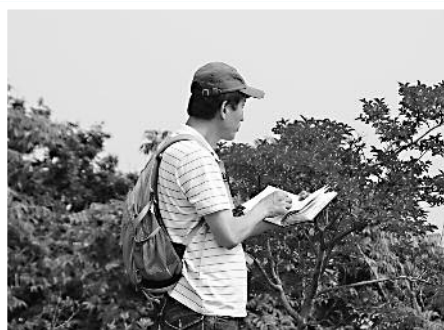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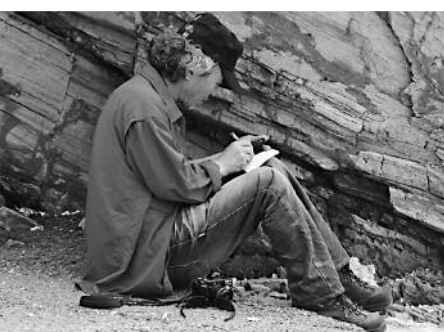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연평도 Yeonpyeo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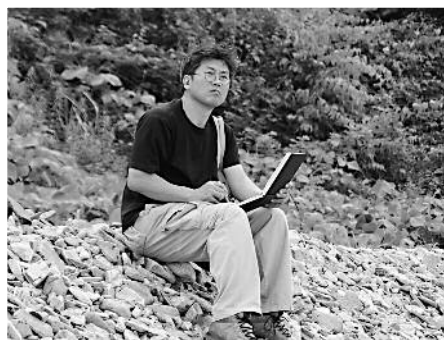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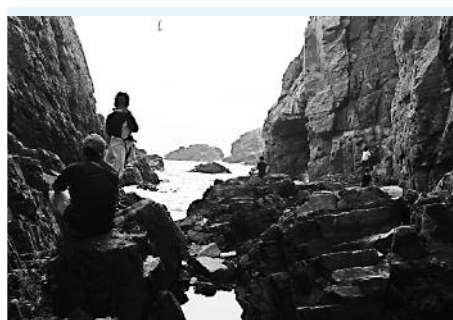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연평도 Yeonpyeongdo











### 강화유수부 동헌(江華留守府 東軒)

유형문화재 제253

조선시대 강화의 행정 책임자인 유수가 업무를 보던 증합 건물이다. 1638년(인조 16) 유수 김신곡이 수리하였고, 1769년(영조 45) 유수 황경원이 현윤관(顯允觀)이라 하였다. 명위헌(明威軒)이라는 현판은 영조 때 명필인 백하 윤승(尹承)이 쓴 것이다.

건물 구조는 정면 8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단층집으로 1977년 강화 중요국립유적 복원정화사업으로 정비되었다.









##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값 22000원



9 788998 145088

03650

ISBN 978-89-98145-08-8